금주 법구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

-잡아함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식재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 THE HYUNDAE BULKYO |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8일 수요일 (주간) | 제 293 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免



지리산살리기국민행

불교 시민운동

통일·인권·환경 영역확대
종사자 전문성 강화 과제

올해 불교시민단체들의 주요한 화두는 '통일' '달라이 라마 방한' '지리산댐' 등이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좋은벗들 등 통일관련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교계에 북한의 전통사찰 복원, 통일교육 등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티베트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타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인권·평화운동에 대한 불교적 지평을 넓혔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은 지역환경운동에 불교계 등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불교 시민운동은 전반적으로 통일·인권·환경에 대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면서 타종교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불교 통일운동이 전문가 부재와 대북창구 단일화 및 단체간 역할분담 등의 과제를 남겼듯이 불교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부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재와 활동가 부족, 스님과 사찰에 의존한 재정난과 열악한 근무조건, 업무량 폭주 등에 따른 의욕 저하 등 만성적인 개선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

최근 불교단체들이 조계종 중앙종회에 상정할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불교시민사회기금(통일기금 등) 설치, 불교시민사회육성위원회 설치, 단체 종사자 교육 및 복지혜택, 사찰 기금출연 및 지원에 따른 분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불교NGO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불교계도 NGO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이버 세계의 장경각! 책방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국내최대불교서점 여시아문 닷 컴
Tel:02)737-0695 Fax:02)737-0696

교과서 불교서술 오류많다

조계종 포교원 2년여 검토…편향·왜곡 항목 교육부에 시정요청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교 교과서 내의 불교관련 내용이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포교원 교과서연구위원회(이하 '교과서 연구위')가 초·중·고 교과서 중 불교관련 내용의 편향·왜곡사례 시정을 위해 98년 4월부터 2년여 작업 끝에 3일 완료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관련 검토항목 131곳 중 시정돼야 할 부분이 39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종교편향적인 서술방식과,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바탕이 되는 도덕과 윤리교과서에서의 오류가 중·고교 공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불교의 시원을 알리는 불기(佛紀, 기원전 6세기)가 기원전 5세기로 잘못되어 있고, 교과서마다 불교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는 점, 또 석가모니, 깨달음, 불교, 불도 라는 용어가 '불타'라는 말로 통칭된 점도 시정돼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도덕(윤리)교과서의 경우 종교형평성이라는 이름아래 1600년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불교관련내용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외래종교와 같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었다. 또 종교를 믿는 이유가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을 종교의 특성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종교활동을 예로 든 경우도, 참다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청소년이, 배타적인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옳지못하다'는 왜곡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국사교과서도 '선종·교종' '화엄사상' 등 그 시대 불교사상의 수용을 정치적 맥락으로만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교의를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반면 서양의 종교는 작업과 시민윤리의 표본으로 묘사하면서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원리로 기술하고 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교과서의 오류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며 "내용의 부실, 오해의 소지, 그리고 왜곡된 부분을 분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공식적인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쓰일 교과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포교원은 앞으로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교사용 불교 지침서 발간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부의장에 청화·명진스님



조계종 12대 중앙종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지하스님<사진>, 수석부의장에 청화스님, 차석부의장에 명진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관련 기사 3면>

2일 열린 148회 조계종 정기종회는 이날 7개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분과위원을 배정했다. △총무분과위원장 정우 △교육분과위원장 향적 △포교분과위원장 장곡 △사회분과위원장 화범 △재정분과위원장 자승 △호법분과위원장 정념.

15일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종회에서는 △원로의원 추천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조계사신협 금융사고 조사특위 구성 △동국학원 조사특위 구성 △중앙승가대 조사특위 구성 △불기 254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 승인 등 17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 종회의장 지하스님은 40년 경북 울진에서 태어나 60년 법주사에서 득도 7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 사교과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실상사, 쌍계사 주지와 9대 중앙종회 부의장, 중앙승가대 총장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통일토론회 올 개최 어렵다"

조불련, 종단협에 통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의 올해 안 개최가 어렵게 됐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은 지난 27일자로 종단협의회에 보낸 팩스를 통해 "수차의 토의 끝에 금년중으로는 사정에 의하여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다음 해에 가서 서로 연계를 가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불련은 "이 문제(통일토론회) 외에 우리와의 베이징 접촉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알려왔다.

조불련은 또 "귀측(종단협의회)에서 화물자동차와 생활필수품을 10월 안으로 우리에게 보내겠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불련의 통일토론회 개최 불가에 대해 북한전문가들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 정부당국 차원의 남북교류에 치중하느라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



간절한 母情佛心 15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일 도선사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성껏 기도를 올리고 있다. 수능시험일이 가까워 오건서 전국 대부분 사찰에는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물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선사=고영배기자

"달라이라마 방한 내년 재검토"

외교통상부 공식발표

외교통상부는 10월 30일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을 불허하되, 내년 중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남수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금년에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방한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순영 중국주재 한국대사도 10월 31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실시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한·중 인식 차이와 외교적 마찰을 줄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해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티베트 망명정부도 10월 30일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국정부의 결정은 취소라기보다는 연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내년에 방한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재경 기자

핸드폰에 불교 담았다

019 이어 017도 불교정보 서비스

本社, LG텔레콤·신세기통신 제휴…프리즘社 개발

불교계 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 신문사가 (주)LG텔레콤 및 신세기통신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0월 19일 019 서비스에 이어 11월 2일부터 017로도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프리즘 정보시스템㈜가 연초부터 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불교정보 서비스는 핸드폰을 통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구축됐습니다. 본사는 019, 017 서비스에 이어 더 많은 무선통신망과의 제휴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접속방법

017 무선인터넷에 접속, Info Touch의 종교메뉴에서 불교정보 선택

019 무선인터넷 초기화면(ez-i)의 정보/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종교에서 종교를 선택해 2번 불교정보 선택

◆불교정보 WAP 서비스 내용

△일일방: 뉴스 메뉴에서는 매일매일의 불교관련 뉴스와 법회 및 행사, 주간 핫 이슈 등을, 담담방에는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의 최근 정보를 공지사항에는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담아지게 됩니다.

△공연 전시: 공연정보와 전시 정보를 나누어 제공하며 장애한 일정과 내용은 물론 주최측의 연락처 및 공연 전시의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법문에서는 현대 고승들의 법어를, 질을 묻는이에게서는 한마음선원 대행 큰스님의 신행상담 내용을 만날 수 있으며, '도'란을 통해서는 귀감과 감동을 주는 명구들을 전해 줍니다.

△마음의 양식: 불교 책미당에서는 베스트 셀러와 화제의 책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교정보검색: 기초용어사전과 불교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찰 안내: 전통사찰과 일반 사찰은 물론 해외 한국 사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카페: 게시판, 대화방, 법구와 문해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들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추후 불교를 소재로 하는 게임방, 퀴즈이벤트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정신



鐘 宗 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사 설

동국학원의 위상찾기

지난 10월 31일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주최로 동국학원의 위상과 발전 방안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나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애를 썼을 뿐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그나마 몇 가지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동국학원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자리였다.

첫째, 종립학교관리위의 법인관리 문제로 제기된 쌍방간의 견제와 불신이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관리위측은 학원설립자임을 내세워 점검·감사·감독해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재단·대학측은 설립만 했지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며(재단 전입금이 전체 예산의 2.75%에 불과한 상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이 정도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무슨 간섭이냐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쌍방 모두 일리있는 주장이었다. 기본교육과정의 종비생들을 돈 안들이고 위탁교육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종단과 재단간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산 불교병원 건립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많은 불자들이 병원 건립에 십시일반 동참하고 있고, 다른 종교가 병원 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조속한 회향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도 건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그간 병원 경영의 실적을 공개하여 경영부실을 걱정하는 종단과 불자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국대학교 교수의 업적이 중앙일보 평가를 보더라도 20위 밖으로 처져있고, 불교관련 학문 성과가 다른 대학에 비해 저조하다는 걱정에 대해 재단·대학당국자와 교수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불교학의 산실이 되어야 할 동국대학교가 자기 구실을 할 수 없다면 종립대학으로서의 면모는 실추되고 교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잠복돼 있던 양측간의 불화가 갑자기 현 시점에서 대두된 것은 잘못보면 불협화음인 것도 같으나 먼 미래를 내다본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는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쌍방 모두 대승적 입장에서 자기 점검의 계기로 삼고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야 할 것이다.

도난문화재 DB 구축

84년 이후 지금까지 도난당한 성보문화재는 473건에 이른다고 최근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밝혀졌다. 매년 28건의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한 셈이다.

어쩌다 문화재가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높은 정신적 가치, 뛰어난 예술성, 높은 학술적 성과를 나타내주는 더없이 귀중한 민족의 자산이다. 문화재는 단지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석굴암 본존불을 보며 우리는 그 그윽한 눈매에 빠져 우리의 마음을 보고, 속진을 씻어낸다. 남산의 돌부처를 보면서는 산하대지와 함께 어울어졌던 신라인의 삶을 본다.

경찰청이 도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문화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이다. 데이터 베이스에는 도난 문화재의 사진을 비롯 재질, 기법, 특징 등이 기록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난 문화재 회수율은 10%대 머물고 있다. 지난 9월 조계종 전남북 지역 교구본·말사 주지회의에서는 각 지방 경찰청에 도난문화재 전담반을 설치하라고 촉구한 이유도 저조한 회수율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이 난을 통해 마약, 밀수 등의 범죄에 대해 검찰청과 경찰청이 별도의 직제를 편성해 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재 도난 범죄는 이미 국제화되었다. 국내 도난 문화재는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유통된다는 얘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경찰청은 이같은 사실에 주목해 구축된 자료를 인터폴과 미국의 FBI, 영국의 도난미술품등록센터 등과도 연계한다고 한다. 도난 문화재 회수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도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 조계종 호법부에서 해당 사찰 주지스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형식적 교육이 아닌, 성보 문화재 보유 사찰들의 소임자들이 도난 예방과 관리의 전문가가 되게끔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암학사' 어떻게 쓸까

승가대 대학원·사회교육원 설립 희망

종 단 스님·재가불자 수련원 복안

올해 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입주가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안암학사 활용에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0월 31일 회의에서 지난 5월부터 안암학사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온 실무팀을 해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김포학사 이전 실무소위원회 김포·안암학사 활용계획팀을 새로 구성하는등 본격적인 결론 도출에 나섰다.

현재 안암학사 활용에 대해 중앙승가대측과 종단이 각각 다른 방안을 갖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승가대 측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대학의 현안인 일반 및 특수대학원과 사회교육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종단에서는 본·말사 주지등 승려교육, 재가불자 교육 등 종도들의 수련원 및 연수교육공간으로 써야 한다는 안을 갖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승가학원 승가대학 실무자로 구성된 이전실무팀은 5월부터 4차례 모임을 갖고 안암학사 활용방안을 몇가지로 정리해 이전대책위에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안암학사 운영권을 놓고 종단과 학교, 동문회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종단에서는 중앙승가대가 종단에 의해 설립됐으며, 김포학사 이전과 관련해 예산의 대부분이 투여된 만큼 종단의 교육시설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안암학사가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재산인 만큼 소유권 뿐 아니라 운영권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동문회는 소유권은 학교에서 갖되 운영권은 동문회에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김포·안암학사 활용계획팀(계성 상운 대원 원행스님, 기획실 박희승과장, 교육원 고명석과장 박용규계장, 중앙승가대 백영식기획과장 유승무교수 김창용 기획실주임)은 앞으로 매주 1회씩 3차례에 걸쳐 논의한 뒤 안암학사 활용에 대한 타당성 있는 안을 내기로 했다.

이전실무 소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안암학사 활용계획 최종안은 11월 마지막주에 열릴 예정인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원 고명석과장은 "그 동안 안암학사 활용방안을 연구했지만 종단과 승가대, 동문회간 입장차이가 커서 뾰쪽안 대안을 마련치 못한 게 사실이다"며 "김포학사 이전이 가시화 된 만큼 이달 말까지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강원 교과과정 통일

내년부터 시행…필수·선택과목 확정

60년대 통합종단 출범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돼온 승가대학(전통강원) 교과과정이 통일돼 내년부터 전국 강원에서 시행된다.

전국승가대학(전통강원) 교직자연합회(회장 지오)는 1일 직지사에서 실제 강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36명의 강사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자총회를 갖고 강원교과과정중 필수과목 선택과목 권장과목을 확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강원교과가 통일화돼 교육, 평가, 수계등으로 이어지는 승려 기본교육의 완결구조를 갖추게 됐다.

교직자 총회에서 결의된 통일교과목은 필수과목의 경우 치문, 사미율의, 범망경, 인도불교사, 불교학개론, 서장, 도서, 절요, 선요, 중국불교사,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한국불교사, 기신론, 유식중관, 화엄경 등이다.

또 권장과목은 조계종사, 포교론, 종교학개론, 율전개설, 선종사, 참선실수, 불교교리발달사, 컴퓨터, 의식작법이며 법화경, 유마경, 아함경, 육조단경은 선택과목이다.

특히 강원교과과정중 필수과목의 확정은 전국 강원교육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 그동안 일부 강원에서 실시하던 불교사 및 유식, 중관등 불교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과목을 공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대가 요청하는 승가위상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후보 첫토론회

14일 오후 송현클럽

수행력·종책 등 검증

태고종은 오는 23일의 제19대 총무원장 선출을 앞두고 14일, 원장에 출마하는 각 후보예정자들의 종책방안 등을 검증하는 자리를 종단사상 처음으로 갖는다.〈본지 292호 3면기사 참조〉

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회장 대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태고종 제19대 총무원장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종책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회장 대은스님은 "지금까지 종단의 총무원장 선출방식은 후보자들의 수행력과 종단 운영방안에 대한 인지능력, 종책방안 등의 사전 검증절차가 전혀 없이 몇 사람의 추천만으로 선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전제하고 "이번 제19대 총무원장 선거는 침체위기에 놓여있는 종단을 일으켜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능력을 갖춘 총무원장의 선출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는 종도들의 여론이 비등해 원장 후보예정자들의 종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선학원 대화재개

16개월만에 정상화 논의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혜창)와 선학원 현안실무대책위는 10월 30일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회의실에서 16개월만에 만나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

혜창스님은 "선학원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선학원 대책위원 동진스님은 "선학원의 수계산림 개설은 도제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조계종과의 분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비영리사업자 등록 사찰

보시금 10%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찰에 낸 보시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5%에서 10%로 확대됐는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찰이 소득공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찰은 세무서에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 신청서(세무서 양식)와 총무원 총무부에서 발급해주는 사찰등록 확인원, 종헌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된다.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등록증 사본을 추가하면 된다.

서류를 접수한 세무서에서는 빠르면 10일 이내에 비영리 사업자 고유번호를 내준다. 따라서 사찰이 서둘러 비영리 사업자로 등록하면 올해부터 보시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찰 통장을 주지스님 개인이 아닌 사찰 명의로 거래할 수 있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성운 기자

"관혼상제 포교활용"

포교승가회 포교방법 세미나서 제기

관혼상제 의례를 통한 포교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포교승가회(회장 종후)는 2일 중앙승가대에서 '21세기 포교방향 및 포교방법론 연구'를 주제로 포교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문화임에도 교계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관혼상제의식을 통한 포교방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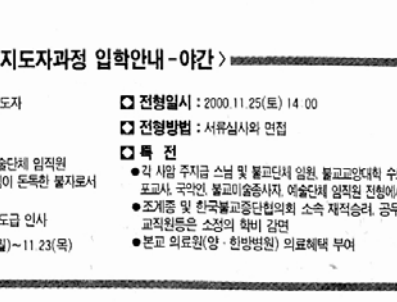
이날 세미나에서 유승무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는 "불교의 목적이 중생의 당면한 고통을 해결하는데 있고 그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존해 인간의 내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불교식 관혼상제는 중생의 기쁨과 고통의 해결을 통한 넓은 의미의 포교 즉 전법활동과 연관된다"며 "한국사회의 상제례중 습은 불교의 재(齋)에서 비롯됐으며, 일곱매듭으로 묶는 염은 사찰의 칠성각 신앙과 동일하여 불교문화와 내적 연관성, 그리고 문화적 적합성과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주장했다.

관혼상제 포교의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유교수는 △사찰의 의식공간 확충 △증단차원의 관혼상제의식 제도화 △스님, 신도조직의 봉사체제 확립 △불교의례정립 △불교호스피스 활성화 △납골당, 위패봉안소등의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성밀스님은(양평 관음사주지) "인생의 통과의례인 관혼상제는 의식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갈수록 빈약해만가는 가족들간 만남을 통해 결속력을 다지게 하여 사회적인 통합기회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러한 역할을 사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개발, 권의시설구비, 소규모 납골시설 구비등의 불교적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김원우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마음의 자유를…

2000 동국백주년
인간중심 디지토피아
2001학년도 전기 대학원신입생모집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불교대학원 [야간]
TEL:2260-3097~8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8(수)~11.17(금)
모집학과 및 전공: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장례문화학과 : 장례문화
전형일시: 2000.11.23(목) 14:00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고사
특 전: ●재학중 해외연수, 국내외 성지순례,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의 기회제공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사학교직원, 불교언론인, 불교계사회복지기관 증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지도자과정 입학안내-야간〉
수강과목: 석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별로 선택하여 수강
지원자격: 조계종 대덕 법계 품수 승려, 각 증단의 간부, 각 신행 단체의 간부 및 대표,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자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11.8(수)~11.17(금)
전형일시 및 전형방법: 2000.11.24(금)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해외연수, 국내외 성지순례, 사회복지기관 현장실습의 기회제공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조계종 종무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사학교직원, 불교언론인, 불교계사회복지기관 증사자는 소정의 학비감면을 받을 수 있음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편입생/야간] TEL:2260-3722~3
모집과정: 석사학위과정, 연구과정
모집전공: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잡지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8(수)~11.21(화)
전형일시: 2000.11.25(토) 14:00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2학기 편입생은 타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이상수료자, 3학기 편입생은 타대학원2학기 이상 수료자기 응시 가능
〈최고관리자과정 입학안내-야간〉
모집과정: 신문방송, 정보관리, 광고홍보, 출판잡지
지원자격: 언론계, 기업체, 국가기관, 사회단체 근무자, 개인사업자 또는 전공관련 분야를 연구하고자 하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석사학위과정과 동일
전형일시 및 방법: 2000.11.25(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특전: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군인은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여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불교문화의 성지, 경주에 불교문화대학원 탄생!
신설 불교문화대학원 [경주·야간]
TEL:054-770-2394~5
모집학과·전공 및 모집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 사	불교	불교학, 선학	00명
	불교예술	국악, 불교미술	
연 구	상 동		약간명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13(월) ~ 11.23(목)
전형일시: 2000.11.25(토) 14:00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01년 2월 취득예정자 (출신학과 제한 없음) ●기타 교육부장관이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형방법: 학부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특 전: ●각 사암 주지급 스님 및 불교단체 임원,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종사자, 예술단체 임직원 전형에서 우대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본교 의료원(양·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지도자과정 입학안내-야간〉
모집과정: 불교지도자, 문화예술지도자
지원자격: ●불교계 각 증단 지도자급 임원 ●국악인, 불교미술 종사자 및 문화예술단체 임직원 ●각 신행단체의 대표와 간부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기타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의 지도급 인사
원서교부 및 접수: 2000.11.13(월)~11.23(목)
전형일시: 2000.11.25(토) 14:00
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
특 전: ●각 사암 주지급 스님 및 불교단체 임원,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포교사, 국악인, 불교미술종사자, 예술단체 임직원 전형에서 우대 ●조계종 및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등은 소정의 학비 감면 ●본교 의료원(양·한방병원) 의료혜택 부여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 세계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합니다.

목어

욕망과 서원

불교에서는 "욕망을 끊어라!"라고 한다. 도교에서는 "욕망을 줄이라!"고 한다. 맹자는 "마음 기르는데는 욕망이 적은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동양의 종교와 사상들은 욕망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욕망은 번뇌와 고통의 근원으로 생각된다. 또 행복의 공식은 가진 것을 욕망으로 나눈 것에 100을 곱한 것이라 하기도 한다(가진 것/욕망×100). 얼핏 들으면 참으로 지당한 말씀 같기도 하다. 욕망이 0이라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도 행복은 무한대일 터이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없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인간들은 욕망의 부추김에 따라 행위한다. 그리고 이렇게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무작정 달리는 삶이 괴로움과 번뇌로 가득차 있다는 것 또한 틀림없다. 그렇지만 단순이 이 욕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행복이 보장될 것인가? 혹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에서는 정말 행복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히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자칫하면 자기합리화요, 자기가 만든 세상에 고치를 짓고 들어앉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을 바꿀 힘도 없다. 욕망이라는 낮은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대신할 보다 높은 차원의 힘을 지니지 않으면 힘있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을 대신하여 불자들의 삶을 이끌 힘이 바로 '서원'이다.

서원을 지니지 않은 채 욕망만을 없앤다면 현실을 꿈 같은 것으로 여기며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나약한 사람이 되기 마련이다. 반대로 욕망이 아닌 서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개인의 이욕을 위한 것이 아닌 구원의 목표를 향한 것이기에 진정한 불퇴전의 삶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본디 욕망과 서원은 서로 대립된 것도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연기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바로 보게 되면, 자연 자기 중심으로 얽혀 있던 욕망의 세계가 사라지고 개인의 성불과 불국토 건설을 향한 서원의 삶이 열리게 된다. 사홍서원을 할 때마다 우리 서원의 중요성을 한번씩 되새겨 보자.

성태용(건국대 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대화하는 종회 만들겠어요"

조계종 종회의장 지하스님 일문일답

조계종 새 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지하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화하는 종회 구현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종단 운영의 경험이 많은 것을 자신의 장점이라고 밝힌 지하스님은 또 종단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면 실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풀어가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2대 종회 후반기 운영 원칙을 밝혀 달라.

▲집행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것이 많다.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종단의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다. 사회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면 필요없는 종단이 된다.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사람을 교육하고, 실천해야 한다.

-종단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종단에 고질적 병폐가 있다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대중의 뜻을 모은다거나,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종회도 대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내 고집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방식은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다. 시간을 두고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화합이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종회가 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할 것이다.

-사면 실시를 위한 종헌 개정안이 종회에 계류중이다. 사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면 시간갖고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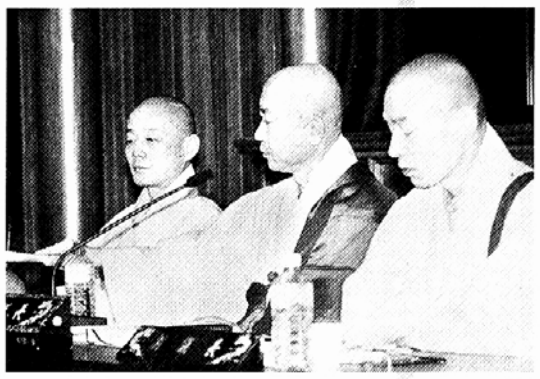
"청사 신축 적극 후원"

▲종회의원 모두 고민하고 있으며, 종회에서 풀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중앙승가대 이전, 총무원 청사 신축 등에 대해 종회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비판할 것인가.

▲중앙승가대 이전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청사 신축은 중앙승가대 이전보다 더 시급한 숙원 사업이다. 총무원장 스님이 노력하면 교구본사와 유수 사찰의 주지스님들을 설득해서 적극 후원케 할 생각이다.

-종회에는 4개의 종책연구모임이 있다.



◇만장일치로 종회의장에 선출된 지하스님(가운데). 오른쪽이 후보등록을 철회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 수석부의장 청화스님, 왼쪽이 차석부의장 명진스님.

선의의 경쟁으로 이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단의 이익보다는 모임별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언론에서 계파를 나눠 대립관계를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친소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친소를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 정치권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화를 잘 하도록 해주는 심부름꾼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내가 그 심부름을 하겠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원로의원 스님들이 서로 의장 자리를 양보하는 무언(無言)의 법문을 설한 데 대해 중앙종회가 종회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모습으로써 화답했다.

조계종 148회 정기중앙종회가 개회된 2일, 12대 종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이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종회의장 후보에 지하스님과 청화스님이 나섰다. 지하스님은 종회 내 종책연구모임인 무등회와 청림회, 청화스님은 일여회와 원융회가 지지하는 후보였다.

5시간 마라톤협상

만장일치 선출 회의장 박수가득

의장 법등스님이 종회의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전 같았으면 투표에 들어갔을 상황이었다. 9선의 최다선 의원인 종하스님이 발언을 신청했다. "종교집단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호혜봉양하는 분위기 속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의장을 모셨으면 좋겠다"며 만장일치로 의장을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두 후보와 종책연구모임을 대표해 장주, 원행 영배, 장윤, 성관, 법안 스님이 4층 회의실에 모였다. 양측의 협상은 3차례나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한때 "시간을 더 준다고 합의될 것 같지 않다"며 경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나왔다.

마침내 두 후보측이 협상을 벌인 지 5시간여만에 청화스님이 중대 발언을 했다. "선거의 속성상 이후 서로 감정의 골이 패이기 마련이다. 종단의 안정을 위해 후보등록을 철회한다." 다선의원인 선배스님과 맞대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다는 청화스님은 "웃어른을 가벼이 여기면 죄가 되고, 아래 사람을 업신여기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오랜만에 종회 회의장에서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성운 기자

"내년엔 꼭 성사되길"

티베트 동북아대사 자툴린포체



"김대중 대통령과 달라이라마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동료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40여년간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분으로,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나라(중국)의 말을 듣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내년에는 비자를 발급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자툴 린포체 동북아 대표부 대사는 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달라이 라마 성하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보고받고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달라이 라마는 한국정부가 아니라 민간단체의 초청을 받았고,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지도자로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를 불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런 조치"라고 말했다.

자툴 린포체는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과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시 김 대통령 앞으로 축하서한을 보냈지만 한국정부가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조차 않고 있는 것은 같은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예의 부족"이라고 꼬집고, 약속대로 내년 방한마저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경 기자

"문화주권 상실" 궐기대회 등 비난여론

달라이 라마 11월 방한불가 이후

준비위 "유럽투어 등 국제연대 강화"

정부가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과 관련, '연내 불가, 내년 재검토'라는 묘수를 내어놓자 각계의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10월 29일 서울 조계사에서 2천여명의 불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궐기대회'를 갖고 이정빈 외교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한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굴욕적인 대중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조계종 종회부의장 청화스님과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 등 100여명의 스님과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김현 교무, 문대궐 목사,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 등 종교 · 시민단체대표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방한준비위는 정부에 대해 "세계평화의 상징인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종로거리에서 자전거 홍보 및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나라당을 비롯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구현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운동실천가족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종교 · 시민단체들도 10월31일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고 달라이 라마 방한을 거듭 촉구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정부가 내년 방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는 시민들과 외국의 비난을 무마하려는 외교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 아래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정부의 입장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이달 중순부터 12월10일까지 대표단과 순례단을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르웨이 오슬로까지 유럽 10개국을 순회하며 달라이 라마의 방한 성사를 위한 국제투어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투투 대주교, 체코의 하벨 대통령 등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및 국제적인 종교 · 정치지도자 99명을 대상으로 방한 허용 촉구 연대서명을 추진하고, 영화 '군둔 보기운동'을 매개로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알리기 캠페인, 티베트 불교문화 전국 순회강연회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는 10월 29일 조계사에서 불자 · 시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중국 무역에서의 불이익,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등을 감안해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한 '연내 불허, 내년 검토'라는 궁여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다수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도와서 성사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는 기본 인식하에, 내년에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불교계와) 방문 시기와 조건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해 나가면서 이를 검토할 생각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 · 내외의 비난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정부의 내년 방한 검토 약속을 국민들이 잊지 않는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성사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는 것이 외교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국제특허 CE마크획득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빅히트 아이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버스 · 택시 10만원, 자가용 7만원 과태료 / 벌점 15점)
차량 무선 핸즈프리 3Free 탄생!!
① 핸즈 프리 기능
② 충전 프리 기능
③ 고정 프리 기능
CE마크란?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인증마크를 말함
3Free 하이테크 기술의 결정체
1. 별도의 시공이 필요없는 시가잭 장착형
3-FREE는 별도의 시공없이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고정되며, 바로 충전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제품처럼 양면 테이프로 붙이거나, 나사로 죄는 불편함을 해소함
2. 충전완료후 자동 차단기능
3-FREE는 핸드폰에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충전기능이 차단되어 핸드폰의 노화와 화재를 예방합니다.
방판 / 직판 조직을 운영 중인 분이나, 세일즈에 자신있는 분들께 최고의 고수익 아이템입니다.
3. 비밀 통화기능
3-FREE는 차량내에서 통화중 다른 탑승자가 있을때 개인적인 통화를 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4. 초간편 다기능, 무선 핸즈프리
3-FREE는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모든기능이 한번에 이루어 지며 다른 조작은 일체 필요없습니다.
별도의 옵션이 필요 없으며, 외부선이 없어 차량안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예상외의 짭짤한 수입 보장
출시 후 상품이 동이날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쓰리프리」 취급점을 모집합니다.
시가잭에 꽂기만 하면 OK! 지금 전화주십시오.
3Free 사용가능 기종
핸즈프리 충전프리 고정프리
■ 소비자가 : ₩68,000
모토로라 스타택 전용
S-001 삼성 애니콜(폴더형 전용)
SPH-N1000 SPH-A1200 SPH-A1004 SCH-A120 SCH-I1000 SPH-I1050 SCH-A8100 SCH-U02 SCH-6900 SCH-A100 SCH-S170 SPH-I1106 SPH-I1108 SPH-I1109
S-002 삼성 애니콜(플립형 전용)
SCH-6800 SCH-750 SCH-900 SCH-970 SCH-5900 SPH-6000 SPH-8016 SPH-2560 SPH-8000 SPH-8100 SPH-8500 SPH-8750 SPH-8700 SPH-8600 SCH-980 SCH-6400 SCH-5700 SPH-6010 SCH-770 SCH-a7000
S-003 삼성 애니콜(폴더형 전용)
SCH-A2000(듀오폴더) SPH-A2000
부다콤 Buddha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9 象갤러리 405호
문의전화 : (02)722-1050
FAX : (02)722-0293
최첨단아이템 「쓰리프리」 대리점 · 특약점모집
◆ 영업팀장(본부장)초빙 : 조직관리 3년이상 有경험자 주부팀 환영
◆ 영업 관리직 / 텔레마케터 : 男 · 女 00名
◆ 女 경리사무직 : 0名





동국대 교직원대상 법문

무진장 前 조계종 포교원장 스님은 14일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문한다. (02)260-3016



대구BBS 사장 취임

성타 불국사 주지 스님은 1일 대구 불교방송 회의실에서 '제2대 대구불교방송 사장'으로 추대돼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석림동문회 회장 취임

법조 고운사 주지 스님은 6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동국대 석림동문회 제9대 회장으로 추대돼 취임식을 가졌다.



윤이상 추모법회 참석

법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 스님은 '제19차 윤이상 음악회 및 5주기 추모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월 31일 방북했다.



청담 대종사 29주기 추모법회

광복 서울 도선사 주지는 15일 오전 11시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에서 청담대종사 29주기 추모대법회를 봉행한다. (02)993-3161



수원 공소사 개원 법문

혜거 서울 금강선원 원장 스님은 18일 오전 10시 수원공소사(주지 청아) 개원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31)246-1001



순직 경관 10주기 위령재

성인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스님은 18일 서내 법당에서 호국 순직 경찰관 제10주기 위령재를 봉행한다. (032)612-9848



조계사서 '관용사회' 강연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관용의 시대를 열자'란 주제로 강연한다. (02)720-1390



부산 BBS 총괄국장 취임

주홍식 전 부산MBC 사업국장은 2일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으로 취임했다. 주홍식씨는 부산MBC불교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피부색은 달라도 부처님처럼"

경불련 외국인노동자 인권센터 회장 영도 스님



"모든 인류는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입니다. 불자들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일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개원식을 가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화센터' 회장에 추대된 영도스님(철원 심원사주지)은 외국인 노동자를 부처님처럼 대한다면 한국이 인권 후진국의 멍에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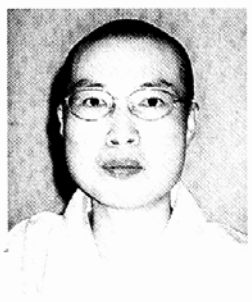
"27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신장과 한국문화의 이해 및 국가간 교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영도스님은 노동·인권 문제 상담, 의료기관 알선, 법률 상담, 교육 및 문화교류, 종교활동 및 쉼터 제공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정했다.

특히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싼 값에 활용하는데 급급한 정부에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중국 교포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따뜻한 법연을 맺게 해줌으로써, 제3세계 국민과의 선린관계 형성 및 한국불교 포교에 기여할 목적으로 문을 연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지난 95년 4월 개소한 '외국인 노동자 마을'을 확대·개편한 민간기구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수행환경파괴·산사태 막아야죠"

장경사 송전탑 반대 비대위장 정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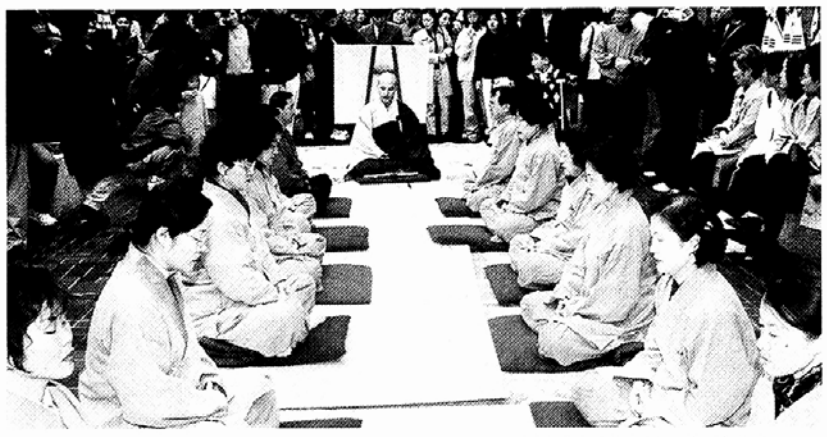
"쌍용산에 송전탑이 들어서면 전통사찰인 장경사의 수행환경이 파괴됨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인 용인시 원산면 학인리 일대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큽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의 편파행정 시정 및 송전탑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계획입니다."

신도·지역주민 300여명과 함께 지난 10월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장경사 노선 철회 촉구 시위를 벌인 '장경사 인근 송전철탑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휴스님(용인 장경사 주지).

정휴스님은 "한국전력이 국정원과 천주교의 반대에 밀려 최적 노선을 버리고 용인 장경사 주변을 지나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사찰수행환경을 파괴하는 무원칙한 행정편의주의"라면서, "다른 사찰의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34만5천 V의 신안성-신용인 송전선로 노선결정 과정에서 1차 노선안을 국가정보원 산하 극동기상연구소의 전파방해라는 반대로 변경했으며, 2차 노선안 역시 천주교 미리내성지의 40만명 서명운동에 밀려 노선안을 변경했다. 그러나 지난 7월11일 확정한 3차 노선에 대해서는 용인시 원산면 학일리 주민들과 조계종 용주사 말사인 장경사의 반대의견은 철저히 무시해왔으며, 공청회나 간담회마저 갖지 않았다.

스님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Focus

참선수행 이렇게 합니다

조계사(주지 지홍)가 10월 29일 제7회 서울 시민의 날 기념 및 인사동 거리문화축제에 참가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조계사가 선보인 불교 프로그램은 참선시연을 비롯해 발우공양, 불화그리기, 컵등 만들기, 선무도 등.

특히 조계사 문화강좌인 '참선수행'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과 스님이 인사동 거리 한복판에서 '참선'을 시연하자 날로 늘어가고 있는 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시민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교포 포교 보람"

사찰기행 순례차 내한 뉴욕불교방송 김자원 대표



"방송을 듣고 전화를 걸어오는 한인 동포의 활발한 목소리를 들을 때 이 일의 보람을 느낍니다."

94년부터 매주 2시간씩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코넷티컷 등 4개 주에 살고 있는 한인 불자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뉴욕불교방송 대표 김자원(50) 씨.

75년 미국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94년까지만 해도 '무종교' 딱지를 고스란히 달고 다녔다는 김씨는 94년 뉴욕 원각사(회주 법안)에서 열린 용타 스님 초청 법회에 우연히 참석한 것이 계기가 돼 불자가 됐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음성포교에 나서고 있다.

"당시 뉴욕의 한인 방송인 '라디오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용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명받아 내 전문기술을 이용해 포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 두고 '라디오 서울'의 스튜디오를 임대하고, '뉴욕불교방송 물처럼 바람처럼'이라는 로고를 내걸었죠." 현재 뉴욕불교방송은 스튜디오를 마련하지 못해 매월 3천 달러(약 360여 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법문 △불자인터뷰 등으로 구성된 전파 포교를 하고 있다.

김 씨는 "뉴욕의 15개 한국 사찰과 한인 동포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오로지 전파 포교를 위해 헌신할 생각"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김자원 씨는 뉴욕불교방송의 '우리문화 유적지 및 한국 사찰순례 1차 기행단'을 이끌고 10월 17일 내한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영화배우 리처드기어 엘리너 인권상 수상



영화배우 리처드기어가 10월29일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로 엘리너 루스벨트 전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딴 인권상을 수상했다. 불자인 기어는 이날 루스벨트 허드슨 밸리 산장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엘리너 루스벨트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녀의 정신이 나와 티베트인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국의 불화' 20권 완간 기념법회

성보문화재연구원(이사장 범하)은 2일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한국의 불화〉 1차 20권 완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한국의 불화〉 봉정에 이어 범하 스님의 경과 보고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 스님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감로사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10월 29일부터 5일 동안 제37회 천화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이 계를 청정히 지켜 나가면 크게는 나라와 세계의 안녕을 기약하는 일"이라고 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수불교문화원 개원 1주년 법회

문수불교문화원(원장 설곡)은 10월 31일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 법회와 일일 찻집을 열었다. 문수사 주지 지원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원스님은 "보다 내실있는 문수불교문화원을 만들어 지역민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 장학금 760만원 전달

마이산 탑사(주지 혜명)는 10월 28일 진안교육청 강당에서 갑사 갑룡장학회(회장 혜명) 이진성 추진위원장과 교육청 관계자, 갱생보호관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초등학생 6명,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10명 등 진안군내 학생 36명에게 총 760만원이 지급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제 19 대 총무원장 후보예정자 초청

중책토론회 개최 공고

본회에서는 제 79 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선출될 제 19대 총무원장 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중앙종회의원과 종단 각급 기관장 및 간부, 시·도 종무원장 및 간부, 주요사찰 주지스님을 모신 가운데, 종단의 발전 지향적인 종책방안을 토론하고자 하오니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4년 11월 14일 오후 2시
■ 장 소 : 송현클럽 (한국일보사 13층)
전화 724-2909, 2914. 739-2926

※ 총무원장 후보예정자는 기조연설문(종책발표문 15분용)과 여권사진 1매를 불기 2544년 11월 11일 12시까지 접수하여 주십시오.
※ 특별한 고견을 주실 스님께서는 본회와 협의하여 주십시오.
※ 장소와 시간 관계상 참관자를 미리 접수받습니다. 접수하지 않은 스님이나 관계자는 당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
전화 741-4031~3 FAX 765-3169

한국불교태고종 종무원장협의회
회장 정 대은 외 회원일동

취 지 문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실시되는(11월 23일) 제 19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세기 한국불교와 침체 위기에 놓여 있는 종단을 일으켜 세우고, 바르게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종단의 총무원장 선출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대표적인 사례가 후보자들의 수행력과 종단 운영 방안에 대한 인지능력 및 종책방안 등의 사전 검증절차가 전혀없이 몇분들의 추천만으로 선출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종도들의 자정과 안타까움의 소리를 들어보면 이제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하나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이번 총무원장 선출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종도들의 여론과 종회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종무원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제19대 총무원장 후보예정자들을 초청하여 종책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토론문화 정착과 종단정책방안에 관한 후보예정자들의 사전 점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종도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애정어린 고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석지형 스님 강론

묘법연화경 대강좌

불교교양대학 제21회



묘법연화경은 일체중생 구경성불의 경전입니다.
석지형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용맹정진속에서
묘법연화경을 편역하여 1993년 불교방송대법당에서
불교계의 여러 선지식 석학여러분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출간기념대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한 이래
제방의 인연사찰과 스님 불자님께 전하여 왔습니다.
금번 각계 교수님의 불교교양 특강과 석지형 스님
의 강론으로 불교교양대학 여전법사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개강일시 : 2000년 11월 9일(목) 오전11시
◉ 매주강좌 : 매주목요일 오전11시~오후1시 (6개월)
◉ 내 용 : 불교기본교리, 참선, 명상, 건강기공, 포교학, 불교상담학, 비교종교학, 법화경
◉ 동 참 금 : 5만원
◉ 동참불자님께 묘법연화경(819p 고급 단행본)과 각종교재 드립니다.
◉ 모범정진불자님은 수행과 전법에 적극 후원합니다.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Tel 511-6210~5 Fax 511-6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압구정동 현대고 신사중 정문 맞은편)

"당면한 고통은 수행의 깊이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장생활과 신행에 보다 더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IMF 이후 금융업계에 불어닥친 대량감원 한파로 불자회 회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김윤하, 이하 금융단)가 10월 28일 한국외환은행 4층 강당에서 8개 금융기관 15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대법회를 봉행했다.



◇ 금융단 불교연합회는 10월28일 한국외환은행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금융구조조정을 불심으로 극복하자고 발원했다.

"구조조정 고통 불심으로 넘자"

금융단 불자회 지난 28일 연합법회 봉행

경남은등 지회 창립지원…보육원 후원도

이번 연합법회는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금융구조조정을 불심으로 극복하자는 취지로 개최된 것. 금융단 불자들은 이날 동국대 현각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현각스님은 법문을 통해 "인연법에 의해 퇴출, 감원 등의 어려움이 내 몫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며 "비록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더 큰 행복과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단은 이날 법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보시금을 11월 중순경 보육시설인 수원 행복한 집에 기탁하고 12일 창립 예정인 수협경북지회와 최근 불자회 결성 움직임이 있는 경남은행 불자회 창립에도 적극 지원하는 등 금융단 불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수협불자회는 12일 은해사를 참배하는 성지순례를 갖고 수협경북지회 창립법회에도 동참키로 했다.

85년 한국은행불자회를 시발로 13개 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단은 연 2회 실시하는 연합법회를 비롯해 성지순례, 수련대회, 봉사활동 등을 펼치면 신행증진과 화합을 도모해 왔었다.

그러나 IMF 이후 회원이 절반 이상 줄었고 불자회 회장과 임원단들이 직장을 떠나는 등 불자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은행이 한국, 외환, 한빛, 서울은행과 수협, 농협 등 7~8개 은행에 불과할 정도로 침체된 상태. 더불어 아직 불자회가 없는 주택, 국민 등 국책은행과 신한, 하나, 평화 등 후발 은행의 불자회 창립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김윤하 운영위원장은 "연합회 활성화를 위해 13개 은행 불자회의 회장단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매달 1회 개최해 의견 수렴과 행사 결정, 불자회 미창립 금융기관 후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IMF 이후 또다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부처님 믿는 마음과 연합회 내실화를 통해 극복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영도구청 법우회가 9월6일 청사내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 모습.

"봉사하는 부처님 제자 될래요"

부산 영도구 법우회 창립

부산시 영도구 법우회(회장 류춘희 영도구청 청소행정과장)가 지난 9월 6일 창립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법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영도구 법우회는 영도구내의 영도구청,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우회로 부산시내 각 구 공무원 불자 모임 중 가장 뒤늦게 생겼다. 출발이 늦었지만 영도구 법우회의 각오가 각별하다. 조직 정비와 함께 영도구 사암연합회 회장 정각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정기법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최우선 과제로 회원 배가 운동에 나섰다. 부산시청 법우회 최익두 회장의 각별한 관심속에 창립을 맞게된 영도구 법우회의 현재 회원은 40명. 류춘희 회장은 "100명 확보까지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봉사활동을 펼치는 진정한 공무원 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도구 법우회는 기존 시청 법우회 법회와 더불어, 구 자체 법회를 3.5.9.11월 연다는 계획으로 조직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대전 정부청사 내 문화재청, 통계청등 7개부처 150여명의 불자들은 10월27일 연합불자회인 반야회를 창립했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 발족

지도법사 장곡스님…직능단체와 교류확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관세청, 특허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등 11개 정부기관이 모여있는 대전정부청사에 연합불자회가 창립됐다.

대전정부청사 연합불자회인 반야회 창립준비위(위원장 김창균)는 10월 27일 청사내 후생동 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마곡사 주지 진허, 갑사 주지 장곡, 태전사 주지 조일, 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 명조스님을 비롯해 인근 지역 사찰 스님들과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안홍부 사무국장 등 청사 불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반야회는 대전정부청사 불자들의 신심을 키우고 불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창립됐다.

특히 문화재청 불자들은 문화재청이 그 어느 부처보다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만큼 개인 신행활동과 더불어 불교문화재의 관리·보호 등의 성보지킴이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갑사 장곡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한 반야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회장단과 임원단을 선출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대전지역에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운불련, 전국교정인불자회 충청지부, 포교사단 대전지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전지부 등 10여개 단체 회장단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하고 앞으로 상호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반야회 창립을 주도한 김창균(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씨는 "앞으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의 한 지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대전지역 직장직능 불자회와 정보교류를 확대해 반야회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우리모임에선

서울시청 불심회 내소사 순례

서울시청 불심회(회장 이정관)는 10월 29일 전북 부안 내소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내소사 주지 진원스님이 금강경 사구게를 설법한 이날 성지순례는 20여명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성북승무소 생태시 낭송회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병호)는 10월 25일, 26일 각각 두 차례 문경 김용사와 대승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사진〉 이날 성지순례에 참석한 80여명의 회원들은 버스 안에서 생태시 낭송회와 환경관련 비디오를 감상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한전 반야회 예절특강

한전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10월 28일 미타사 정수암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정수암 주지 상덕스님이 사찰기본예절에 대해 설법한 이날 법회에서는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불심을 다졌다.

또한 2일 본사 별과 1층 세미나실에서 봉은사 허주스님을 모시고 초발심자경문 강의를 들었다.

게시판

알림

▲김장나누기 기금마련 일일찻집=백천사회복지관은 18일 제 4회 자비의 김장나누기 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제로원(경산 오거리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연다.

일일찻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수익금 전액은 지역내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를 위한 김장지원에 쓰여진다. (053)811-1347

▲사랑의 모금함 설치운동=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의 모금함 설치운동을 펼치고 있다. 사랑의 모금함은 금천구 관내에 소재하는 병원, 제과점, 은행 등의 사업장에 설치되고 모금액은 관내 결식아동 및 무의탁 어르신의 도시락 지원사업에 쓰여진다. (02)806-1376

▲연꽃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연꽃마을은 마포구 관내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병원, 건강체크, 수지침, 목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02)365-3677

강좌

▲수화·발지압 강좌=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랑의 수화교실(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사자고사성어(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발지압(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예(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등 무료 사회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02)421-6077

▲불교의례의식=조계사는 9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의례의식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이고 도현스님이 강의한다. (02)720-1390

▲무료 가야금=금강정사는 무료 가야금 기초반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김정애씨가 강의한다. (02)893-2700

모집

▲선운사 답사자=터사랑은 12일 선운사를 참배할 답사자를 모집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번 답사에서는 모양성과 동리 신재효 생가도 방문한다. (02)725-1284

▲노인종합복지관 후원자=은평서울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작업환경 및 편의를 위해 공기청정기, 커피포트, 생수기 등의 물품을 기증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외국인 안내소 자원봉사자=조계사 외국인 안내소는 외국인들에게 사찰안내, 사찰역사소개, 불교상담을 해줄 영어·일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732-5292

奉 行

青潭大宗師 29週忌 追慕大法會 案內

청담 대종사 29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44년 11월15일
월요일 오전11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문의처 :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3

불기 2544년 11월 1일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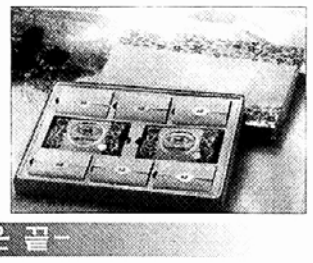
회 주 이 혜 성
주 지 김 광 복 합 장

청담 문도회 일동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페돈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때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점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여일이 지난후에는 눈주위의 기미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전국 대리점 모집중 ※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몸 성할때 베풀자…즐거운 신행"

신행현장 | 구로복지관 자원봉사 할머니들

아직 줄 것이 많은데 받고만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외치는 할머니들이 있다. 이들은 죽는 날까지 여력이 닿는 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10월31일 오전 9시30분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주방. '불교자원봉사'라고 쓰여진 노란색 조끼를 입은 노인 7명의 손이 분주히 움직인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곳에서 벌여온 노인 무료급식 자원봉사. 2시간여 동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배식을 하고 식당 청소와 설거지까지 마쳐야만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엔 오히려 웃음과 생동감이 감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좀더 잘게 썰어야지"

영양사 김선미(25)씨가 소리치고, 이영례(61)팀장이 "또 혼나는 구먼. 그러기에 평상시 잘 보여야 한다니까"라며 농담을 건네자 주방은 일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이날 주식은 소머리국밥에 반찬은 계란말이와 오이절임. 그리고 후원 들어온 떡이 가지런히 쟁반에 놓인다. 특별히 일이 분담돼 있지 않은데도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일이 척척 진행된다.

97년부터 이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온 이영례 팀장은 요즘들어 관절염이 부쩍 악화돼 걸음이 편칠 않지만 팀내에서는 자원봉사에 빠지지 않는 '악바리'로 유명하다. 팀장이라는 책임감보다는 자원봉사를 즐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

"몸 성할 때 베풀어야지 더 늙으면 이 짓도 못해요.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재미도 있고… 재미없으면 이 일은 못해요."

배식시간인 11시가 가까워 오자 150여명 가량의 노인들로 식당은 어느새 꽉 차버린다. 이들은 혼자

자신보다 못한 이웃 돕는것이 자비실천

매주 화요일 점심 노인 150명 식사수발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 지역의 불우한 노인들. 그동안 얼굴을 익혀서인지 배식을 하는 자원봉사자들과 노인들간에 인사가 오가는 동안 배식을 맡은 이팀장과 유길자(61) 박영수(66) 자원봉사자의 걸음이 바빠졌다.

유길자 할머니의 자원봉사처는 이곳만이 아니다. 서울대학병원 약제부, 강북장애인복지관에서 수술에 필요한 거즈를 접는 일과 이



◇자원봉사 할머니들이 불우노인들에게 줄 떡을 담고 있다. 이들은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말한다.

미용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일주일이 모두 자원봉사로 채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일상은 유 할머니뿐만 아니다. 이영례 팀장을 비롯해 모두가 국립의료원이나 다른 복지기관에서 또 다른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모두 원찰이 있고 절에서의 신행활동도 남못지 않게 열심이다.

"우린 아직 늙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는데, 나이 먹었다고 편안히 받기만 해서야 되겠어요?" 윤정애(70) 할머니의 말에 일곱 자원봉사자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다.

윤 할머니는 서울 서초구에서 이곳까지 1시간반 이상을 지하철을 타고 왔다. 팀원들 대부분은 이렇게 1시간 이상을 지하철을 타고 이곳까지 온다.

노인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빠져나간 자리는 쓸쓸하기까지 하다. 이팀장은 함께 자원봉사를 하다 지난 5월 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차정수(69)할머니를 떠올렸다. "다리가 퉁퉁부은 상태에서도 한번도 자원봉사를 거르지 않았었는데…"

이들 자원봉사 할머니들은 그동안 입은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다는 차원에서 능력이 닿는 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설거지를 끝내고 허리를 펴고 활짝 웃는 할머니 자원봉사자들의 얼굴. 노년이 더욱 아름다운 이유를 할머니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 나의 행위 하나 하나 共業

개인이든 국가든 의·식·주를 '해결하고 남는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의미나 모양새가 달라진다.

개인의 경우는 쾌락 추구, 내일에 대한 투자, 남을 돕는 일 등이 있을 테고, 국가의 경우는 군사력 강화, 교육 여건 개선, 복지 향상 등의 형태로 국정의 우선 순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어느 것에 치중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나 가치가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물론 개인이나 국가의 처한 현실에 따라 우선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최선이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불가에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남을 돕는 일, 즉 보시행을 으뜸으로 친다. 더불어 잘 사는, 평화롭고도 조화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자들은 흔히 보시를 개인 차원의 '복 짓는 일'로 받아 들인다. 비유하자면 내일을 위해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와 비슷하게 여긴다는 말이다. 건강, 승진, 합격, 재물, 명예 등을 바라는 것을 가게에서 돈 주고 물건을 사듯이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생각한다.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내 돈으로 내맘대로 하는데, 더군다나 법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그러나 정작 문제는 거기에 있다. 왜냐, 이 세계는 상대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된, 오로지 개별적인 '짓고 받음'이 가능하지 않다. 내 돈이라 해도 1백 퍼센트 내 힘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기에 돈도 벌었고, 재물도 권력도 가능했다. 고로 비록 내 돈으로 나의 복을 위해 보시했다 해도 이미 거기엔 다른 이의 도움이 포함되어 있을 터이니, 어찌 복인들 혼자만 독차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은 좁게는 내 가족, 내 이웃과 연계되어 있고 넓게는 국민, 인류, 나아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고로 나의 행위 하나하나는 개별적인 업이 아니라 공동의 업일 수밖에 없다.

나의 선행, 나의 악행은 곧 선의 공업, 악의 공업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나의 환경파괴 행위는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인자가 된다. 한 개인의 엄청난 도둑질이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는 것도 공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육바라밀 실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



정일스님
보광사 조실

육바라밀은 대승 불교의 기본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가 성불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 등 이 여섯가지 수행법을 잘 실천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번뇌 망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자기 위주로 행동하게 되며 올바르게 불법을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살인, 사기, 금융비리 등 각종 사회문제도 바로 이 육바라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생긴 결과입니다.

육바라밀의 첫번째 덕목인

부처님께서 번뇌병 중생에게 내린 여섯 처방전

보시바라밀은 괴로움과 망상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의 욕심과 교만, 고집, 편견 등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일체 중생에게 대가없이 무조건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보시를 설명할 때 항상 어머니가 갓난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정에서 갓난아이 키울때를 유심히 지켜보세요. 어머니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될까봐 극진히 보살핍니다. 마치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아이를 키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시행을 할 때도 이와같이 해야됩니다.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의 그 마음자리처럼 무아(無我)의 상태에서 베푼다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기쁨과 행복을 느껴 능히 해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계 바라밀은 불자들이 안정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戒)는 흔히 말하는 식욕, 색욕, 재욕 등 '오욕'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도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받들면서 행동한다면 참다운 지계가 이루어 지고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인욕 바라밀은 욕된 것 즉 역경을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참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출 것을 권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가정을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인욕의 경우도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 서로 아껴주면 부부싸움이라는 말은 있지도 않겠지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맞춰주다 보면 자연히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설사 화가 치밀어 오를때도 한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이 내 업이니 기꺼이 받겠다는 마음으로 참고 넘긴다면 지혜가 찾아오고 평안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외에도 육바라밀에는 옳은 일을 부지런히 행하면서 사는 '정진 바라밀'과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치우침 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선정 바라밀', 영원한 생명력에 무한한 행복과 맑은 생각을 갖게 해주는 '지혜 바라밀' 등이 있습니다.

육바라밀은 한마디로 부처님이라는 명의가 번뇌병 환자인 중생들을 치료하기 위해 내려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일상생활에서 매일 실천하는 것은 환자가 시간 맞춰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실천하기 힘들지만 일단 행복의 약효를 체험하면 실천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번뇌병을 치료하고 중생들의 본 마음자리를 찾아 복덕을 누리고 지혜롭게 살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실행에 옮기길 당부합니다.

신행캘린더

11월 8일 (수)

■ 조계사 학업성취기도 천도재=조계사는 오전 10시 대웅전에서 학업성취기도 천도재를 봉행한다. (02)720-1390

11월 9일 (목)

■ 정토회 즉문즉설 법회=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은 8일 오전11시 서울 정토회관에서 즉문즉설법회를 연다. (02)587-8996

■ 법장사 입시생을 위한 7일 정진 기도=법장사는 15일까지 입시생을 위한 7일 정진 기도를 봉행한다.(02)917-0303

■ 능인선원 합동 천도재=능인선원은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선망부모와 인연영가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한다. (02)577-5800

11월 10일 (금)

■ 봉림사 백고좌 법회=창원 봉림사는 오전 10시 30분 성전암 조실 철웅스님을 초청해 백고좌 법회를 봉행한다. (055)267-6336

■ 동화사 삼천불 삼천배=대구 동화사는 10~12일 동화사 대웅전과 봉서루에서 삼천불 삼천배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53)982-0101

11월 11일 (토)

■ 진도 삼성사 법당 낙성식=진도 삼성사는 오전 10시 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061)544-2495

■ 금강정사 삼천배 정진 법회=금강정사는 저녁 7시부터 12일 새벽 3시까지 3천배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02)893-2701

■ 대학생활불교회 연합신도회 창립법회=대한생활불교회는 오후 2시 대한생활불교회관 4층 법당에서 연합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한다.(042)531-9542

■ 도봉경찰서 경승법당 부처님 점안 및 경찰의날 기념법회=도봉경찰서 경승실은 오전 9시 30분 도봉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경승법당 부처님 점안 및 경찰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2)998-4011

■ 동산불교대학 창립 18주년 기념법회=동산불교대학은 오후 4시 동산교육회관에서 창립 1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무진장스님이 법문한다. (02)732-1206

11월 12일 (일)

■ 나우누리 불교동호회 창립 7주년 기념법회=나우누리 불교동호회 부처님 마을은 오전 10시 파주 보광사 대웅전에서 창립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11-9084-8123 최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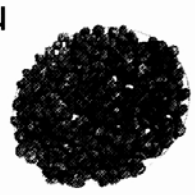
11월 14일 (화)

■ 한국조폐공사 금강회 창립 14주년 기념법회=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오후 4시 10분 사내 법당에서 창립 1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53)810-C410 윤종우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엄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정극정성 93일 인간의 건강이 금쾌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라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검정콩의 이름이다. 선식콩 금단화를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액즙에 검정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액즙에 20여일간 담그어 두었다가 꺼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검정콩 금단화가 완성되기까지 무려 93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퍼렝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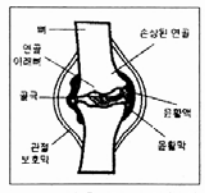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해방될 수 있는 건강식품이 수입돼 화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칼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돌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고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0년 11월 26일까지
◆ 개강일시 : 2000년 11월 27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 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박태원 교수의 11

불교로 보는 인생

거짓말 능력의 각축장

진실대로 말하고 사실대로 보는 지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우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능력부터 키워라!'

'거짓말 게임'이 한국 사회를 읽는 키워드의 하나라면 지나친 자학일까? 최근 한국 사회를 이끄는 정치, 경제적인 파문을 보노라면 저절로 이런 자조 섞인 상념이 떠오른다. 우리 사회의 실세들, 권력과 재력의 강자들이 연출하는 허위와 기만의 파노라마는 흡사 거짓말 능력의 각축장인 듯 보인다. 금융과 정치와 관료가 뱃심좋게 얽혀 한탕 하다가 불거지는 비리와 부정 그리고 거짓말의 수위는 이제 아슬아슬하기조차 하다.

환난이 강요한 구조 조정의 그늘이 아직도 대다수 서민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데, 정치와 행정의 실세들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 사고는 한 건 터질 때마다 수백, 수천 억이 기본 단위이다. 서민들 세금으로 조성한 이른바 공적 자금은 그렇게 생긴 구멍들을 메우느라 조 단위로 동원된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 돈으로 치부하고…. 그러나 비리 책임을 물을라치면 하나 같이 모르쇠를 잡는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옷 로비 사건의 주역들이 청문회장에서 연출하던 그 진지한 거짓말 잔치들은 배역을 바꾸며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영민한 이들은 곧 교훈을 터득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특별히 잘한다. 고로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거짓말 능력부터 키워야 한다!'

부처님이 설하신 해탈 수행법 팔정도, 그 세 번째 수행 항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 수행(正語)'이다. 언어가 인간의 정신과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깊게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 지혜에 새삼 탄복하게 된다.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남다른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도의 사유 능력'과 '탁월한 언어 능력'이 그 대표적인 면모가 아니던가. 부처님의 해탈 수행법은 그러한 인간 특유의 면모들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팔정도의 첫째인 올바른 견해(正見)와 둘째인 올바른 생각(正思)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임을, 셋째인 '올바른 언어'는 인간 특유의 언어 능력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인간 특유의 면모들을 해탈의 토대로 이끌고 있다.

부처님이 '올바른 언어 수행'을 해탈 수행법으로 제시한 것은 언어와 마음의 밀접한 관계를 통찰하셨기 때문이다. 해탈의 궁극 관건은 결국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을 해탈시키기 위해서는 언어 습관의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신 것이다. 왜 그럴까?

현대철학 역시 언어와 사유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주목한다. 언어는 단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생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인간의 사유는 언어적 사유이며, 세상에 대한 해석이나 경험 역시 '언어에 의해 찍혀 나온다.'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삶의 내용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삶의 내용을 구성하는 가치관, 인생관은 압도적으로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해탈은 궁극적으로 '사실대로 보는 지혜(如實智)'에 의해 완성된다. 언제부터인지 작용하고 있는 '사물에 대한 원초적 무지(無明)'를 바로잡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실현된다. 이 지혜를 계발하려면 우선 사물의 진실을 직면하려는 정신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실을 회피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사실을 직면하고 그대로 파악하려는 정신적 경향이 확고해져야 한다.

언어는 사유의 습벽과 내용을 구성한다고 했다. 거짓말이 무엇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은폐, 회피하는 행위. 그러기에 거짓말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정신적 태도와 성향과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반면 '진실대로 말하기'는 사실을 그대로 직면하고 파악하려는 마음의 능력을 증장시킨다.

부처님이 해탈의 통로로 '바른 말 수행'을 힘주어 마련하고 계신 뜻이 여기에 있다. 거짓말은 관계의 그물(사회)을 좀먹는 불신의 기반인 동시에, 해탈이라는 생명 최고의 과업을 가로막는 강력한 마장(魔障)이다. 감쪽같이 속였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 순간, 생명 성숙의 토대는 맥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염불공덕 무위처에 이르고…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불교의식은 염불이 없고서는 여법하게 이뤄질 수 없다. 해인사 정대불사에서 석가모니불을 염하는 불자들.

참불자의 길

염불수행① - 경전에 나타난 염불

부처님 당시 제자들 교단 의식때 감흥어

부처님을 염(念)하는 염불은 불교수행 가운데 하나로 초기불교 이래 수많은 불교도들에 의해 중시되어 왔다.

오늘날 사찰에서 행해지는 여러 불교의식은 염불이 없고서는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또 불자들의 70%이상이 염불신앙에 기초한 신행을 하고 있는 등 불교에서 염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이같은 불교신행과 수행의 중심에 있는 하나의 수행법으로 채택한 것이 염불수행이다.

염불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염불의 최초 모습은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교단에 입단하면서 외우는 감흥어(udana)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부처님의 법을 듣거나 혹은 부처님을 친견한 후 불교에 귀의하는 입단의식에서 '나무불(南無佛)'을 세 번 불렀는데, 이것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발전해 칭명사상(稱名思想)으로 형성되었다. 이를 염불(buddhasmrti)이라고 일러주면서, 염불하는 공덕에 의해 무위처에 이르고, 열반에 들어 갈 수가 있다며 염불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칭명사상은 염불을 하면 공덕이 생긴다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부처님이 설한 법과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명호를 듣는 사람은 똑같은 득과가 생긴다는 대승불교의 문명사상(聞名思想)으로 이어졌다. 태원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특히 〈관무량수경〉의 '칭나무아미타불(稱南無阿彌他佛)'은 염(念)→칭념(稱念)→칭명(稱名)으로 발전되는 대전환기를 마련해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에서 밝히고 있다.

원시경전 가운데 염불을 수행방법으로 언급한 예를 찾아보면 〈증일아함경〉에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 이때 세존은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마땅히 한 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이 널리 이르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 무위처(無爲處)에 이르며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염불이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은 모든 비구들에게 수행의 한 법을 설하셨다는 것이다.

믿음-원력-실천 일치시켜야 염불삼매

〈아미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 등 정토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염불수행은 극락왕생(極樂往生)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여러 가지 공덕장엄을 찬탄하는 법문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왕생할 것을 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모든 중생들은 그 명호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한 생각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곧 왕생하여 불퇴전의 자리에 머문다."〈무량수경〉

부처님은 〈관무량수경〉에서 "극락왕생을 발원한 염불행자는 반드시 지성심(至誠心)·심심(深心)·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의 삼심(三心)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한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아미타불의 서원을 깊이 믿고, 염불행을 통해 무량광명한 불법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발원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염불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른 수행법과 마찬가지로 지극한 마음으로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청정히 하고, 믿음(信)과 원력(願)과 실천(行)을 일치시켜야만 염불삼매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선가의 어록은 가장 오래된 백화문"

33 선어록의 연구(1)



송인성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선어록언어

중국의 선종(禪宗)은 북위시대에 중국의 양나라에 온 인도승인 보리달마(菩提達摩[磨]: ?~528 또는 ?~536)를 초조(初祖)로 하고, 2조 혜가(慧可), 3조 승찬(僧璨), 4조 도신(道信:580~651), 5조 홍인(弘忍:601~674), 6조 혜능(慧能:638~713)의 순서로 그 선법(禪法)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육조인 혜능, 즉 당대(唐代:618~907) 초기에 와서야 선종을 불교의 일파로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아울러 혜능의 〈육조단경〉을 선종의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 여기게 되었다. 선종은 혜능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점점 융성해져서, 당말(唐末) 오대(五代) 및 북송(北宋)시기가 그 전성기가 되었으며, 원명(元明)이후의 선종은 차츰 불교의 다른 종파와 결합이 되어 그 나름의 특색을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된다.

선종의 특색이란, 소위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종래의 전통적인 귀족 사회의 권위주의적 입장을 벗어난 인간의 자연 그대로의 존재를 강조하는 인간관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선종은 불립문자를 표방하였으나, 장기간의 발전과정 중에 의외로 적지않은 문헌이 후세에 전해지게 됐다. 선종의 문헌, 그 중에서도 대화(對話) 부분은 그 당시의 입말(口語)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어학 연구자들의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선 남송(南宋) 시기 운문종(雲門宗) 스님인 정수(正受:1146~1208)가 편찬한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 1202년 편찬)〉 권25에 수록된 본각법진일선사(本覺法眞一禪師)의 말을 보기로 한다.

"선가(禪家)의 언어는 겉만 화려한 것은 숭상하지 않는다. 오직 순박하고 진실하여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시골구석의 백성이나 아이들의 말과 비슷해야만 비로소 알맞을 것이다. 그것(선가의 언어)이 또한 어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가? 이도는 바로 순박함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지, 총명도 필요 없고, 문자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선가의 언어가 비속하다고 자주 비웃는데, 소위 '비웃음'을 받지 않는다면 정도(正道)가 아닐 것이다."

이로 본다면 당시 사람들이 이미 선종 언어의 순박함 내지는 비속함이라는 특색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바로 이러한 언어의 특색 때문에 선종문헌, 그 중에서도 선종어록이 중국어 문법 연구의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중국 언어학자인 고명개(高名凱:1911~1965)가 1948년에 발표한 논문 '당대 선종 어록에 나타난 어법 성분(唐代禪宗語錄所見的語法成分)'에는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다.

"가장 오래된 백화문은 후세에 전해져 내려온 통속문이 아니라, 선가의 어록이다.… 아주 오래 전에 선승들은 스승의 설법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대부분이 백화문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어록'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당송 시기의 입말은 당송명청(唐宋明淸) 시기 근대중국어(近代 漢語)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중국어학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어 관련 논저가 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선종문헌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 중요한 이유는 선가의 독특한 사고 및 표현방식 이외에, 현재에는 사용되지 않는 그 당시의 특이한 입말(선가에서만 사용되는 특이한 입말 포함) 때문에 관련 문헌의 해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간행된 〈한어대사전(漢語大詞典)〉(1987~1994: 부록, 색인 포함하여 모두 13권임)은 표제어가 37만여 개나 되고, 당송명청(唐宋明淸) 시기의 어휘까지 싣고 있지만, 역시 선종문헌에 나타난 입말은 거의 수록하지 않아,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펀리하고 利(LI) 기쁨주는 喜(HL)'S LIHIS양말이 여러분앞에 인사드립니다.

■ LIHIS 건강 지압 양말
☞ 건피부 (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지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 숯 양말
☞ 원적외선 차단
☞ 음이온 발생
☞ 당뇨·혈압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함
건강숯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제조원 (주)화동섬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4~5
전남북 대리점 062)956-7676~7
동대구 대리점 053)982-4976
대 구 대리점 053)252-6966
인천·경기대리점 032)765-4445

학생시험 기도
대학 秘法 수능시험
학생 당사자보다 부모 형제 친지분들이 애가 더 탑니다.
※ 아무리 학업 실력이 좋아도 시험운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올리기가 어렵다.
※ 머리가 맑아지고 당일 최대의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 여기에 있다. (자녀, 조카, 외손, 이웃, 자녀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30년간 팔공산 토굴에서 수행정진하면서, 터득한 비법
1999년도 수능시험 100% 시험 성적 향상!!! 수능시험 일주일전 특수비방으로 처방하여, 시험 당일 몸에 지니면 모든 마장 장애가 없어져서 시험 성적을 오르게 한다.
▶ 시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 처방 기도비 : 108,000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우선 비법을 우송해드립니다.
FAX 접수 대환영 : 053)983-9223
츠즈 수능시험 합격 秘法 공개
▶ 피땀흘려 공부한 결실. 天神이 나를 도와 소원 성취!!
※ 팔공산 갓바위 부처님만큼 영험이 있는 시험의 급소를 찌르는 우주 영감을 연결하는 비법
※ 시험성적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
광명 대천세계 지장선원
상담전화 : 053-982-6778 011-813-3679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식』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스이 미카오(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류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氣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튜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氣치료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튜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氣치료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제3단계, 3일정도' 소요, 70만원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신비의 氣파스 요법
氣가 통하면 온몸이 편해집니다!!
◎ 氣파스 요법
氣가 막힌 곳에 붙여 주면 시원해지고 통증이 사라집니다.
▶ 허리용 set ₩20,000
▶ 무릎용 set ₩20,000
▶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 (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350,000
▶ 손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마원봉 ₩80,000
은희란아 목걸이 ₩88,000
▶ 氣 밴드
· 무릎밴드₩18,000
· 허리밴드₩9,900
· 손목밴드₩8,800
· 팔목밴드₩12,000
氣 목대 ₩39,000
※ 무릎, 허리, 신경통 등 불편하신 스님들에게는 氣파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우) 014092-06-011003 (김건순)
□ 성인병, 관절염, 무릎, 허리, 비염, 위장, 간에 대한 상담
□ 안내 책자를 무료 우송해 드립니다.
韓國氣研究院 02)455-6944 · 453-5851

외환위기 직후 반짝 상승했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저축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행태가 고소득층을 닮아가면서 저축률이 매년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통신, 교양, 오락비 등 선택적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동아건설 퇴출과 현대건설 1차 부도 등으로 감지할 수 있듯이 다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10월 31일 저축의 날을 보내면서 알뜰히 모아 어려운 때를 대비하는 지혜를 알아본다.

이렇게 들었다

저축

틈틈이 모아 어려울때 대비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하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며, 틈틈이 모으고 축적해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선생경〉

▨만약 가족을 거느리고 세속에 살면서 재물에는 재앙이 있음을 깨달아 족함을 알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재물을 쓰면 욕심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복음경〉

▨나는 일체의 옷을 저축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또한 저축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만일 옷을 저축함으로써 곧 악한 법을 더하게 하고 착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런 옷을 저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착한 법을 더하게 하고 악한 법을 쇠하게 하면 이러한 옷은 저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음식, 촌, 읍 등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중아함경〉

▨벌이 먹이를 모으듯이 부지런하게 일하면 그의 재산은 저절로 불어난다. 이와 같이 재산을 모은 사람은 집안에 복과 이익을 가져온다. 그 재산을 네가지 몫으로 나누어라. 그중 한 몫은 생활비에 쓰고, 두 몫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한 몫은 저축해 두어라. 그러면 가난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부경전〉

▨어떤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법답게 재물을 구해 어려운 때를 대비해 축적해 놓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사제경〉

▨가난하고 궁할 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재물을 가벼이 여겨 사치를 즐기면 가정이 파괴되고 재앙을 부른다. 가난하고 궁할 때를 대비해 저축해 두면 이런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선생경〉

▨다른 사문 바라문들은 오로지 잡기를 즐겨 바둑, 장기 등 갖은 놀음을 하며 오락에 빠진다. 그러나 사문 고오타마는 어려움이 닥칠 때를 생각해 그러한 일이 없이 재물과 시간을 축적한다 . 〈범동경〉

▨중생들은 저절로 난 멥쌀을 먹었다. 계속해 풍족히 생겨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저 중생 중에 어떤 자가 가만히 생각했다. '아침에 먹을 것을 아침에 취하고 저녁에 먹을 것을 저녁에 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앞으로는 3일분의 양식을 미리 취하자.' 그래서 곧 한꺼번에 취하였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영리해서 쌀을 저축했구나. 나도 이제 3일분의 쌀을 저축하리라.' 그 사람은 곧 3일분의 양식을 저축했다. 〈소연경〉

"도덕적 해이…진정 모두 참회하자"

물자 세상보기

사회 곳곳의 부패 반복되는 대형사고

그때뿐인 뉘우침 언제나 제자리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일 것이다. '도덕적 해이'라는 뜻의 이 말은 부패한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 '도덕'이라는 말이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고 보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다.

단풍놀이를 다녀오던 관광버스가 대형 트레일러와 정면 충돌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뒤인 10월30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1주기를 맞은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의원들이 피해보상 지연과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방치 등 인천시의 무신경을 성토하자, 시의 기획관리실장은 "법적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참다못한 의원들의 호통이 계속되자 그제야 "책임이 있다"고 꼬리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는 한 때 '위험 공화국'으로 불렸고, 지금도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와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7월에는 수학여행 버스참사로 20여명의 꽃다운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10월 중순에는 지하술집 화재로 6명이 숨졌다.

참사와 '도덕적 해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자. 참사가 일어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반성이 녹음테이프 돌 듯 반복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뉘우침은 그 때 뿐이고, 우리는 언제나 늘 제자리다. 이유는 간단하다. '내 일이 아니니까' '나 때문은 아니니까'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의 말은 이런 우리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압축해 보여준 것일 뿐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남의 일'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 성숙한 시민사회일수록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보편화돼 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 '도덕적 배려'에 '나누어 책임지는 자세'가 배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웃 일본은 지난해 9월 방사능 누출사고를 계기로 '실패학(失敗學)'을 구축하자는 보고서를 냈었다. 실패, 사고, 시행착오 사례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각종 참사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닥칠 지 모르는 일이다. 참사를 당한 사람들만의 아픔으로만 치부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비단 이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가해자요,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경한 일상, 무감각한 관습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찌 한 두 사람의 책임일 수 있겠는가. '도덕적 해이'는 바로 스스로 참회하지 않는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시민의식이 없는 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각종 참사를 막을 길은 없다.

〈심지관경〉에 "능히 법답게 참회하면 번뇌를 없앰이 수미산과 대해(大海)를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진정한 참회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재단전입금 늘리자" "종립학교 역할 못한다"

동국학원 발전 방안 세미나 주요쟁점

10월 31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 조계종립 동국학원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서 학교측은 종단의 지원을, 종립학교관리위는 학교측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촉구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학담)가 주최해 연 이날 세미나에는 종회의원과 동국학원 보직교수 등 150여명이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 동국학원 발전 방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3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이번 세미나는 종립학교관리위 연구소위원장 영담스님의 기조발제 '동국학원의 건학 이념 구현과 발전을 위한 제언', 종립학교관리위원 장곡스님과 동국대 교수회장 심익섭 교수의 '조계종단과 동국학원의 생산적 관계 모색' '동국학원 운영 현황과 발전 방향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와 동국대 관계자들이 동국학원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특정 문중중심 폐쇄성

■동국학원 문제의 원인

영담-종단의 책임이 일차적이다. 이사, 감사를 지냈거나 지금도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일부 스님들이 종단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자기역할을 방기하고 특정 문중 중심의 폐쇄적인 태도에서 많은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용길(기획인사처장)-동국대가 수차례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종단이 지난 30여년 동안 불안정했다는 것이다.

연기영(법과대학장)-50년대 이후 종단의 갈등·대립 과정에서 학교에 대해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자리도 학교 설립 이후 처음이다.

병원불사 관심과 지원

■불교종합병원

영담-동국학원은 당면한 사업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일산불교병원의 경우 이미 지급된 220여억원을 제외하고 향후 투자해야 할 예산만도 1500억원을 상회할 것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이 대부분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사업성 검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의구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정대(직원노조위원장)-병원 건립에 대해 비판만 할 시기가 아니다. 종단이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

송재운(전 법인사무처장)-동국대의 위상을 높이고, 자비실천의 염원을 달성하는 불사이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비판보다는 병원 건립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옳다.

심익섭(교수회장)-주사위가 던져졌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세영(종회의원)-불교종합병원을 짓는 것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 그러나 큰 재벌이 운영하는 종합병원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병원 건립에 대해 종단과 협의한 바도 없다. 질의해도 답변이 없다. 만약 운영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

현응(종회의원)-학교와 종단은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다. 일산병원 건립을 위해 종단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데, 종단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 종단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르고 있으니 지원이 있을 수 없다. 재단과 종단이 자료를 공유해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간섭과 관심은 다르다

■건학이념의 실현

장곡(종립학교관리위원)-학술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대 제공은 종립대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동국대는 이 분야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동국학원이 물량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술적으로 현대사회에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종단이 문제를 제기하면 '부당한 간섭' '종단이 또 괴롭힌다'고만 생각한다. 이같은 학원 관계자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필요한 대립만 낳을 뿐이다.

정용길-학교 설립 목적에 우선적으로 봉사하고 복무해야 한다는 요구는 자칫하면 대학의 학문적 풍토를 배타적인 편협성에 매몰시킬 소지가 있다. 조계종단은 건학 이념 구현을 통한 대학 발전을 기대하고 독려하되, 학교 경영의 법적 주체인 재단을 통해야 한다.

학담-건학 이념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인사처장께서 수계식 같은 것을 나열하는데, 그게 아니다. 종단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며, 전통가치에 대한 자기모멸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

법산(정각원장)-신임교수가 오면 불교와 전공분야를 연계하는 논문을 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서울대에서 식품공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육식과 채식, 유식학을 관련지은 연구를 하겠다며 유식학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논문을 많이 내주길 교수회에서 독려할 수 없다.

이사들의 역할 크다

■종단과의 관계설정

장곡-종단과 동국학원의 생산적 관계 모색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동국학원은 종단의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동국학원 이사·감사들이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종단에서 파견한 이사·감사는 동국학원 운영을 잘하라고 파견한 종무원들이다. 이사·감사들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를 공개회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그간 보여온 문중적·개인적 이해를 떠나 종립학원의 발전에 정성껏 노력을 보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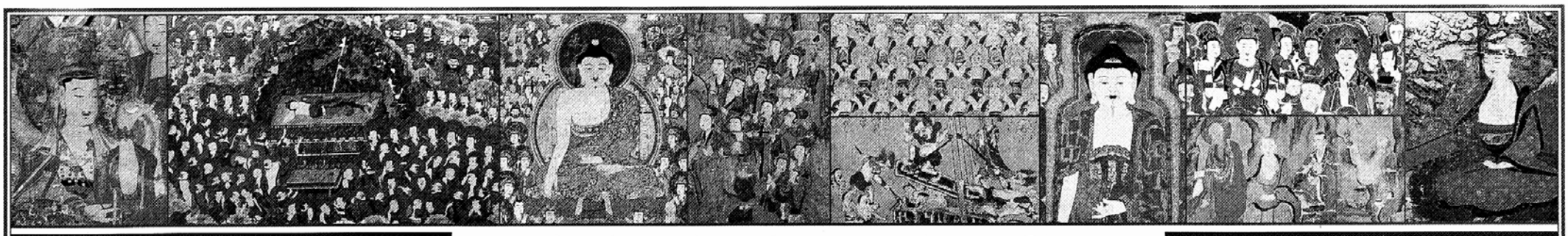
정용길-동국대가 종단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학술 연구를 통한 불교 발전에 기여, 인재 양성, 포교 등으로 요약된다. 조계종단이 동국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적인 지주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졸업생 취업, 학교 홍보 등이다. 우리 대학의 재단 전입금은 매우 낮은 수준(2.75%)이다.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김정대-전문성과 재정 동원력을 갖춘 인사가 재단의 상층부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 발전의 전제조건은 재원의 확보이다.

현응-재단 전입금이 2%대라는 것을 오늘 알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사장이 뛰어서 전입금을 늘렸어야 했다. 종단의 기여도가 이렇게 적은지 종도들은 모르고 있다. 종단에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영담-재단 전입금이 2%대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정리=정성운 기자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컷 수록)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 석정 큰스님–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의를 지닌다.
– 조선일보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 가로 257×348㎜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 각권 250쪽 내외
(원색화보, 해설,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 전면 컬러 · 양장제본
○ 발행처 :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 각권 90,000원

韓國의 佛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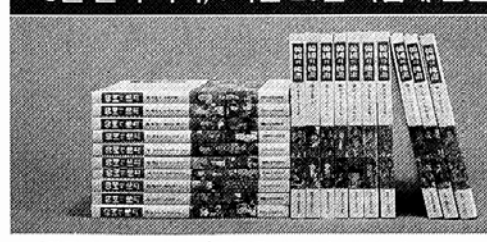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친견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탱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호에서 우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제8권 직지사 본말사 편(상)
제9권 직지사 본말사 편(하)
제10권 월정사 본말사 편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제12권 선암사 편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제14편 선운사 본말사 편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제18권 대학 박물관 편(I)
제19권 대학 박물관 편(II)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특별가 200질 한정보급
기간 :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 1백만원(20권 1질, 현금결제에 한함)

사·부·대·중

가을산사의 걱정거리



홍승
대구 부도암

가을철 단풍이 절정을 이룰때면 풍광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산사들은 단풍구경꾼들 때문에 한바탕 몸살을 앓곤 한다.

대부분 도심지에 사는 관광객들은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심신을 맑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산을 찾고 자연을 찾는다. 자연이 주는 청량감은 공해에 찌들은 이들의 마음을 정화하기에 항상 충분하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산사에 사는 스님들은 관광객과의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산사와 자연을 찾는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이다.

겨칠 전 거주하는 사찰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바깥이 하도 소란스러워서 나가보았더니 원주소임을 보는 스님과 한 관광객이 소리를 높여 다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보니 절 뒤쪽의 밭에서 내려 오길래 왜 그쪽에서 내려오느냐고 했더니 괜히 절이 생겨서 산도 마음대로 못타게 됐다며 오히려 투덜댔다는 것이다. 그 말의 잘못을 지적하다보니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 시비가 되고 만 것이었다. 다툼을 진정시키고 관광객을 잘 타일러서 보내긴 했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 관광객이 내려온 절 뒤쪽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원관리소에서 철조망을 쳐놓은 곳이다. 하지만 쳐놓은 철조망은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인데 그 이유는 쳐놓으면 렌치로 끊고 들어오고, 조금 더 위로 치면 또 그 위로 샛길을 내서 다니고 하여서 가끔 지금처럼 시비거리가 일어난다.

우리 민족의 관광 수준은 세계적으로 낮기로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자연파괴에 대한 과보를 바로 받고 있는 때에도 관광객들의 의식수준은 요지부동이니 가슴이 답답하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자연환경 때문에 생태계가 변하여 우리 나라의 자랑이었던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도 차츰 없어져가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 때문에 꽃이나 채소들도 제 철을 모르고 피고 지곤 하는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결국 '나하나 쯤인데 어때' 하는 개인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가꾸는 책임은 바로 지금의 우리들 개개인이 맡아야 함을 깨닫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이다.

목탁소리

불자의원 모임 '유감'

김 두 식 〈취재1부 기자〉

최근 새천년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달라이 라마 방한운동에 비협조적인 것은 물론, 심지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불자모임들이 순수한 신행단체가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조직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가연대와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달라이 라마 방한 관련 정치인 33인 선언자 중 여당 국회의원과 천주교인 국회의원은 볼 수 있어도 연등회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불교계 현안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불자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 불자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최근 영남권 불교행사에 불자의원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모습도 영남 표를 의식한 정치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물론 정당과 정치인은 분명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자국회의원 모임이 정권 재창출의 전위부대(?)가 아니라 신행단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 불교계는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 이외에도 지리산 댐 백지화,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이같은 현안에 대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모습이 아닐까. 또한 여야가 여당논리와 다수당의 논리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정각회 문제도 진정 불교를 위한다면 정치논리 보다는 원융화합의 정신으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불자모임들은 창립 당시 보여주었던 신행단체로서의 초발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더불어 '표를 위한 불자'로서가 아니라 불교적 가치를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회 속에 널리 구현하는 '자랑스런 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한 하루속히 정각회를 정상화하고 한국불교가 정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 안목의 신행을 펼쳐야 할 것이다.

神의 존재 강조…획일적 가치관 유도

초·중·고 교과서 불교관련 오류

현재 교과서는 제 6차 교과과정의 개편에 의해 96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2001년 중학교 1학년, 2002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03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순으로 새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초중고 교과서 중 불교관련 내용의 잘못된 기술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관과 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특히 21세기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출발한 7차 교육과정은 교과서가 개정되는 것뿐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의 오류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조계종 포교원 교과서연구위가 수집한 초·중·고교의 교과목 중 불교관련 내용이 언급된 국어 국사 윤리(도덕) 사회과목의 오류를 정리한 것이다.



◇교과서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진은 현재 사용중인 초·중·고 교과서들.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오류가 미미하지만 몇가지 개선사항이 지적된다. 5학년 사회과 탐구 소단원 '대왕암과 감은사'에는 신문왕이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감은사를 지은 것으로 서술됐으나, 감은사는 문무왕 때 짓기 시작하여 신문왕 때 완공된 절이다.

또 소단원 '석굴암'에도 분황사 석탑이 9층으로 표기되 있으나 본래 몇 층인지 분명치 않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판각 이유도 우리민족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앙을 통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표현이 합당하다.

중학교

도덕 2학년 '청소년의 종교 생활'이라는 항목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종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기독교도인 아들의 참된 종교생활을 방해하는 불교신자 어머니를 등장시켜 어머니와 아들이 언성을 높이며 싸움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또 '현대사회와 시민윤리'에는 기독교의 예정설에 바탕을 두어 설명하고 있으며 서구의 시민혁명과 종교개혁이 사람들을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생각케 했고, 서구사상이 현대의 근검절약과 기업정신에 이바지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기술된 동·서양사상 내용 중 불교가 우리 민족정신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사상의 인용이 22회인데 반해 불교는 5회로 유교 편중현상이 높다. 이는 우리민족의 사상이 유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사상으로 단정하고 이런 가치들이 유교와 도교의 전유물인 듯한 인상을 심어줘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면에서도 제1단원 '삶과 도덕'에 수록된 '부처님'의 경우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집을 떠났다'고 기술하여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개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효'의 경우 근거도 없이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기술하고, 사상중 '心生卽種種法生'을 '한가지 마음이 일어나면 깨달음이 일어나고...'로 해석하여 마음에서 비롯되는 외계의 사물과 현상을 가리키는 법(法)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다.

국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소단원 '무궁화' 중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반대개념으로 중생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1학년 2학기 '민통선 지역탐방기' 두타연 탐방기 중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불타'를 닦는 수행...'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불타를 '불도'로 고쳐야 한다.

국사 '통일국가의 성립' 단원에서 삼국시대 5교 9산을 설명하며 화엄종이 대표적인 종단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 종단이 성립된 것은 고려시대 부터이다.

또 모두 81,258장의 경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 한다는 기술은, 실제 8만4천 번뇌에 대처하는 가르침이 무수히 많다는 뜻의 8만4천 법문을 수록했기에 팔만대장경이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른 오류로 보인다.

사회 '인도문명의 발생'을 설명하며 불교를 다루고 있는데, 불교창시연대가 기원전 5세기로 되어있는 것은 기원전 6세기의 잘못이다.

또 부처님의 말씀 중 '현재의 삶은 전생과 내세 사이의 과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힌두교사상을 그대로 따라, 불교는 항상 불완전한 현생을 벗어나 정리된 내세를 지향하는 염세주의 종교로 서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윤리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실려있는 불교관련 내용이 2백36행을 차지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어 불교외 난해함만 가중시키고 있다. 空(공), 和諍(화쟁), 中道(중도) 오수(悟修) 등의 간략한 표현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현실에 적응시킬 수 있는 교리의 현대적 해석과 풀이가 요구된다. 금강경을 반야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불교의 핵심사상인 중도의 경우도 양비론이나 불가지론으로 해석하고 있어 소극적이고 현실기피적인 종파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국어 고등학교 국어(상)교과서 〈불국사 기행〉중 석가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사달을 당나라에서 불러온 석수로 기술했으며, 십일면 관음보살 표기중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거꾸로 바꿔 교사하고 있다. 〈구운몽〉에도 금강경 사구게(四句偈)를 '네진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운몽과 불국사기행은 문학작품인 만큼 교사용지침서에는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사 〈사상의 발달〉 중에서 하나속에서 만물을 아우르려는 의상의 화엄사상을 전제정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기술하여, 화엄사상이 전제정치의 이론인양 해석될 오해의 여지를 준다. 〈학문과 기술의 발달〉에서도 도선의 풍수도참사상이 신라의 국력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정치이념과 도덕과 윤리의 사상적 기반이 유교였다는 내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김원우 기자

팔만대장경 명칭 경판 숫자로 오인

소승불교 일방적 폄하 국가이론에 불교 제외

백제 아사달을 당나라 석수로 적어

의상의 화엄사상 전제정치 이론인양

국어사전도 불교용어 오류투성

5개사전 257개 항목 교정필요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동아 교학 금성 민중 성안 등 5개 유명출판사에서 펴낸 사전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불교용어를 잘못 풀이했거나 풀이 내용이 빈약한 단어가 257개 항목에 이른다.

오류로 지적된 예 가운데 '생불(生佛)'을 '여러 끼를 굶은 사람' '미륵'을 '돌부처'라고 풀이해 불교 사상을 왜곡한 경우도 있다. 또 계를 받는 '수계(受戒)'나, 절에서 주식을 담당하는 공양주를 스님들만으로 한정해 풀이하기도 했다. '방장'의 경우도 총림의 웃어른이라는 용어 대신 주지가 거쳐하는 방으로 설명하고,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미·사미니도 '20세 미만의 어린 중'으로 표기하고 있다.

국어사전은 교과서와 같이 언어 및 문자생활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꾸준한 조사와 개정 촉구가 요구된다.

49재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신간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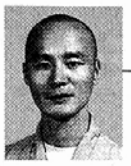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육조단경 ②

본래 갖춘 자성이 곧 부처

"남 위하는게 자기 잘사는 법"

가야산 자락이 한껏 멋을 부리다가 이제는 한올 한올 벗어버리기 시작했다. 대자연은 우리에게 무상법문을 설하는데, 우리들은 즐길 줄만 알았지 자신을 바라보려고는 하지 않는다. 모두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까? 대자연은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데에 자유롭건만,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자신의 허울을 벗고 무소유로 돌아가 올바른 부처노릇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인색한 모양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자성(自性)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자성이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천수경(千手經)〉의 사홍서원(四弘誓願)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우리는 스스로가 부처인 줄을 알기는 쉬우나 부처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다. 예불, 참선, 참회, 기도 등 다양한 수행정진이 부처노릇을 하도록 이끄는 길잡이임을 알아야 한다.

자심(自心)의 부처가 부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중생의 자리로 옮기려 할 때 이것을 제도하는 것이 자성중생서원도(自性衆生誓願度)이다. 자심의 부처가 번뇌를 일으킬 때 이것을 끊고자 하는 것이 자성번뇌서원단(自性煩惱誓願斷)이며, 자심의 부처가 본래 구족한 공덕을 활용치 않을 때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자성법문서원학(自性法門誓願學)이고, 자심의 부처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성불도서원성(自性佛道誓願成)인 것이다.

중생은 소아(小我)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노릇을 하고 부처는 대아(大我)에 만족하기 때문에 부처노릇을 할뿐이다. 소아와 대아의 중간에는 무수한 '아(我)'가 있다. 나라고 할 때는 자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가장 작은 나요, 우리라고 할 때는 나보다 조금 범위가 큰 것이다. 이웃은 가정보다 조금 큰 나요, 마을은 이웃보다 조금 큰 나다. 이렇게 제일 작은 나에서 가장 큰 나로 최대한 키운 것이 부처님의 대아인 것이다.

아집(我執)은 몸과 함께 생긴 것이므로 구생혹(俱生惑)이라 하거니와, 육체가 있는 한 아집을 버리기는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 해탈을 위하여 아집을 끊는 것이 이상이지만 작은 나를 보다 큰 나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좀더 현실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소견이요,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가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요, 곧 보살도(菩薩道)인 것이다. 이렇듯 부처노릇을 하는 것에 대하여 혜능스님은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 마하반야바라밀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차별이 없건만, 다만 어리석고 깨달은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로다. 내 이제 마하반야바라밀법을 설해서 그대들로 하여금 각각 지혜를 얻게 하리니 지극한 마음으로 자세히 들으라.(當知愚人智人의 佛性이 本無差別이언마는 只緣迷悟不同 所以로 有愚有智니 吾今爲說摩訶般若波羅密法하야 使汝等으로 各得智慧케 하리니 志心諦聽하라.)"

우리는 흔히 반야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입으로만 떠드는 구념반야(口念般若)일뿐, 아직 반야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백날을 하여도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실천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하고 있다.

혜능스님의 법(法)이 다름아닌 부처님의 반야바라밀법임을 이로써 여실히 보인 것이며, 이것은 5조 홍인대사(弘忍大師)로부터 받은 〈금강경〉의 반야바라밀법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혜능스님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부처노릇을 하기 위해 반야바라밀법을 수행하라는 내용을 설파하고 있다.

※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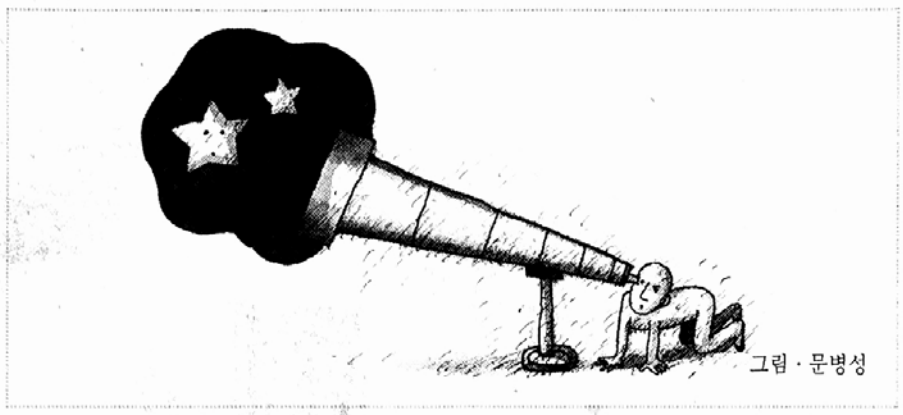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우주는 움직이는 하나의 그물

불교와 과학 〈5〉

고대 희랍의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플라톤의 철학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간단히 그의 우주관이 2000년 가까이 서구 근대과학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려 한다. 플라톤이 알아낸 사실 중에는 엄청난 기하학적 발견이 있다. 그것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정다면체의 수는 오로지 다섯 개뿐이라는 사실이다. 4, 6, 8, 12, 20 정다면체가 그것이다. 일일이 그려보지도 않고, 정244면체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아가 정12828면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한 플라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단지 기하학의 진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존재의 진리 그리고 천체 즉 행성들이 운행하는 진리에까지 천착되었다. 이러한 기하학적 진리가 경험세계에도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강한 신념이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신념은 근대 초기인 갈릴레오의 경험론적 천문학에서도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보자. 정4면체 안에 내접하는 원1이 있다. 그리고 정4면체에 외접하고 동시에 정6면체에 내접하는 원2가 있으며, 정6면체에 외접하는 원3이 있고 그에 외접하는 정8면체가 있어 다시 그에 외접하는 원4가 있다. 다시 그에 외접하는 정12면체 밖에 외접하는 원5가 있으며, 그 밖에 외접하는 마지막 정다면체인 정20면체가 있어서 그것에 최종 외접하는 원6이 있다. 이렇게 사유 속에

우주적 기하학

추상적으로 구성된 6개의 원이 바로 행성의 궤도가 된다고 서구 근대인은 보았다. 왜냐하면 기하학적 진리가 곧 경험적인 천체의 진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철저한 합리주의 전통의 결과로써 천문학을 재구성한 결과이며, 이러한 재구성에 대하여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신이 부여해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망원경을 통해서 본 당시의 행성의 수는 정확히 여섯 개였다. 결국 기하학의 진리는 곧 경험세계의 진리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 학 자 **물체 움직일때 공간 휘어져**

화 엄 경 **만물 인연으로 얽힌 인드라**

이러한 서구의 기하학을 배운 이선재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다. 그는 우주의 별들 사이에 내재하는 기하학적 구조가 있다고 믿었다. 이선재의 연구과제는 고대 희랍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처럼 우주의 조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의 조화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인간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음악이라고 보았다. 이선재는 음악대신 수학을 동원하여 그것을 표현하려고 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과학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선재는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하여 우주 공간에서 시간의 변환에 따른 물체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특수 상대성이론과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쌍둥이 벌의 기하학적 구조를 밝혀 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이론을 동원하여 우주 공간의 휨 현상을 찾아내어 별들 사이의 여행을 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비밀을 밝혀 냈다. 그는 우주 공간이 편평한 것이 아니라 휘어 있음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 휘어 있는 공간의 의미는 공간 스스로 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던져진 물체가 운동할 경우에만 그 휘어 있음이 실현된다는 뜻이다. 물체가 운동한다는 것은 물체가 갖는 질량과 속도에 따라 그 휨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래서 그는 운동의 속도와 질량에 따른 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주 공간을 그물 망 구조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편평한 그물망 위에 물체를 던질 때 그 그물망이 휘어지는 정도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에 어느 정도 비례할 것이라는 과학적 예측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 사각형 모양의 그물망을 네 모서리에서 손으로 잡고 있다고 치자. 그런 그물 망 위에 갑자기 아주 무거운 물건을 던진다면 두 모서리 혹은 아주 더 무거운 물체라면 네 모서리 모두가 한 곳으로 모아 질 것이다. 이런 우주의 공간을 비쥬얼하게 상상을 한다면 먼 거리로 떨어져 있는 공간이 순간적인 시간차원에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선재의 우주 천문학의 꿈이었다. 이런 꿈이 실현된다면 얼마 전에 한국에도 다녀갔던 스티븐 호킹의 엔트로피 감소가 일어나는 도발적인 우주공간의 꿈이 실현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선재는 연구실에서 나와 도서관에 들렀다가 우연히 화엄경이라는 번역본을 쥐게 되었다. 그 책 안에는 인드라 망이라는 우주의 구조가 간단히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종교적인 환타지로만 여겼다. 그날 밤 이선재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인드라 망의 이야기가 하나의 소설로만 그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 최종덕 / 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타밀(Tamil)과 티베트, 이 두 민족에는 공통점이 있다. 신할리즈의 스리랑카나 한족의 중국이라는 타민족의 나라에 속한 소수 민족으로 독립이나 자치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민족에 대한 국내 불교계의 반응은 판이하게 다르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정도로 국내 불자들은 티베트에 많은 관심을 쏟는 반면 타밀에 대해서는 극히 소수만 알고 있고, 그 앎조차도 불교국가 스리랑카의 분리를 조장하는 '염치없는 민족'이라는 정도일 뿐이다.

지구촌 불교 / 스리랑카의 타밀족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불교시사잡지 〈트라이시클〉지에 게재된 '전쟁터에 서 있는 불교'라는 기사는, 우리 스스로 힌두교도인 타밀족에게 막연한 '종교적 적대감'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타불이(自他不二)'를 되짚어 보게 한다.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스님들이 타밀족 반군에게 군사적 압력을 더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는 〈트라이시클〉의 보도 내용에는 타밀족에 대한 스리랑카 불교 교단의 입장에는, 내전 종결을 기원하는 명상 캠페인을 펴는 '온건 노선'도 있지만, 성전을 고집하는 '강경 노선'도 적잖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요구' 17년째 내전

폭탄테러 등 유혈투쟁에 6만여명 희생

불교교단 "비폭력" "성전" 강온파 갈려

지난 8월 7일 타밀족과의 유혈분쟁을 끝내고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안이 스리랑카 의회사상 처음 상정됐지만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이 일은 로이터나 AP와 같은 국제 통신사에서 연일 보도할 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17년간 6만2천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개헌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헌안에 대한 의회의 표결은 8월 8일 돌연 연기됐다. 개헌안은 8일 오후 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개헌안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는 개헌안 반대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강경파 스님들은 개헌안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일부 각료들마저 개헌안에 반대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라이시클〉지는 "스리랑카는 부처님 땅이고 선택된 사람만 사는 곳이라는 전설이 신할리즈족을 더욱 배타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신할리즈족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안 연립정부의 내각 선서식이 진행되는 곳에서 자신의 몸에 폭탄을 장착한 괴한의 폭탄테러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10월 17일), 타밀 반군이 해군기지인 트린코말리에 정박 중인 함정을 폭탄을 실은 소형 선박으로 공격해 양쪽에서 24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10월 24일). 또 타밀 반군 측의 소년병으로 활동하다 정부군에 체포돼 재활교육 중인 25명이 주민들에 맞아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10월 25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스리랑카 내전의 특징인 자살 폭탄테러와 소년병 문제가 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97년 국내 한 소장학자의 "스리랑카의 내분 해결을 위해선 평화를 지향하는 불교와 힌두교의 특성인 비폭력과 포용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야말로 스리랑카 스님과 불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天物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오가피 건강상담 : 02)446-4422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석씨향방 특별할인 세일!

〃석씨향방에서는 동안거 입제일 전까지 특별할인세일 (20%)을 합니다. 동안거 선방에서 정진하실 스님께 최고의 향을 공양하십시오. 기간 : 10.23 ~ 11.8까지〃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659-8148 공급자: 석씨향방

화승(畵僧)의 위대한 예술세계는 부처님의 도량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오랜 세월의 흐름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그 생명력을 이어 오고 있다.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수행방편으로 삼은 화승들은, 불화 그리는 것을 단순한 '화기(畵技)'로 생각하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행위로 여겼다.

대대로 화승(畵僧)의 맥을 이어온 마곡사에서 10월 31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근세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문성 보응 화상을 기리는 불모비가 세워진 것이다.

보응문성문도회는 99년 5월 보응당 문성대화상 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불모비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허길량)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응스님 불모비 건립은 잊혀져가는 화승들의 업적을 기리고, 불화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화승들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 널리 전하자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0월31일 마곡사 부도전에서 열린 보응스님 불모비 제막식에 모인 불자들은 잊혀져가는 화승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렸다. 〈공주=권형진 기자〉

보응스님 불모비 제막

"불교미술 계보연구 노둣돌"

남방화소로 이름난 마곡사 화승들

마곡사 경내 부도전에서 문도와 불자 등 1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보응당 문성 대화상 불모비 제막식'에는 보응당 문성스님의 두딸 김영희(72), 김태희(75)씨와 일섭스님의 딸 김옥진(73)씨도 참석했다.

20세기 불교 미술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보응 스님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화승 의겸 스님의 제자 금호 약효 스님의 맥을 이은 마곡사 출신 화승으로, 불화뿐만 아니라 단청과 불상조각 등에도 조예가 깊었던 대불모이다.

보응 스님은 전국 유명 사찰에 화적을 남겼다. 일부 유실되었지만 보은 법주사 후불탱화, 합천 해인사 칠성탱, 진주 호국사 탱화, 밀양 표충사 천수관음도, 예산 수덕사 후불탱화가 현재 남아있고, 고창 선운사 팔상탱화는 스님의 대표작으로 통한다.

이번 마곡사 보응스님 불모비 건립은 비단 마곡사 불모 계보 정리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국 불교 미술의 계보를 세우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날 제막식에서 마곡사 주지 진허 스님은 "보응당 문성 대화상은 후학들이 육신의 눈을 통해 마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불화로 법문을 설파해 놓았다"고 스님의 업적을 기렸다.



◇마곡사 대광보전 삼세불탱(1905년作). 보응스님과 화제 정연스님이 조성했다.

금호-보응-일섭-우일·석정
전통불화 온전히 되살렸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충남 공주 마곡사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서 충남 지역의 수사찰이다. 가지산문의 시조인 도의국사(道義國師)의 법을 이어 종풍을 크게 날렸던 보조 체징국사가 중창한 선종사찰이면서, 또한 걸출한 화승들을 배출해 화풍을 크게 날린 도량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옛부터 마곡사는 남방화소(南方畵所)로 인정받아, 북방화소(北方畵所)인 금강산 유점사, 경산화소(京山畵所)인 수락산 흥국사와 더불어 대대로 걸출한 화승을 배출해 왔다.

마곡사는 특히 1750년을 전후해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에서 활약한 화승 의겸(義謙)의 전통을 이어받은 금호 약효스님과 보응, 일섭, 우일·석정으로 이어진 화맥이 닿은 곳이다.

마곡사에 머물며 부처님의 환희 세계를 장엄했던 불모 계보가 최근 정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마곡사가 배출한 화승 가운데 한 사람인 보응당 문성스님의 불모비가 문도들에 의해 세워지는 과정에서 마곡사 불모 계보가 최초로 정리된 것이다.

조선후기 이후 마곡사의 화풍을 일으킨 화승은 바로 금호 약효스님이다. 보응스님의 스승인 금호스님은 화승이기 이전에 선지식으로서도 이름을 드날렸던 분이다. 금호스님은 마곡사 주지를 맡아 지내는 동안에도 경기도 봉녕사, 충북 법주사와 영국사, 충남 갑사와 향천사 등의 불화를 제작하며 1930년대까지 활약했다. 금호스님의 문하에는 당대 호서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화풍을 크게 날린 대불모 보응(普應)스님과 보응스님 다음으로 화풍을 날린 정연(定演)스님, 만총(万聰)스님, 성한(盛漢)스님이 있다. 이들 제자 가운데 보응스님의 계보는 보응당 문성대화상 기념사업회의 불모비 제막과정에서 밝혀졌지만, 나머지 세 스님의 계보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

근세 불교미술계에 큰 족적을 남긴 보응 문성스님(1867~1954)은 1877년 계룡산 갑사에서 출가해 1881년부터 마곡사에서 화승 금호스님의 문하에서 불화 수업을 받았다. 1890년부터 1950년까지 고창 선운사 팔상탱화, 밀양 표충사 천수관음도를 비롯해 보은 법주사, 합천 해인사 등 전국 유명 사찰에 걸출한 화적을 남겼다. 스님은 경율론 삼장에도 해박해 여러 권의 저서도 저술했다고 전해지나, 모두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다. 불모 일섭스님을 비롯, 영성스님, 신상균, 안병문, 홍곡 안중거사 등이 보응스님의 걸출한 제자들이다.

금용 일섭(1900~1975)스님은 금호, 보응으로 이어지는 마곡사 계통 호서(湖西) 불화의 맥과 선암사 쾌윤, 송광사 의겸 등으로 이어지는 호남 불화의 맥을 한몸에 이어 받은 화승이다. 이 스님의 제자 중에 우일스님과 석정스님이 있는데 우일스님(1908~1998)은 70년 동안 불보살 조성에 매진해 오다 지난 98년 입적했으며, 석정스님은 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불화 맥잇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정스님은 열네살 때 일섭스님으로부터 정식으로 불화를 사사받기 시작했는데, 10대에 이미 전국 각지의 대소사찰 불사에 참가해 수없이 많은 부처님을 모셨다. 석정스님은 전통적 색채인 석채를 재현한 '송광사 대웅전 후불탱화' 등 수많은 불화와 선화 작품을 선보였다. 현재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총재로 최근 범하스님(통도사성보박물관장) 등과 함께 〈한국의 불화〉시리즈를 완간하는 대불사를 회향했다.

이은자·권형진 기자(ejlee@buddhapia.com)



◇금호스님이 조성한 마곡사 은적암 신중탱.



◇우일스님이 조성한 갑사 신흥암 후불탱.

불모란?

불상 조성하고 부처님 그리는 사람

단청이나 불상 조성, 불화를 그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 사찰의 불사인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문화재기능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기능인은 351명. 불화와 단청을 아울러 화공으로 등록된 사람이 221명이고, 불상 조각을 하는 사람은 130명이다.

단청, 불화, 불상 등 불상을 조성하거나 부처님을 그리는 사람을 높여서 '불모'(佛母)라고 부른다. 불모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을 낳은 어머니라는 뜻에서 나온 만큼 아무에게나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예는 물론이고 연륜과 활동력까지 겸비했을 때 비로소 '불모'라 한다.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엔 인간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인 만봉스님과 석정 스님을 비롯해 조귀한(탱화) 씨 등 20여명 정도가 불모라는 존칭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청, 불화, 불상에 모두 조예가 깊은 사람을 '금어'(金魚)로 받든다. 금호스님을 비롯하여 이번에 불모비가 세워진 보응 스님과 그 제자 일섭 스님, 우일 스님 등은 이 세 가지에 모두 능해 '금어'라 불린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느릅수제비



부종·암종에 효능…궤양에도 좋아

'죽음이 아니면 견성'이라는 금강과 같은 굳은 신념으로 용맹정진을 했던 구산 스님. 스님은 토굴 수행을 할 때 생쌀과 솔잎 그리고 콩가루를 주식으로 하루 한끼만을 드셨다고 한다. 이런 섭생으로 인해 스님은 해가 바뀌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함양 안의의 한 선비가 구산 스님이 수행하는 토굴에 들렀다가 스님의 치열한 수행 모습에 매료돼 3년 동안이나 스님 곁에서 아침저녁으로 맑은 물을 떠다 드리며 시봉했다고 한다.

구산 스님은 '시방제응 팔면영룡(十方齊應 八面玲瓏)'이란 게송을 얻고 토굴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동안 수행 뒷바라지를 한 선비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러자 선비는 함양 안의에 오실 일이 생기면 자기 집에 들러 들아가신 선친을 위한 천도 설법을 해 주시기를 정중히 청했다.

훗날 선비의 집을 잠깐 들렀는데, 그날이 마침 그 선비의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 날이었다. 구산 스님이 지성으로 염불을 하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고인의 몸에는 암종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묘지를 파고든 나무뿌리가 암덩이를 뚫고 지나간 게 아닌가! 다른 부위는 아직 썩지 않았지만, 종양은 나무뿌리로 인해 녹고 있었다. 바로 그 뿌리가 느릅나무뿌리였다. 선비도 위암 초기 증세를 보여 속이 불편했는데, 구산 스님의 권유로 그 뿌리를 먹고 90세가 넘은 현재도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물론 구산 스님도 그때부터 느릅나무 뿌리를 술일과 함께 늘 생식하게 되었다.

■ 약선식 연구가. 〈신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느릅(유근피)가루 10g, 생쑥(쑥가루) 10g, 통밀가루 1컵, 미역, 다시마, 표고버섯, 감자, 간장

요리법 1.미역, 다시마,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다.

2.밀가루를 반으로 갈라 각기 느릅가루와 쑥가루를 섞어 소금간을 해서 반죽, 먹기 좋은 크기로 떼어낸다. (이때 유근피 가루는 밀가루의 15%~30% 정도 섞어야 약효가 있다.)

3.①의 물에 감자, 표고버섯, 미역, 다시마를 넣고 수제비 국물을 충분히 우려낸다.

4.준비한 수제비 반죽을 끓는 국물에 조금씩 넣은 다음, 간장으로 간을 해서 담는다.

효능 · 뿌리의 껍질을 유근피라하며, 각종 종창과 소화기 계통에 좋다. 밀가루 음식을 기피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음식이다.

· 각종 부종과 암종에 효능이 있으며, 각종 궤양에 특효다.

다시 푸는 경서

정혜결사문(定慧結社文) ⑥

如是虛妄自他境界 察其根出
여시허망자타경계 찰기근출
不隨傾動 全身定質 守護心性
불수경동 전신정질 수호심성
增長觀照 寂爾有歸 活然無間
증장관조 적이유귀 활연무간
當是時也 愛惡自然淡薄
당시시야 애오자연담박
悲智自然增明 罪業自然斷除
비지자연증명 죄업자연단제
功行自然增進 煩惱盡時
공행자연증진 번뇌진시
生死卽絶 生滅滅已
생사즉절 생멸멸이
寂照現前 應用無窮 度有緣衆生
적조현전 응용무궁 도유연중생
是爲了事人分上 無漸次中漸次
시위요사인분상 무점차중점차
無功用中功用也
무공용중공용야

이렇듯 허망한 자타(自他)의 경계, 그 근원을 살펴서 치우치게 움직이지 않고 몸을 안정하여 심성(心城)을 잘 지키면서 관조(觀照)해 나간다면 결국 고요한 데로 돌아가서 우주의 진리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때 사랑하고 미워함도 담박해지고, 자비와 지혜가 더욱 밝아지고, 죄없이 사라지고, 공행(功行:공덕이 되는 수행)이 자연히 불어나서 번뇌가 다하게 되면 생사가 곧 끊어지고 생멸도 사라져서 고요함과 밝은 지혜만이 앞에 나타나서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어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의 점차(漸次:순서를 밟아나감)가 없는 가운데 점차이며, 공용(功用:언행 일체를 말함)이 없는 가운데 공용이니라."

問曰汝今解說者 先須信解自身
문왈여금해설자 선수신해자신
性淨妙心 方能依性修禪
성정묘심 방능의성수선
是乃從上已來 自修佛心
시내종상이래 자수불심
自成佛道之要術也
자성불도지요술야
何故凡見修禪之士 不發神通智慧乎
하고범견수선지사 불발신통지혜호
若無通力可現 則何名如實修行者也
약무통력가현 즉하명여실수행자야

물었다.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먼저 자신의 성품이 청정하고 묘한 마음임을 알고는 그 성품을 의지해서 참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예로부터 스스로 불심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요긴한 방법인데, 어째서 참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통지혜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만약 신통력을 나타낼 수 없다면 어찌 참다운 수행자라 하겠는가."

予笑曰神通智慧 隨自正信佛心法力
여소왈신통지혜 수자정신불심법력
加行用功而得之 比如磨鏡
가행용공이득지 비여마경
垢漸盡而漸明 明現則影像
구점진이점명 명현즉영상
千差若也信解未正 功用未深
천차약야신해미정 공용미심
昏昏坐睡
혼혼좌수
以守默爲禪則何有神通自發也
이수묵위선즉하유신통자발야
先德曰汝等 但向自己性海
선덕왈여등 단향자기성해
如實而修 不要三明六通 何以故
여실이수 불요삼명육통 하이고
此是聖末邊事
차시성말변사

나는 웃으며 말했다. "신통지혜는 자기가 불심과 법력을 바로 믿고 실천하는 공에 따라 얻는다. 비유하자면 거울을 닦을 때, 때가 차츰 벗겨지면서 밝음이 점점 드러나 그 밝음 속에 천 가지 물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만약 믿음과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공을 들이는 것이 깊지 못하여 멍청하게 앉아 졸기만 하고 침묵하는 것을 선(禪)으로 삼는다면 어찌 신통이 일어나겠는가. 선덕께서 '너희들은 단지 자기 성품의 바다를 향해 수행해 나갈지언정 삼명과 육통을 바라지 말라. 이런 것은 성인의 일 중에 가장 하찮은 일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如今且要識心達本 但得其本
여금차요식심달본 단득기본
莫愁其末
막수기말

그러니 당장 마음을 알고 근본을 통달하여 단지 그 근본을 얻는 일이 중요하지 하찮은 일에 근심하지 말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자기가 불심과 법력 바로 믿고 실천해야만 신통지혜 얻는다

큰 스님과의 대화

이두스님

청주 관음사 주지

지난 10월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신 이두스님을 주석하고 계신 청주 관음사에서 만났다. 폐사지였던 관음사는 스님께서 수년간의 걸쳐 불사에 헌신하신 결과 청주의 포교중심도량으로서의 사격(寺格)이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이두스님은 원로가 앞장서 "종단과 후학들이 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덕(德)과 행(行)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원로의 소임이 막중함을 강조하셨다. 병을 앓고 나신후 회복기에 들어선 스님께서는 최근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하고 계시다고 주위에서 귀띔한다. 그래서인지 본래 원만하고 부드러운 얼굴이 더욱더 해맑게 보였다.

"마음 무한토록 넓게 쓰세요"



- 1929년 강원도 김화 生
- 51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 56년 동화사 강원 대교과 졸업
- 59년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 71년 갑사 주지
- 78년 법주사 주지
- 91년 방글라데시 · 치타공 팔리대 철학박사
- 2000년 8월 금오문도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 2000년 10월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재 청주 관음사에 주석
- 저서에 〈금강경 공성(空性)의 연구〉 〈금강경 · 원각경 강술〉 〈운수방담〉 〈산속에서 산을 보는 법〉 등.

—불교는 세계최고의 역사학자, 과학자들까지 매료될 정도로 매우 과학적이고 심오한 종교임에도 오히려 일부 불자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기보다는 어떤 신이한 일에 의존해 만사형통을 바라고, 내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밖으로 허상을 좇기 일쑤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우담바라 파문'이 이를 대변하지요.

어지럽고 시시비비가 얽혀있는 현실에 파사현정의 장군죽비로 경책을 해야할 불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지요.

▲아직까지도 일반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현실생활과 유리된 종교인 것처럼 되어 있고 기도나 하고 영험이나 생각하며 이론적 인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교처럼 과학적이고 생활적이며 합리적인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불교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억불숭유정책의 조선왕조 5백년동안 불교는 역사참여의 의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은둔자처럼 지내왔습니다. 결국 역사와 현장에서 소외된 불교는 몰락의 일로에서 사람들의 눈에 비사회적 종교로 격하된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지요.

그러나 가장 현실참여적이고 사회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잡고 우리의 역사가 불교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포교의 일선에 선 불교포교사나 신도들 각자의 자각과 노력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자들이 부처님가르침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해야 일반 사람들의 불교인식도 변합니다. 무조건 영험이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고 복을 내려주는 분이 부처님이 아닙니다.

—요즘 금감원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부정부패로 서민들은 열심히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는 도리어 심각해지고 사람들도 양심과 도덕을 지키기보다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을 많이 벌어 잘 살아봐야 겠다는 풍조가 만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다종교사회이고 따라서 종교인들이 많은데 종교인들이 사표가 되어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름장치'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리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인과를 믿는 양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비구가 돌 이상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비구에게 법문하는 기회가 적어지는 것을 염려하고 또 되도록 많은 사람을 제도하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법문함으로써 중생들에게 법문 듣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어 진리를 널리 펴라는 것이지요. 따뜻하고 맑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불자들의 사명이며 책임이기도 합니다.

불자들도 그냥 절에 다니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명확히 알고 내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슨 수단을 쓰든, 무슨 잘못을 저지르든 돈을 많이 모아 권력을 잡아 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빼앗긴 사람보다 뺏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인과의 도리는 엄격합니다. 남의 것을 거저 얻거나 빼앗은 것은 주기 싫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주어야 하며 남에게 준 것이나 빼앗긴 것은 받지 않으려 해도 받게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세인과의 원리입니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은 자명한 이치예요.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삶 하루 하루를 허투루 살면 안됩니다. 근본 마음자리를 알고자 정진하며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노력한만큼 얻는것이 마음공부예요.

—불자로서 바른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삼세 인과를 확신하고 연기법을 믿고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때 일화를 얘기해 볼까요. 한 친구가 한사람을 천거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친구가 소개한 사람의 얼굴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생각이 얼마나 건전하고 성실한 가에 따라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야지, 다만 얼굴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쓰지 않기로 한 자네의 태도가 경솔하지 않은가"라고 나무랐어요. 링컨은 "자고로 마흔이 넘은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하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이나 그사람 생활의 모든 것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이네"링컨의 이 말처럼 중년이 넘은 사람은 생활의 갈래대로 얼굴모습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한평생 교육에 몸바친 사람이나 수행자의 얼굴, 정치가의 얼굴과 백수건달로 지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모두 다를 것은 자명하지요. 아무리 분장을 하고 표정을 꾸며도 그 차이는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없어지는게 아니라 그대로 마음안에 잠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었더라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그의 얼굴은 어느덧 악하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속에 깃들어 있다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 업의 실체예요. 운명을 지배한다는 힘을 일컬어 업과, 업보라고 합니다. 업과와 업보는 결코 한번 죽는 것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업은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방향이나 형식을 바꾸어 새로운 업을 또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상태를 윤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업보

갈월사 영탑(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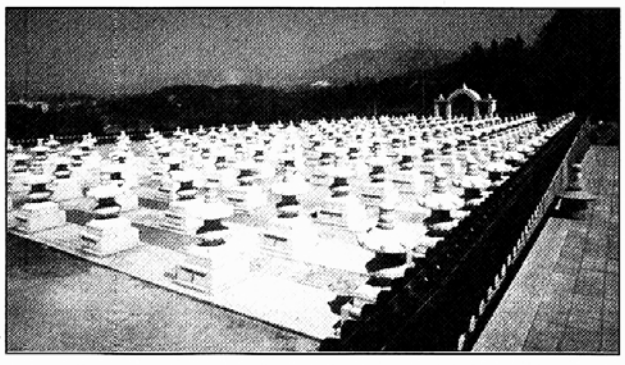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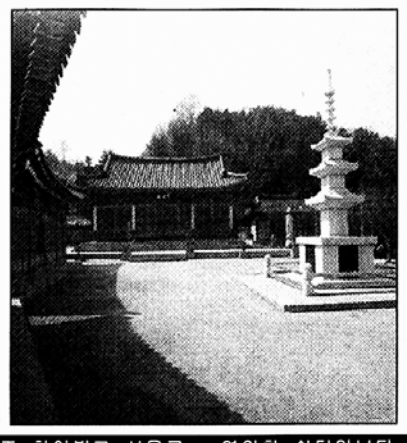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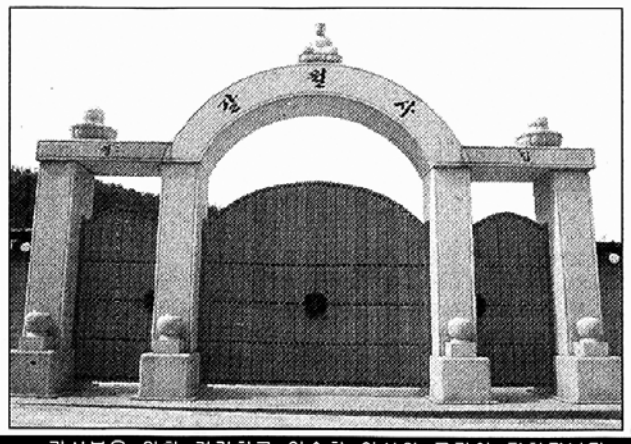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가 아무리 크다고 하여도 몇 세를 거쳐 공덕을 쌓으면 차츰 그 업보가 엷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업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찮게 한 작은 과실도 업이 되어 우주간에 떠돌면서 사람의 여러 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듯 업이 쉬지않고 계속 되는 것을 업업상인(業業相引)이라고 해요. 즉 하나의 행동이 다른 행동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자업자득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까닭은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진실한 언행, 선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보아 이제 우리 국민의 지식수준과 사는 수준은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게 높아졌고 모든 것을 보는 시각도 향상되었지만 너그러운 마음과 포용성있는 품성으로 사람들 사이의 틈을 메꾸어주는 덕(德)은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식은 국민 모두가 갖출 단름 갖추었는데 다 자기는 제외시키고 남만을 탓하지요. 또 남을 용서하는데도 더 인색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과 지식수준은 정말 놀랄만치 높아졌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논리가 정연하고 비판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슬픈 일은 이들이 남에 대해선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보지 못하다는데 있어요. 설사 안다 해도 대부분 남의 탓으로 돌리지요.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은 자기 잘못을 남앞에서 시인할 수 있고 또 남의 잘못은 용서해주는 심덕(心德)이 각자에게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혼란으로 봐야 할 정도로 갈등과 이기심, 불화가 많은데 이 또한 자기 잘못은 접어두고 남의 잘못만을 규탄하면서

더불어 사는 첩경은 자비로움

불교는 가장 과학-합리적 종교

자신의 목적과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혼탁스럽기에 이러한 사회를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데 있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만큼 좋은 덕목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란 사회속에서 남과 더불어 어울리며 살지 않고서는 존재의의가 없지요.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섬세함과 부드러움, 자비심 등이 이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한다는 전망이지요. 불교에서는 통칭 여성불자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데 의미가 각별한 칭호같습니다.

▲여성불자들을 통칭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부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보살의 위상과 실체를 잘 모르고 있는 듯 해요.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으레 그려려니 하며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보살이란 호칭은 그 본뜻과는 달리 어느덧 불교의 여성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보살은 스스로의 진리체득을 위한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타인을 위해 자기 헌신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예요. 즉 남녀의 구분이 아니라 생활의 가치에 구분을 둔 용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부처님께서도 보살은 각유정(覺有情)이며, 대심중생(大心衆生)이라 하시며 불도에는 대심중생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보살행의 원만성취 없이는 성불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삶에 대한 반성없이 삼독심을 그대로 가슴에 품은 채 보살이라 불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살님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돌아보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보살님들만 제 위치에서 '보살'의 이름에 걸맞는 위상을 지니고자 노력해도 우리나라는 대번에 달라지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보살은 불교를 이끌고 나가며 부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공덕을 중생에게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보살적 인격이 많았던 시대에는 불교가 중흥했고 이념적으로 그 시대를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 스스로 불교의 도덕적 가치를 절감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보살없는 적막한 시대에는 불교내에서도 시비와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민중들은 불교에 실망하고 식상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불교의 진리 즉 도를 깨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는 노력 또한 부지런히 하는 수행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실로 보살로 불리워질 수 있는 겁니다. 보살은 불교적 인간의 행위요, 불교적 인간이 보살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처럼 유일신을 모시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형성의 종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자기에게 집착된 미망을 벗어나고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깨달음으로써 열반이라는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불가피한 성불의 과정입니다. 성실한 보살의 생활없이 성불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 할 수 있지요. 끝없는 노력으로써 인간의 생활에 진선미를 다하며 인간을 창조하려는 길이 보살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자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과제이며 지향목표라 생각하세요. 자비의 바탕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중생이 관념만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는 없어요. 자비는 우리의 망상과 번뇌, 잡념이 마음에서 사라진 경지에 이른 사람이 생명력 넘치는 훈기를 드러낼 때 비로소 자비를 베풀수 있으니 교만하거나 이기심에서는 자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자비입니다.

성불을 하자면 보살도의 수행이 전제조건이 돼야 합니다. 보살도 없는 성불은 원인 없는 결과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중생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천가지 만가지 생각을 굴리고 끊임없는 상념을 좇아 살아가기 바쁩니다.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항시 생각이 흘러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찰나찰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지요. 정처없이 흘러가는 그 마음이 모든 희로애락 길흉화복을 낳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은 모두 집착과 망상에서 나온 병입니다. 그러니

> ❝ 자기 잘못은 용서 남의 허물은 규탄 결국 갈등과 불화 ❞

마음을 다스리고 나면 걱정할 일도, 미워할 일도, 싸울 일도 없어져요. 그러한 생각을 완전히 쉬어버리면 그 자리에 공공적적하고 불생불멸한 본래 마음자리가 드러납니다.

한 겨울이면 얼음이 꽁꽁 업니다. 그 언 것을 사람에게 집어던질 경우 사람이 다칠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얼음이, 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잃은 것은 아니지요. 봄이 와서 기온이 올라가면 그 얼음은 어김없이 물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나 망상도 불심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모아 정진하여 번뇌업장을 해소하면 일체의 마음은 다시 불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넓게 쓰세요. 달마대사의 말에 "마음 마음 마음이여, 너그러울땐 법계를 덮지만 좁아지면 바늘끝도 용납않네" 라고 했습니다. 불자들의 신행생활이란 무한토록 마음을 잘 쓰는 용심(用心)의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것이나 중생이나 마구니가 되는 것은 다 마음씀에 달려있는 것이니 마음을 잘 쓰는 지혜를 배워 실천에 옮기고 정진 또 정진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담=이경숙 부장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산스님

산에 올라 보면 산내음이 있다.

풀향기 같지만 풀향기도 아니요, 솔향기를 닮았지만 솔향기도 아닌 독특한 내음이다.

산내음은 어느 하나의 냄새가 아니다. 풀과 나무, 바람과 구름의 냄새다. 이 모두가 대자연의 품속에서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산내음이 된다. 사람에게도 내음이 있다면 어떨까.

가을산 깊어가는 계절속에서 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단풍이 아름답다. 붉어서 아름다움이 아니라 푸르고 누렇고 주홍색을 품고 있어 더욱 아름답다. 우리들 마음에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일까.

늘푸른 산내음과 붉은 단풍 색깔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지닌 그런 스님이 있다. 어느 봄날, 홍류동 계곡 벚꽃이 유난히 흐드러지게 피어 눈꽃잎이 휘날리던 날 밤에 평소 가까운 스님 몇몇이 홍류동 계곡 고운 최치원 선생이 노닐었다는 정자에 모였다. 달빛조차 고왔던 밤, 주체할 수 없는 흥에 겨워 몇 잔의 곡차를 주고받았을 때 곱사춤을 추며 유난히 좋아했던 스님이 있었다. 지산 스님이다.

풍류 좋아하고 재주 많은 스님이었다. 무엇보다도 일복 많아 괴로운 스님, 그러나 자신의 수행길에서 한치의 방일도 허용치 않는 굳은 심지를 지닌 스님이었다. 홍류동 계곡에서

방일 허용않는 굳은심지

불의보면 동분서주 대책

의 밤 벚꽃놀이를 즐긴 며칠 후 지산 스님은 읽어보라며 나에게 책 한 권을 가져왔었다. 밑줄까지 그어놓은 책의 제목 또한 재미있다. '물고기는 물과 싸우지 않고 주객은 술과 싸우지 않는다' 아마도 그 날 많이 취해 버린 나에게 주는 무언의 경책이었으리라.

체구는 작아도 능히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배포와 능력을 지니고 오늘도 지리산 실상사에서 천일기도와 함께 원주소임을 살고 있을 스님. 오늘처럼 가을햇살 따가운 날 불현듯 그 스님의 차 한잔이 그립고 그의 산내음이 맡고싶고 그의 가슴속에서 붉게 물들어 갈 '중물'의 색깔이 보고 싶어지는건 왜 그럴까?

지난 94년 조계종단이 삼선개헌 등으로 매우 시끄러울 때 산중의 학인들은 작금의 종단사태에 우려를 금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학업에만 전념하고 외면할 것인가, 적극 동참하여 개혁의 일익을 담당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때 홀연히 일어나 "지금 종단개혁의 물꼬를 틀지 못한다면 차후 종단개혁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며 대중을 이끌었다. 아수라장의 총무원 건물앞에서 핸드마이크를 손에 쥐고 사자후를 토하며 학인들을 지휘 독려하던 모습에 평소 말이 없고 책만 보는 스님인줄 알았던 나는 저윽이 당황했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스님, 지산스님은 그런 스님이었다. 어느 조직체든 유독 일거리가 많은 스님이 있다. 지산스님이 그랬다. 종단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야산 골프장 건설 때문에 또 한번의 홍역을 치러야 했다. 스님은 그때까지 활동하던 전승련 소임을 그만두고 가야산 골프장건립 반대 대책위를 맡아 불철주야 동분서주했다. 고생이란 고생은 아마도 그때 한꺼번에 했을 것이다. 무려 한달 보름여만에 골프장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이끌어 냈으며 몇 년을 끈 송사 끝에 결국에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아마도 그때 지산스님의 노고가 없었다면 골프장건설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지산스님은 강원생활 내내 일에 쫓겨 다녔지만 짬을 내어 마을의 꼬마들을 무척이나 챙겼다. 해인사 신부락의 꼬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이 '지산시님'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꼬마들과 어울려 산중암자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은 영락없는 천진불을 닮았다. 바쁜 강원생활 중에서도 자신의 수행을 방일하지 않았던 스님, 강원 교재인 수다라며 다로경권, 신행지 등의 편집일을 도와 대중스님들을 편안케 하였던 스님. 왜 그 스님에게만 유독 산내



음이 나는 걸까? 왜 그 스님에게는 단풍보다 더 고운 붉은색의 가슴이 연상되어지는 걸까?

지금 지리산에는 지리산댐 건설반대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 한창이라던데 스님의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워낙 심지굵은 스님이라 별 걱정은 없다. 몇달전 실상사에 들러 차한잔 마시고 돌아서는 내게 기도기간중 산문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여기까지 밖에 배웅을 못해 미안하다며, 곱게 접은 인삼꽃차 한봉지를 선물로 주던 그를 남기고 돌아서던 길에 그가 강원시절에 지었던 시 한수가 생각났다.

장경각 법당/법보전은/10여명이 들어서면/빼곡하게 가득찬다/조그마한 까닭에/관람객들의 소음이/여간 뒷통수를/때리는게 아니다./소음?/"엄마, 저기 앉은/부처님눈은 졸고 있어"/"이녀석, 스님들 기도하는데/그런 말 하면 못써"/"이잉~, 졸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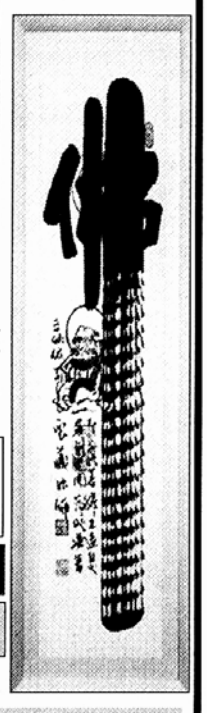
지산 스님의 산내음을 말을 수 있을것 같은 시이기에 지금도 소중히 지니고 다닌다.

그러다 보면 행여 나에게도 산냄새가 배지 않으려나…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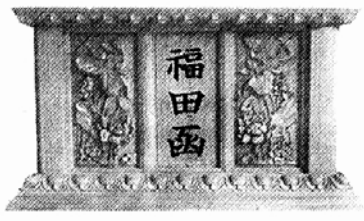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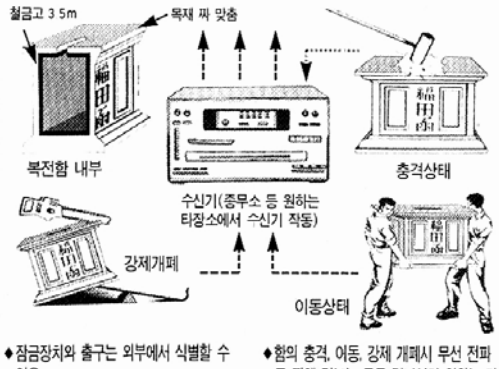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 전 함
도난방지 장치 ◆특허 2000-0011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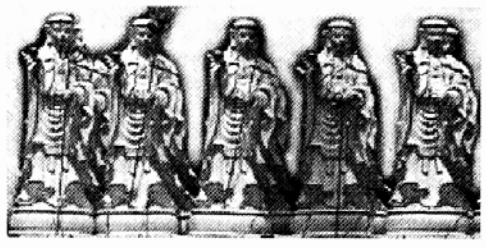




◆잠금장치와 출구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음.
◆특수 전자시스템이 금고 내부에 설치되어, 지정된 원격작동 S/W전파와 개폐가 절대 불가함.
◆옥외용과 현지 사정에 따라 모델, 크기, 소재, 색상 등 주문생산이 가능함.
◆함의 충격, 이동, 강제 개폐시 무선 전파로 자체 경보는 물론 경비실및 원하는 타장소에 침입사실을 알려 줌.
◆본 함의 전원플러그를 빼거나 절단하면 경보는 계속되고 개폐기능은 마비됨.
본 System에 대형 사이렌을 연결 중요시 설물에 방범용으로도 가능함.
※ 가격은 70만원부터 있습니다.
서원기전 ▪ 문의:043-647-2378, 011-467-1472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물방울의 바다향합 만큼 필연인-
천상천하유아독존
(부분 속 전체, 구합 속 충분)
(나-고것 → 너-너 → 나-나)
머리 가슴 지나 배 속에 담아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 진정한 成人(앎)
참나 꽃 피우는 방편 꽃
우담바라
(하나한)
안은 엷어지나 밖이 두터워지는 비움 넘고
걸러들지 않으나 함께 못 하는 바라봄 넘고
틈새 하늘 뿐 구름 못 여는 이뭐꼬 넘고
얼굴 모두 아닌 숨굴 국한하는 호흡 넘고
핵심인 의식보다 동작 중시하는 기공 넘고
얼의 밥 아닌 마음 약 자처하는 명상 넘고
근원합일 제외 인과처방 자족하는 심리치료 넘고
모든 인간 여의주 보유 간파하는 의식개발 넘고
결국 자신과의 대화일 수 밖에 없는 채널링 넘어
똥오줌보다 문제인 마음얼의식 혼동하는 일체유심조 관통
【과 정】
• 목헌덩 여의주 꺼내 손질
• 생각고치 안밖 자유 왕래
• 지푸라기 속 무한성 확보
• 모두가 나인 세계에 진입
• 항상 가득 마음 마음대로
【특 징】
• 예고 비움 죽임 아닌 확장
• 기존 혁심 웅혜 자원 혁신
• 숨굴 포함 얼굴 모두 발굴
• 심각 아닌 진진 놀이 진행
• 추가 과정 없이 한판 전수
【체험 소감】
"석가의 無외 예수의 有 종합 과연 새천년 비전" - 박성인(공무원)
"食→筑和, 호흡→숨, 見→觀 실을 通로 노지 소원 성취" 김영철(교수)
"아픔은 곧 我爲, 참나로의 근원적 예방 치유 길" - 이정숙(의사)
"원함 아닌 비람직함 짓고 지움 미술 아닌 미술" - 김인식(회사원)
"죽어있는 것 흐르게 살아있는 것 펄덕이게 언어도 단" - 박인지(주부)
"이로서 최대 거짓 - 나는 당신을 사랑 - 이 침묵 되었네" - 김대성(학생)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517-1 031)885-1011/016)206-1001
매월 셋째 월15:00 ~ 토 15:00(참가비:55만원) 농협 111-12-336000 윤식배

지장보살님 조성 안내



◈ 지장보살님을 조성하는 이유
불사하시면서 어려운 스님을 위해서 지장보살님을 조성해 드립니다. 불사를 하시고 싶으셔도 여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님들을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사에 맞추어 조성해드리며 뜻이 있으신 스님 및 재가불자님의 연락 바랍니다.

◈ 금주산 약수물로 만든 약수 된장
병원에서 시한부 삶의 선고를 받은 한 보살이 금용사에 기도를 드리러 왔다. 기도드리는 중에 부처님께서 소금 10가마니, 메주10가마니, 큰통 10개를 주시면서 만인들에게 먹이도록 말씀하시면서 가셨다.
그후 병은 모두 다 낳았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된장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택배가능)

금 용 사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산25-8
TEL:031)533-4405 FAX:031)532-3444



◇백순실 作 '동다송 0034'.

동다송 – 생성과 명상

백순실 개인전…8일부터 인사동 학고재

화가 백순실(49)은 동다송(東茶頌)이라는 제목의 연작으로 차의 향기에 담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 가는 작가다. 그가 4년만에 개인전을 갖는다. 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동다송-생성과 명상'. 100호 크기의 대작 10점을 비롯해 최근작 소품 22점 등 모두 32점을 출품한다.

백씨가 동다송이라는 주제로 십 수년 동안 작품을 그려온 것은 바로 차와의 인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차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백씨는, 일지암 주지 여연 스님과의 만남으로 다도가 생활이 되었고 곧 그림이 되었다.

동다송 하나에 매달리기 시작한 지 20여 년. 그 동안 그의 동다송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처음에는 의도적인 선들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차 잎이나 차밭의 풍경 등을 자연추상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는 안으로 스며든다고 할까, 내면의 성찰을 표현하는 심상적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기호화되고 그러면서 붓질도 더 힘차고 경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더 단순하게 그리고 싶다는 욕심이 또 생겨납니다."

단순화할수록 깊어 가는 내면을 반영하듯 이번 전시회 출품작들은 흰색, 청색, 적색, 갈색 등 4가지 색깔만으로 작업한 것들이다. 흑갈색의 차분한 바탕 위에 차 잎과 꽃, 뿌리를 상징하는 생성의 이미지들이 크고 작은 선들로 생동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02)739-4937.

권형진 기자(jnny@buddhapia.com)

다도시연…시낭송회…음악회…전시…체험현장

문화香 그윽한 만추의 산사

비취빛 하늘은 깊어만 가고, 땅 위에 루리박고 사는 초목의 빛깔도 궁극으로 짙어가는 때다.

가을 빛 찬란한 사찰에서 문화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이들 문화행사는 단순한 음악회나 전시회 등 초창기의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다도시연과 시낭송회, 전시와 체험현장까지 보다 다채로운 방식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오는 11일 한반도 땅 끝에 위치한 천년 고찰 미황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작은 음악회'도 지역민과 불자들이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꾸며진다.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이라는 부제를 달고 오후 5~11시까지 열리는 이 음악회는 가수 한치영씨의 노래공연을 비롯해 시인 박남준씨의 시낭송, 섹스폰 연주가 김세화씨의 연주, 소리꾼 정기열씨의 판소리, 전남에 고생들의 가야금 병창 등 해남지역 출신과 지역 문화인, 미황사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간의 따뜻한 정이 넘치는 문화행사로 절쳐질 예정이다. (061) 533-3521

이에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남양주 백천사에서도 '음악이 있는 가을 시낭송회'가 열쳐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는 조각가 오채현씨의 석불 전시와 시인 해월스님(동화사 강주)의 시집 출판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는데, 가수 임지훈씨와 진나영씨의 공연, 일본인 마사야씨의 축하 시낭송으로 한껏 분위기를 달구었다.

사찰의 문화행사는 지난 10월 한달 동안만도 수차례 열렸다. 제5회 분황사 원효예술제가 10월 9일 1천여명의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분황사 모전석탑 일



◇사찰 문화행사가 양적·질적면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며 정착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열린 북한산 심곡암 문화축제 현장.

특설무대에서 열렸으며, 10월 21일 북한산 심곡암 단풍문화 축제, 22일에는 강화 전등사 제1회 한·중·일 차 문화교류 및 백차 시음회가 열렸다. 강남 봉은사는 아생회의 기간을 전후해 10월 17~21일까지 경내에서 참선, 다도, 발우공양 등 한국불교 체험 행사를 전개했으며, 창건 90주년을 맞은 조계사도 10월 21~29일 경내와 인근지역에서 합창단 연주회, 한마음체육대회,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또 경기도 남양주 봉인사 한길정진원은 10월 28일 수련원인 자광전 개원 1주년을 맞아 국악과 가곡, 클래식음악이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가졌다.

이처럼 산사와 도심 포교당을 중심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적 향취 넘치는 사찰 만들기가 점차 질적 양적인 면에서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만족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는 사찰이 문만 열고 찾아와 주기를 기다렸다면, 이제는 사찰 밖으로 눈을 돌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민을 직접 찾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사찰과 지자체의 연계를 통해 정례화 된 문화프로그램도 모색해, 보다 적극적인 문화포교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은지 기자(ejlee@buddhapia.com)

문화소식

보문사 합창단 日공연

보문사 합창단이 일본 불교음악계와 교류를 위해 11~14일 일본을 방문한다.

이번 교류는 일본 규슈 후쿠오카현 소재 원명사가 '불교합창단 고로상가 25주년 음악회'에 보문사 합창단을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보문사 합창단은 이이즈카시의 코스모스 코몬홀에서 한국불교음악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방문에 이어 보문사 합창단은 오는 12월 5~9일에는 일본불교문화진흥협회 주최 '자선음악회'와 기후현 성덕대학에서 열리는 '성도절 기념음악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통일서예 대상작 이순단씨의 '한북강남'.

이순단씨 대통령상 수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7개 종단이 동참, 후원하는 제4회 대한민국통일서예대전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한문예서 '한북강남(寒北江南)'을 출품한 이순단씨가 통일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대전부터 국민화합과 평화통일 염원에 대한 대회 취지를 인정받아 서예계 최초로 대통령상이 수여됐다.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신어탑씨(한글부문)가 선정되었다. 한편 수상작품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2월 12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열린다.

음반 '찻잔에 스미는 사계'

한국창작음악연구회가 '다악(茶樂)' 음반 제4집 '찻잔에 스미는 사계(四季)'를 내 놓았다. 우리차와 어울리는 국악창작 실내악곡 모음인 다악시리즈는, 차를 마시며 즐겨들을 수 있는 창작곡 모음집으로 이번 앨범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 느끼는 차의 정취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02)2272-2152

사이버 문화

혜안스님의 서각전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 서각. 나무나 뜰 등에 문자를 새긴다는 뜻이다. 서각은 경전의 판본(板本)을 중심으로 하여 사찰과 고궁의 현판,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주련, 비석 및 각종 공예품 등에서 볼 수 있다. 최초의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해 인사 팔만대장경 등 불교와 서각은 오랜 옛날부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서각이 혜안스님의 불교서각전(http://www.heaan.co.kr)은 서각의 역사에서부터 제작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난 1990년부터 각종 그룹전과 협회전 등에서 서각 작품을 선보여 온 스님이 직접 꾸며 나가고 있는 홈페이지다.

서각 배움터에는 서각을 하기 좋은 나무 고르는 법에서부터 나무 보관법, 착색법 등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각 역사·제작과정 소개

스님의 작품을 모아놓은 서각 갤러리에는 〈반야심경〉〈법화경〉 등 경전 작품뿐 아니라 '해를 지고 가는 아이들'처럼 그림을 새겨 넣은 액자형 작품과 병풍, 청자형 목기 등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이 사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서각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불교 역사와 교리 전반에 걸친 스님의 친절한 설명도 곁들여 있다는 점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대영 박물관 한국실 개관

화엄경변상도 등 250여점 전시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로 불리는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한국실이 생긴다.

8일 문을 여는 한국유물 독립전시관은 구 영국 도서관의 서고가 있던 에드워드 7세관 3층에 120평 규모로 들어서며,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250여 점의 유물을 전시한다.

특히 눈에 띄는 유물은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유물 3200여 점 가운데 국보급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화엄경변상도(華嚴經變相圖)와 청자진사당초문완(靑瓷辰砂唐草紋盌), 조선시대 나전국화당초문경함(螺鈿菊花唐草紋經函), 백자 달항아리 등이다. 우리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주먹도끼와 빗살무늬토기, 삼국시대 석조여래좌상 등 20여 점을 이곳 대영박물관에 2년간 빌려준다.

이번 한국실 개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



◇대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화엄경변상도.

하고 있는 세계 3대 박물관 내 한국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98년 문을 연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 결실이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의 동양관인 기메박물관에 한국실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해외 박물관 가운데 한국실이나 전시 코너가 마련돼 있는 곳은 11월 현재 17개국 38개 박물관에 이른다.

한편 대영박물관은 한국실 개관을 기념해 11일을 '한국의 날'로 정하고 전통국악공연과 한국고전축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Maha Mall.co.kr

주문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인터넷으로 마하몰에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있습니다.
클릭! 클릭! http://www.mahamall.co.kr

108나한단주



- 신복승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승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아침 생식



상품소개
각종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않기 위해 냉동건조 방식으로 건조한 아침생식은출장이 잦은 분,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학생, 날씬한 몸매와 건강한 피부를원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잡이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

- 용량 : 40g × 30포 가격 : 66,000원

설악 동충하초 과립차



상품소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의 고장인 설악골에서 재배한 누에동충하초를 우리 몸에 좋은 당귀, 천궁, 감초엑기스를 적절히 배합하여 손쉽게 즐길수 있도록 만든 우리의 건강차 입니다

- 용량 : 7g × 70포 가격 : 16,500원

야생참 인진쑥 액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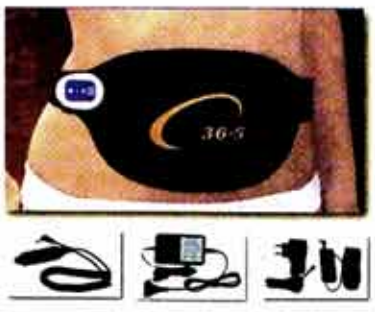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읍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흡痺고)을 여러 차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지각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최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상품 효능/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당뇨병 7. 신경통

- 내용량 : 80g ×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양산
- 가 격 : 175,000원(2개월분)

조온열 건강벨트



상품설명
조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피로, 취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취침, 피로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여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탈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수암 만다라 옥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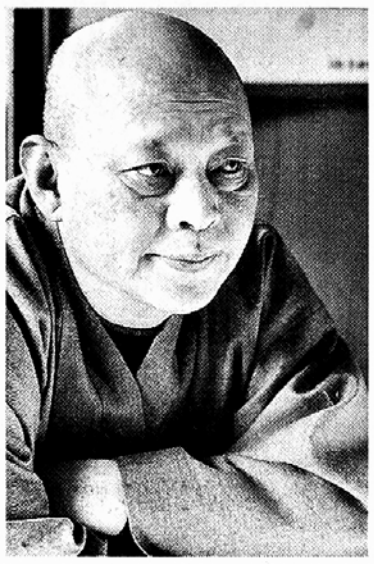
-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활동, 24K순 금도금테, 퀘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 색 상 : 연녹색 가격 : 30,000원

황토 찜질팩



상품소개
황토 찜질팩은 황토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내에 깊숙이침투하여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황토요업을 활용한 찜질팩입니다.

- 가격 : 28,000원



"문학수행 40년…집착없이 살고 싶다"

'종정법어집' 등 전집 10권 완간한 정휴스님

선사행적 수행의 거울
인간의 향기 우러나는
깨달음의 길 전했으면



대표적 승려문인 정휴 스님이 〈종정법어집〉을 마지막으로 '문학수행 40년'을 갈무리하는 전집 10권을 완간했다. 이 전집에는 그 동안 여러 언론매체에 기고한 수필과 칼럼, 고승 평전, 소설 등이 담겨 있지만, 그 핵심은 정휴 스님 문학 행적과 옛 선사들의 수행 철학을 반영한다. 이것이 이 전집의 매력이다.

정휴 스님은 이 전집을 "인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깨달음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구경의 길을 제시하고자 몸부림쳤던 40년 수형 생활의 총정리"라고 자평했다.

―문학을 하게된 동기는 무엇인지.

"사찰은 사랑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비도량이다. 하지만 나는 동자승 때 자비의 도량에서 인간적인 체온을 느낄 수 없었다. 수행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수행자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수행자의 삶이 세속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집착이 없는 삶이다. 이러한 수행의 체득하기 위해 문학을 시작했다."

―전집을 별도로 펴내게 된 이유는.

"나무들도 때가 되면 버릴 줄 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을 하건, 포교를 하건, 수행을 하건 때가 되면 버려야 한다. 특히 수행자라면 버리고 또 버려서 집착 없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은 가벼움이고 적멸이다. 이런 점에서 수행의 길이란 끊임없는 버림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이제서야 그 동안 문학을 하면서 수없이 써온 글들이 집착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기 위해 전집 작업을 시작했다. 그렇다고 버림과 떠남도 함부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잘못된 버림은 중생들의 해로움으로, 잘못된 떠남은 오히려 더 큰 집착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대로 버리고 떠나기 위해 그 동안 써온 글들을 정리했다.

―이 전집이 담고 있는 큰 주제들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 중에서 나는 오랫동안 선사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오도적 삶을 분석하고 체현하는 데 온 삶을 쏟았다. 선사들은 인간적 슬픔과 고뇌를 깨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우는 일에 치열한 열정을 쏟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 초극과 해탈을 위해 먹고 자는 일을 포기하고 자기 몸 속에서 살점이 빠져나가는 정진을 한 선사들…, 이처럼 자기 고통의 근원을 깨닫는 일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아닐까. 이러한 선사들의 수행담을 탐구하는 것은 내 수행의 삶을 관추하는 거울이기도 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어록이 있다면.

"굳이 꼽으라면 〈임제록〉이다. '인간적 고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나의 의문을 명확히 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번뇌가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는 '번뇌가 곧 부처', 부처, 조사, 보살 등에 얽매이지 말라는 '살불살조', 그리고 일없는 사람이 참사람이라는 '무사진인' 등의 가르침은 인간의 해탈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상이다. 이처럼 임제 스님만큼 불교의 본질과 인간의 미명을 극명하게 파헤친 선사는 없다.

―향후 스님의 과제는.

"전집이 40년 문학인생, 즉 정신적인 측면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육체를 버리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리운 사람을 기다릴 것이다. 그 사람은 진정한 자아를 이룬 나의 다른 모습이다."

10권의 전집을 손에 쥔 정휴 스님은 "깨침의 안목을 열려면 한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인을 봐야 한다"며 "전집 완간의 의미를 집착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제2의 출가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출판사에서 펴낸 정휴 스님의 전집은 수상집 〈어디서 와서 무엇이 되어 어디로 가는가〉, 사회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담은 칼럼집 〈선재의 천수천안〉을 비롯 〈깨친 사람을 찾아서-전강평전〉, 〈슬플 때마다 우리 곁에 오는 초인〉, 〈적멸의 즐거움〉, 〈열반제〉, 〈선문에 뜨는 달은 말을 하더라 1·2〉, 〈고승평전〉, 〈종정법어집〉 등이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건강한 몸과 마음 가꾸는 섭생법

김남주 옮김 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



모한다스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로 완성되기까지의 정신적 육체적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김남주 옮김, 뜨란)이 우리말로 나왔다.

의사가 되려다 해부에 대한 비슈누교의 금기와 가문의 전통 때문에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던 간디. 그에게 '인간의 건강'은 평생의 화두였다. 간디는 어떤 전제나 사실도 당연시하지 않았다. 특히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실천과 연구,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한 뒤에야만 그 방법을 수용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간디는 '병이란 불결한 것이 몸의 특정 부분에 축적되었다는 자연의 경고"이며 "그것은 인간의 부주의와 탐욕의 결과"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약과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병의 더러움을 자연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는 게 지혜로운 처방"이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는 건강하려면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마음과 몸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건강에 관한 간디의 다양한 체험 사례들이 실려 있다. 과일식이요법, 채식 식이요법, 서구식 약을 대신하는 대체요법,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 치유법 등을 비롯 아슈람 생활 속에서 체득한 간디식 섭생법을 의식주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여러 식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학적인 진단도 함께 수록했다.

경전, 기도, 묵언이 간디의 영혼을 만들었다면, 채식, 금욕, 절제, 단식은 간디의 몸을 단련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간디가 어떻게 건강한 마음과 몸의 양식을 취할 수 있었는가를 체험적으로 밝힌 이 책은, 건강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고양시키는 또 하나의 경전처럼 읽힌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아함경서 엿보는 불교의 미래

'아함경전' 4권 한갑진 지음



"새 천년 불교의 길은 아함경전 속에 있다."

부처님 생애를 바르게 이해해야 불교가 바로 선다고 주장하는 한갑진 씨(한진홍업 대표)가 〈아함경전〉(한진출판사)을 4권으로 번역해 내놓았다. 한 씨가 〈아함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 불교영화를 기획하기 위해 미얀마 등 남방불교권을 답사하면서부터다. 수행과 계율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나라의 불교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미래 한국불교의 길이 〈아함경〉 속에 있고, 이를 읽어야 한국불교가 바로 선다고 믿었다. 이러한 결심을 한 그는 〈아함경〉을 우리말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 동안 〈부처님 생애〉, 〈알기 쉬운 불경집〉 등 10여 권의 불서를 펴냈지만, 경전을 번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국내의 한역 〈아함경〉, 영국 성전협회에서 출간한 〈아함경〉은 물론 남방불교의 경전을 조사하기 위해 78년과 82년 한 달간의 일정으로 학술조사도 다녀왔다.

한 씨는 이번 전집을 '아함경을 읽자'라는 취지로 사찰이나 신행단체 등에 무료로 법보시한다. (02-277-7000). 값 각권 1만 2천원. 김중근 기자

이책의 한구절

■ "중생은 결과만 보고 그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생의 원인이 내생의 결과가 됨을 알지 못한다. 만약 삶의 진실을 깨달아 인과에 눈을 뜨지 않으면 윤회하는 삶의 괴로움은 태어날 때마다 이어질 것이다."

―죽음과 환생 사이의 영혼을 제도하는 밀교와 정토의 가르침인 '중음신 제도법'. 〈죽음을 준비합시다〉(우리), 엮은이는 전남 보성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값 6천원.

■ "게으름은 마음이 병든 상태이고, 무기력은 마음의 특성들이 병든 상태이다. 감각이 무딘 마음은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박쥐나 막대기에 붙은 꿀만큼 둔하고, 너무 굳어서 퍼지지 않는 버터 덩어리처럼 둔하다. 게으름과 무기력을 막으려면, 선의 요소 중 하나인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

―부처님 생애와 불교의 핵심 교리, 그리고 주요경전까지 총망라한 불교입문서. 〈쉽게, 깊이 읽는 불교입문〉(나라다 스님 지음, 주민황 옮김, 숨). 값 8천9백원.

"중생은 결과만 보기 때문에 이생이 내생이 됨을 모른다"

■ "우리는 너무 바빠지고 너무 황급하게 달린 나머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을 잊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놓치고, 슬픔을 놓치고, 삶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마저 놓친다."

―미국인 수도승이 쓴 티베트 불교의 지혜. 〈내 마음속 부처 깨우기〉(라마 수르야 다스 지음, 유은영 옮김, 창작시대). 값 9천원.

■ "정토법문은 믿음과 발원, 그리고 염불수행의 세 가지를 기본 요건으로 삼는다. 오직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원을 함께 갖춘 경우에만 비로소 독실한 염불행이 된다. 재앙과 해악이 닥치면 정성스럽고 간절하지만, 조금이라도 평안해지면 느슨해지는 것이 범부 중생들의 공통된 병폐이다."

―염불수행으로 평생 교화에 헌신한 근세 중국의 고승 인광 스님의 염불 법문집. 〈화두놓고 염불하세〉(김지수 옮김, 불광). 값 1만2천원.

■ "불교조각은 인체조각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래상, 보살상, 각종 신중상 등은 모두 인체를 빌려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 해법은 부처가 인격의 완성자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불상은 창조자도 아니며 절대적 존재도 아니다. 인격의 완성자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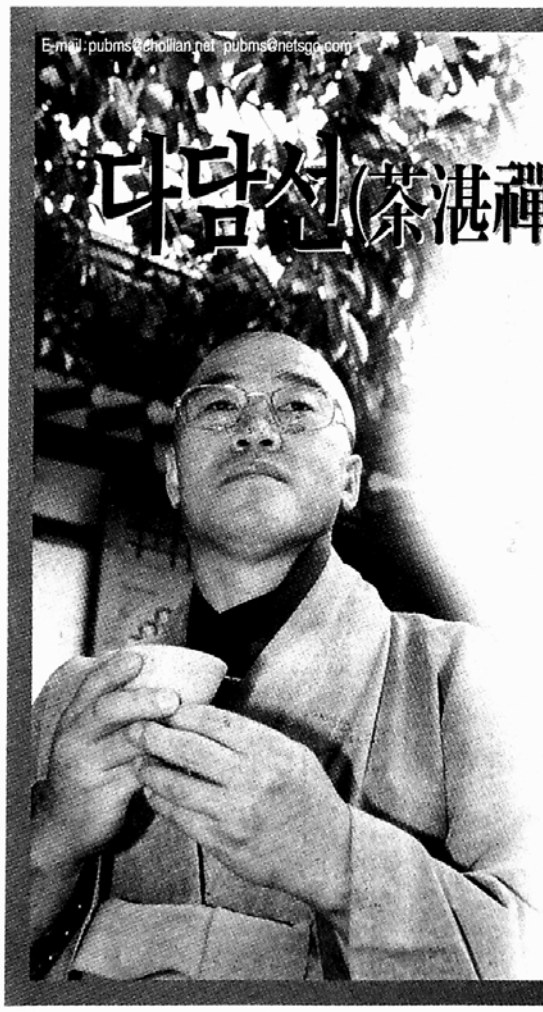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을 역임한 홍윤식 교수가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을 접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쓴 칼럼집. 〈문화유산의 전통과 향기〉(민족사).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이른 아침 나를 기억하라	틱 낫 한	지혜의 나무
2	일반승 수행일기	강 옥 구	동쪽나라
3	화두 놓고 염불하세	인 광	불 광
4	운명을 뛰어넘는 길	원 환	불 광
5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정 세 채	모 색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7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8	천수경 천수신앙	혜 국	효 림
9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10	한국역대 고승의 다시	무 산	명 상

도서 안내:(02)737-0695



E-mail: pubms@chollian.net pubms@netsgo.com

110-30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 B/D 503호 명상
TEL. 733-4277(代) FAX. 733-4279

다담선(茶湛禪)을 알고 다도(茶道)를 하는가

"다담선의 선맥(禪脈)을 밝힌다"

다담선이란 차를 마시면서 선수행을 하는 것으로 고려의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이 9백여 년 전 우리 나라에 들여왔다

일천 년 동안 맥을 이어 내려온 26분의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겨 놓으신 다선시를 이번에 설선당 무산 스님이 십수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책으로 세상에 내어놓는다 하니 참으로 큰 불사(佛事)요 기쁨입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옹

종문(宗門)과 세간에 있어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남기신 다도와 선의 진수인 다시(茶詩)를 한 곳에 모아 방대한 책으로 발간하게 됨은 종문의 대불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대한 불교 조계종 통도사 영축총림 방장 월하

- 고승들이 중생에 전하는 찻잔 속 깨달음의 향기들 ―즈선일보
- 우리나라 다담선의 맥을 처음으로 정리해낸 보고서이자 다담선의 부흥을 알리는 선언문 ―연합뉴스
- 끊어졌던 다담선의 선맥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책 ―국제신문

"
고려의 대각 국사로부터
조선 말기 범해 선사까지
"

한국 역대 고승高僧의 茶詩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272쪽
값15,000원

명상 시선 11

그리운 님에게

한 출가 수행자의 고뇌와 그리움,
그리고 중생과 부처에 대한 끝없는 사랑

삶은 사랑과 함께 시작해서 죽음과 함께 끝난다.
죽음이 올 때 사랑의 에너지는 마지막 한판 승부를 겨룬다.
그것은 확 타오르는 불꽃이 된다.
그 섬광은 그대를 다음 생각으로 이끌고
수레바퀴는 다시돌기 시작한다.
시집 전편에 등장하는
'그대님 다화(茶花)'는 진정 누구인가.

그대 님 다화
홍조 띤 수줍음이
노을처럼 타고 있네.
밀회의 시공(時空) 사이
입술마저 타들어간 다화
당신의 숨결 하나로
나 설신
넋을 놓고 천년 살리다.
순간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면야
화석으로 굳어진들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다.
그대 님 다화의
눈빛 하나로
마음놓고 만년 살리다.

(「천만년 함께 가는 님」 전문)



설선당 무산 스님 지음
변형4×6판/96쪽
값5,000원

조선이후 고승비문 체계화

지관스님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 발간

전국 332기 전문 실어
교리 · 인물 등 연구 자료



불교사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조선시대와 근현대 불교사 연구의 초석을 다질 자료집이 나왔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이 불교사 연구의 '결쇠'라고 할 수 있는 고승비문을 발굴, 정리한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을 펴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사찰과 폐사지에 남아 있는 고승들의 비와 읍지(邑誌)나 사지(寺誌)에 전해오는 비문을 빠짐없이 조사해 수록한 이 책에는, 충주 청룡사 보각(1321~1392) 스님의 비문에서 부산 복천사 도해(1934~1995) 스님의 비문까지 6백여 년간 전국 각지에 세워진 332기의 고승 비문의 전문이 실려 있다.

여기에는 휴정·유정 등 조선시대 고승들과 자운·성철·탄허 등 근현대 고승들을 비롯하여 사신·묘공·혜타·수옥·인홍·보현·세만·법희 스님 등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8명의 비구니들의 비문도 실렸다.

고승의 행장을 기록한 비(碑)는 입적 후 몇 년 이내에 옥외에 세워지지만 재질이 석재이므로 가감하거나 첨삭할 수 없어 일차 사료로써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불교사 연구의 핵심인 승사(僧史)나 교학(敎學) 및 그 유통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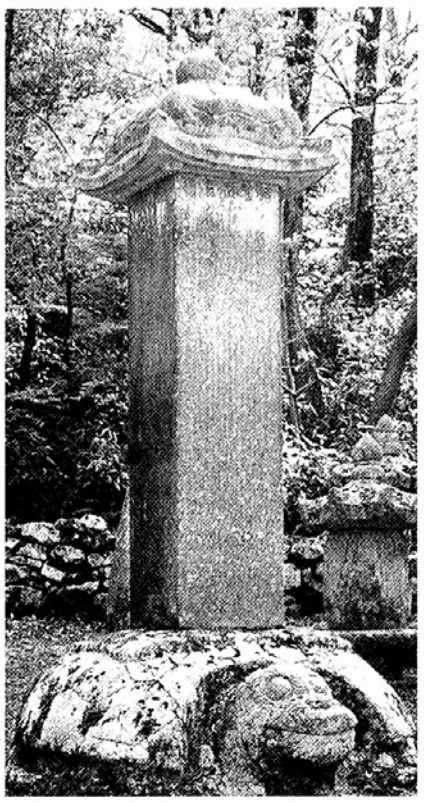
특히 조선시대의 경우,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탓에 불교사 연구를 위해 참고할 만한 문헌이나 사료가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까지 〈해동금석문〉, 〈조선금석총감〉, 〈한국금석전문〉 등 비문을 다룬 책들이 발간되긴 했으나, 조선조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승들의 비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했다.

지관 스님은 "조선시대나 근현대 불교연구에서의 핵심은 스님인데, 학계의 관심은 몇몇 권승(權僧)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며 "비문에는 조선조 억불정책을 견디어내며 수행의 채찍을 놓지 않은 스님의 삶과 수행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당대 불교의 교리, 인물, 제도 등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 건립에 동시대의 문사(文士), 서가(書家), 재가(才家)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는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결정체"라며 "이 책은 불교사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경제사 등도 면밀히 살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지관 스님은 93년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신라편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려편1·2·3·4, 조선편1에 이르는 6권의 저술을 발간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7일 오전 12시 '한국의 집'에서 〈한국불교고승비문총집 조선조·근현대〉와 〈가산불교대사전 3권〉의 출간 법회를 봉행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전남 해남 대흥사 청허당 휴정대선사 탑비.

사찰 편액을 찾아서

㉖ 권상로의 심원사·표충사 편액



◇철원 심원사 '명주전'.



◇밀양 표충사 '고령정'.

명 주 전

예서체 필획 진중한 글씨

고 령 정

꾸밈없어 보는 눈 편해

퇴경 권상로(退耕 權相老·1879~1965)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 1896년 문경 김룡사(金龍寺)에서 서진(瑞眞)을 은사로 득도하였다. 그는 김룡사 불교전문강원을 마치고, 원종(圓宗) 종무편집부장, 문경 대승사(大乘寺) 주지, 조선불교월보사 사장, 불교사 사장,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수, 불교조계종 원로회 원장, 동국대학교 초대총장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퇴경은 일생을 한국불교학의 정립과 불교사상의 선양에 전념하였던 근대의 고승이며, 조선불교사 등 30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을 펴낸 위대한 불교학자였다.

퇴경은 7세부터 10여 년 간 서당에서 한학을 배워 서법에 구애받지 않고 각 체에 능했으며, 학자다운 고박(古朴)한 글씨를 썼다. 현재 사찰에 남아 있는 편액으로는 서울 화계사 〈삼각산제일선원〉, 철원 심원사 〈명주전〉, 밀양 표충사 〈예제문〉, 〈고령정〉, 문경 대승사 〈사불산대승사〉, 영주 희방사 〈희방사〉 등이 대표적이다.

철원 심원사 〈명주전〉 편액에는 '임인자자일 팔십사세 사문 퇴경 상로(壬寅自恣日 八十四歲 沙門 退耕 相老)'라는 관지와 '퇴경 권상로인(退耕 權相老印)'이라는 방인 2과가 있다. 명주전은 명부전, 지장전, 시왕전의 이칭으로 지장보살이 명주(明珠)를 들고 있기 때문에 붙인 전각의 명칭이다. 이 편액은 1962년 자자일, 즉 하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7월 보름에 쓴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질박(質朴)한 필획의 예서로 진중(鎭重)한 서미(書味)를 지녔다.

밀양 표충사 〈고령정〉 편액은 변죽 없는 통판에 음양각으로 글씨를 새긴 것으로, 액판 좌측에 '퇴경(退耕)'이라는 관지만 있다. 이 편액은 현재 박물관 내에 전시되어 있는데, 1839년(헌종 5)에 시작된 표충사의 이전과 관련된 편액으로, 표충사가 옛 영정사(靈井寺) 터로 옮겨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편액의 글씨는 꾸미지 않은 고박(古朴)함에 의연한 문기(文氣)가 어려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글씨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각필악보 발견

고려 불교음악 실체 확인

법현스님 성암고서박물관서 찾아



◇〈묘법연화경〉의 각필악보. 옆으로 주름처럼 보이는 선은 한자의 사성, 음 높이와 음 길이를 부호화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1, 8권
안채비 소리 부호화

잃어버린 1천년 전의 불교음악을 복원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됐다. 법현(동국대 국악과 교수) 스님은 29일 성암고서박물관 소장품으로 신라말~고려초 경전으로 추정되는 〈묘법연화경〉 1권과 8권에 각필로 된 악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각필은 먹을 쓰지 않고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붓 등으로 종이에 눌러 쓴 것으로, 이번에 발견된 각필 악보는 범패의식에서 불경이나 게송을 읊는 안채비 소리를 부호화한 것이다.

법현 스님은 "동양 최초의 악보로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유량악보인 〈정간보〉 보다 4백년 정도 앞서 제작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고려시대 음악의 형태 및 음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또한 "〈묘법연화경〉이 경전인 만큼 훼손하지 않고 표기하기 위해 각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연구소 박상국 예능·민속연구실장은 "각필이 일본에서는 많이 발견됐지만 우리 나라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은 최근으로, 이번 각필은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발견된 각필을 악보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전을 독송할 때 편리하도록 음률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악과 음운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현 스님은 불교문화가 찬란히 꽃피웠던 신라·고려의 불교음악 악보가 하나도 없는 데 의구심을 갖고 악보의 존재를 추적하다가 탱화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해인사·약사사 등의 감로탱화에 등장하는 범패승은 촛불을 한 자루만 켠 채 불경을 보고 있다. 이는 범패승이 경전 지면에 나타난 음영을 이용해 각필 악보를 읽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묘법연화경〉은 두루마리 형태의 목판본으로, 총 7권의 기존 판본과 달리 총 8권으로는 처음 발견된 희귀본이다. 8권의 〈묘법연화경〉은 중국의 수·당대 유행했으며, 고려대장경 초간(1010년) 이후 나온 국내 판본은 총 7권으로 되어 있다. 또 종풀을 쑤어 종이를 이어 붙였고, 고려대장경이나 중국 판본에는 없는 한자가 사용된 점을 미루어 신라 말이나 고려 초 국내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종욱 기자

"간화선, 화엄비판서 출발"

인경스님, 보조사상연 학술회의서 주장



"고려말에 등장하는 간화선은 화엄을 수용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데서 출발했다." 인경(동국대 강사) 스님이 '보조지눌의 집중적 탐구'를 주제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의 제12차 정기학술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해 주목된다.

인경 스님은 '화엄 법계연기설과 간화선 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화엄과 간화선은 언어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며 "화엄의 경우 언어로 나타나는 의미 체계를 중시하는 반면 간화선은 그 의미 체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인경 스님에 따르면 보조 스님은 〈화엄론절요〉에서 의미 체계를 중시하는 화엄의 입장에 대해 '그런 태도로 관(觀)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은 한낱 장애일 뿐 관(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경 스님은 "보조 스님이 내세운 간화선의 특징으로 마음의 장애를 없애는 도구적 기능, 진리를 분별과 사고의 과정 없이 직시하는 현량적 기능, 의미 체계를 뛰어넘는 메타언어적 기능 등이 있다"며 "이것은 실참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간화선의 수행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불교학연구회 11일 정기 학술회의

불교학연구회(회장 해주)는 11일 오전 9시 30분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불교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서윤길(동국대 불교대학원장) 교수의 강연으로 시작되는 학술회의에는 '불교 페미니즘의 현황과 전망'(하정남), '〈비즈나〉에 관한 논변'(이종철), '여말선초의 화엄종계의 동향'(황인규), '무기의 〈석가여래행적송〉에 나타난 사상'(이병욱) 등이 발표된다. (02)2260-3128

"불국사 기단·석등 남산의 돌 사용"

좌용주 교수 과학적 감별

한국을 대표하는 석조 문화재의 보고인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의 석재는 어디서 가져왔을까?

좌용주(경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가 석재 출처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전암 대자율' 측정법을 이용, "석굴암 석재는 토함산, 불국사의 청운교·백운교·석가탑·다보탑 등의 석재는 남산에서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 측정법은 바위 등에 자기장을 쐬면 암석에 포함된 자성을 띤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석재의 유사성과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좌 교수는 우선 토함산 화강섬록암, 흑운모 화강암, 남산 화강암 등의 대자율 값을 측정하고, 석굴암 등에서 추출한 시료의 대자율 값과 비교했다.

이외에도 좌 교수는 불국사와 건축 연대가 비슷한 경주 북쪽의 나원리 5층 석탑이 남산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을 밝혀내고, "당시 신라의 성지인 남산의 돌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학설을 반박했다. 좌 교수는 "당시 재상인 김대성의 권력이 왕에 버금가 남산의 돌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욱 기자

이 책을 열면 새 하늘이 열린다!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체험의 신세계가 열린다

실명 구도소설

해인의 비밀

1 氣의 회로를 찾아라

최현규 지음

312쪽 8,000원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전 3권 2권, 3권은 곧 출간됩니다.



海印 〈화엄경〉의 '능인해인삼매중能人海印三昧中'에서 나온 말로, 모든 번뇌가 끊어져 우주의 참모습이 그대로 물 속에 비치는 경지를 말한다. 의상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그렸다는 〈해인도〉는 '십바라밀도'라고도 불리는데, 호풍환우呼風喚雨와 이산초해移山超海 —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며,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뛰어넘는 초능력이 담긴 신비의 그림이라 전해진다. 〈격암유록〉에는 '하늘 해인을 구하면 모두 극락에 들어간다求天海印 皆入極樂'는 구절이 있다.

큰스승 이 책속의 실존인물로, 소년 시절 해인의 수수께끼에 의문을 품어 평생의 탐구와 수련 끝에 마침내 해인의 비밀을 풀고,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氣의 회로를 열어 놀라운 도력으로써 세상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은 큰스승과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모종의 엄청난 일들에 대한 생생한 목격담이다.

氣회로 해인의 깨달음, 강력한 힘으로 작게는 한 인간의 운명과 질병, 크게는 현실세계와 역사마저 좌우하는 氣의 '지도'. 氣회로의 놀라운 실체를 밝힌 이 책은 氣, 초능력, 道, 깨달음, 심령현상 등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해답을 공개한다.

호풍환우呼風喚雨 '비를 오게 했다면 멈출 수도 있겠지요. 우주와 하나가 된 자신을 믿으세요.' 큰스승의 말에 오춘실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오므라지고 있었다. 주먹을 쥐자 비가 거짓말처럼 멈춰져 있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다... 상식의 잣대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들, 그러나 안 믿을 수도 없게 만드는 이 책의 마력 앞에서 당신은 삶이 통째로 바뀔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독자들의 직접 체험을 위한 신비의 '氣회로' 수록!
'큰스승'이 손수 마련한 '氣회로'를 통해 질병 치료와 氣체험, 달라지는 인생을 경험하십시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스 739-8791, 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 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안양점(0343)466-2208,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전주점(063)246-4888, 대구점(053)943-4824, 부산점(051)294-8545, 마산점(055)248-5599

식은땀이 흘러 이불과 요를 흠뻑 적셨다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 이야기 ⑥

(5) 반야다라(般若多羅) 나타나시다

왕궁으로 돌아온 보리다라는 우울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경전조차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달빛 아래서 무술연마도 하고 싶지 않았다. 촛불을 끄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는 생각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인 방편으로 왕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궁성 안의 호화로운 생활이 스스로를 옥죄었다. 게다가 부왕과 모후에 대한 괴로운 심정도 마음을 짓눌렀다. 그럴수록 그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이불 속에 반듯이 누운 보리다라는 어느덧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벼락이 하늘을 진동하면서 한 줄기 붉은 빛이 그를 엄습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무너져 내린 왕궁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다. 타다 남은 가재도구가 뒹굴고 궁 안은 온통 초토화되어 있었다. 도처에 시체가 어지러이 널려 있고 피비린내와 시체 타는 냄새가 코끝에서 진동했다. 짐작컨대 이 나라가 외국의 침략으로 겁난을 당하는 모양이었다.

"업보로다. 업보!"

보리다라는 명상 속에서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두 눈을 감은 채 두 손 모아 합장했다. 잔인한 살인, 파괴, 피 뿌리는 겁난, 인과응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윤회의 굴레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렇기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량겁 이전에 위대한 자비의 원력(願力)을 인식하고 시방세계를 교화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하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보리다라 우울한 나날

보리다라는 한 줄기 싸한 냉기에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퍼뜩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벌써 한밤중인 듯 싶었다. 창 밖엔 명상 속에서 본 것처럼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몸에선 식은땀이 흘러 이불과 요를 흠뻑 적셨다. 보리다라의 마음은 산란스러웠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밤이 깊었건만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앞엔 명상 속에서 본 광경과 오늘 낮에 부왕이 하신 말씀이 중복된 화상으로 어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힘차게 흔들면서 환영(幻影)을 쫓았다.

'이, 이것이 일장춘몽이로구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는 속으로 뇌까렸다.

새벽이 밝았다. 왕궁 안의 누각과 집들이 동트는 햇살에 비쳐 막 솟아올랐다. 밤새 내린 빗방울은 건물 사이 처마 겹겹에서 영롱한 빛을 반사했다. 향지국 도성 안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한껏 돋보였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향지국왕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문안드리러 온 세 왕자와 내관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궁전을 나섰다. 한참 걸어서 옛 성(城)의 망루에 올랐다. 고색찬연한 왕도(王都)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기도 했거니와 세 왕자와 이곳에서 아침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왕이 세 왕자와 함께 막 자리에 앉자 내관 하나가 바쁜 걸음으로 달려왔다.

"대왕께 아룁니다. 성문 앞에 웬 노스님이 오셔서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내관이 부복해서 고하는 말에 국왕은 귀를 의심했다. 이른 아침부터 노스님이 찾아 온 까닭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순간 국왕은 길조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노스님을 즉시 이곳으로 모셔라."

잠시 후 내관이 스님을 안내했다. 스님은 키가 8척이나 되는 장신이었다. 백발이 성성한데도 동안(童顔)이었다. 굵은 눈썹에 맑은 눈이 총총히 빛났다. 어디로 보나 도골선풍(道骨仙風)이 풍겼다. 손에 불자(拂子)를 잡은 채 국왕을 향해 합장하면서 말했다.

"대왕을 처음 뵙습니다. 아미타불."

향지국왕은 불교를 존숭하는 임금이었다. 황망히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내려가 스님에게 깍듯이 예를 표했다.

"노사부께서는 몸을 펴십시오. 그리고 이리 앉으시지요."

노승은 사양하지 않았다. 곧 국왕과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국왕은 노스님을 흘깃 보면서 고승(高僧)이 확실하다고 짐작했다. 노사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성지를 내려 보물을 시주하라고 했다. 내관은 즉시 은쟁반에 금은보화를 담아와 정중하게 노승의 앞에 바쳤다. 향지국왕은 쟁반 위에 놓인 보물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희 나라가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보잘것 없는 보물이지만 등에 넣을 기름값으로나마 보태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기꺼이 받아 주십시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쟁반을 받아서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놓고 몸을 일으켜 합장을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

"감히 대왕의 시주를 받자와 빈승은 실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말을 마치자 노승은 눈을 들어 옆에 앉아 있는 세 왕자를 차례로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다. 무슨 사연이 담겨있는 듯 싶은 그런 눈길이었다. 국왕은 세 왕자로 하여금 노승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했다. 그런 다음 노승에게 물었다.

"노사부께서는 어느 절에 계시온지요? 그리고 법호는…."

노승은 국왕이 채 말도 마치기 전에 불자를 한번 쓸어 내리고는 합장을 하면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승이 바로 천축 27대조인 반야다라(般若多羅)입니다. 정해진 거처는 없습니다. 대왕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시고 공덕이 무량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흠모하여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과연 공연한 소문이 아니었군요."

넙죽 엎드려 큰절하고

향지국왕은 깜짝 놀랐다. 공수(供手)를 하고 읍을 하며 더듬거리며 말했다.

"제가 눈 뜬 장님처럼 큰스님을 몰라보았습니다. 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승은 즉시 두 손으로 향지국왕을 부축했다.

"대왕께서 이토록 지나친 예로 대해 주시니 빈승은 황송할 뿐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제자리에 좌정했다. 국왕은 더욱 예의를 갖추어 조사(祖師)를 극진히 대접했다. 세 왕자도 기쁜 기색으로 친히 시중을 들었다.

이 노승이 진정 서천(西天)의 27대조인 반야다라란 말인가? 왕자들은 생각할수록 꿈만 같았다.

반야다라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원래 동쪽 천축의 바라문 가문의 자제였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잃어 성씨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더군다나 이름조차 지어 받은 일이 없었다. 어느 정도 자란 다음 스스로 이름을 지어 영락(纓絡)이라고 불렀다. 세상 사람들은 이곳 저곳 걸식하며 세월을 보내는 그를 '영락동자'라고 불렀다.

향지국에 온 8척의 노스님
"빈승이 바로 천축 27대조
정해진 거처는 없습니다"

영락동자는 스물 살 되는 해에 서천 26대조인 불여밀다존자(不如密多尊者)를 만났다. 불여밀다는 남천축 천덕(天德)국왕의 아들이었다. 때마침 불여밀다가 부왕과 함께 수레를 타고 궁성을 나서는 것을 본 영락동자는 길 한가운데로 뛰어나갔다. 넙죽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궤좌의 자세를 취했다. 갑작스런 일에 불여밀다는 한편 놀라면서 또 한편으론 의아스럽게 여겼다. 영락동자를 내려다보니 그의 몸 주위엔 오라빛이 휘감겨 있고 이마에서 빛이 발산되고 있었다. 보통 젊은이가 아니라 직감하고 영락에게 물었다.

"너는 큰절을 했는데 무엇을 나에게 구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영락은 마음을 가다듬어 대답했다.

"대사님께 아룁니다. 저는 오래 전에 대사님께서 마하반야심경을 강설하시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의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필코 대사님을 따라 수행하여 범속을 초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뵙기 어려웠던 분을 드디어 오늘 만나 뵙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인연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사께서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불여밀다는 그 말을 들자마자 옛 인연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왕에게 고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일반의 속된 무리가 아닙니다. 대세지보리(大勢至菩提)입니다."

천덕국 왕의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 진정 사실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

불여밀다존자는 내친 김에 모든 것을 부왕에게 알려 주었다. 앞에 있는 젊은 보살에 뒤이어 또 한 사람의 큰 보살이 나올 것이며, 이들 중 한 사람은 남천축에 또 한 사람은 동쪽 땅에 큰 인연이 있다고 예언했다. 이 말을 들은 국왕은 황급히 수레에서 내렸다. 친히 영락동자를 일으켜 세우고 함께 수레 위로 올라왔다.



◇석정스님의 노엽달마도(수묵 담채, 1977년作).

쟁반에 담긴 보물

불여밀다는 옛 인연을 말하면서 영락의 이름을 반야다라로 지어 주었다. 그에게 점두(点頭)하면서 법을 전수했다.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고 27대의 조위(祖位)를 잇게 한 셈이다. 불여밀다는 이어서 부왕에게 정중하게 작별의 인사를 고했다. 그리곤 자기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가 결가부좌 자세로 입적하여 스스로 불이 되어 활활 타버렸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반야다라의 이름은 천하를 뒤덮기 시작했다. 남천축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반야다라가 이번에 향지국을 찾은 까닭은 두 가지 점에 연유했다. 하나는 향지국왕이 불교를 숭상하면서 공양과 시주에 정성을 다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 나라의 세 왕자가 모두 경전에 통달했을 뿐더러 특히 셋째 왕자가 출중하다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직접 향지국왕을 만나서 불심도 시험해 보고 세 왕자의 불연(佛緣)도 알아보고 싶은 것이 반야다라의 속마음이었다.

반야다라와 향지국왕 그리고 세 왕자는 주인과 손님이라는 위치를 잊은 채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야다라는 일부러 쟁반에 담긴 보물을 세 왕자 앞에 내놓으면서 웃음짓는 얼굴로 말했다.

"세 분 왕자께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왕께서 시주하신 이 보물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입니다. 특히 한가운데 있는 둥근 보주(寶珠)는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 아닙니까. 이것을 과연 빈승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첫째 왕자 월정다라와 둘째 왕자 공덕다라는 합장하면서 공손하게 대답했다.

"대사님께 아룁니다. 이 보물은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귀물이 분명합니다. 등근 보주는 칠보의 으뜸으로 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런 보물은 조사님의 도력이 아니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향지국왕은 얼굴 가득히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왕자의 대답이 도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흐뭇해했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 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흉내만 낸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원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 는 선택받은 귀하만의 것입니다.
▶ 쾅쾅 뛰면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겠습니까?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목단 902
봉황 201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구요? 본드기, 먼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구요? 온도는 자유롭게 - 4계절용 돌침대
■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내리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확조
101 싱글보료
리빙스톤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초장파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액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인용)
♦고유가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아침건강 - 베게가 좌우합니다!
뇌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옥숯베개
▶ 자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어깨가 뻐근 합니까? 베게를 바꾸십시요.
▶ 통풍이 잘되고 세탁도 간편한 옥숯 베게
35,000→12,000원
※단체 주문 환영※ 침대 3대이상 단체 구입시 특별 할인 가격 우대!! ☎ 02)424-9427 / 2203-7821

"참선 · 요가로 살 뺐어요"

高大 스포츠과학연 원정혜씨 체험

욕심 버리니 다이어트 절로 몸무게 2년만에 20kg 줄여

포도다이어트, 단식 다이어트 등 무수히 많은 다이어트 요법들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 불자가 참선명상과 절 및 요가 등 불교식 수행법을 이용, 20kg이나 감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화제의 주인공은 고려대 스포츠과학 연구소 원정혜(33 · 지혜안) 연구원이다. 원씨는 불교식 수행을 통해 체험해 본 결과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얼핏 들으면 누구나 아는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원씨는 이 방법을 통해 2년만에 몸무게를 77kg에서 55kg으로 거짓말처럼 줄였다.

최근 갤럽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0~40대 기혼여성의 60%이상이 출산후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살을 빼기란 결코 쉽지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체험한 원씨의 심리치료 다이어트비법이 여성들에게 더 설득력을 준다.

현재 고려대 교내에서 '명상 다이어트 클리닉(02)3290-1642' 문을 열고 남녀 대학생 15명의 살빼기 8주 작전을 지휘하고 있는 원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해 30세이던 97년 초까지 167㎝ 77kg이라는 '튼튼한' 몸을 유지해 왔다.

"단식, 헬스, 운동 등 안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 한번도 효과를 못봤어요. 또 한달동안 매일 줄넘기를 3백번 정도하는 등 평균 6시간 이상씩 심한 운동을 하는데도 일시적으로 살이 빠진 뒤 다시 더 쪄버리는 요요현상만 심했어요."

15년째 명상과 요가를 해온 원씨는 결국 몸에 맞지않는 과격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심신훈련을 통한 다이어트 연구를 시작했다.

평소 독실한 불자였던 원씨는 우선 97년 3월 해인사 약수암으로 들어가 박사논문을 쓰며 자신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임상실험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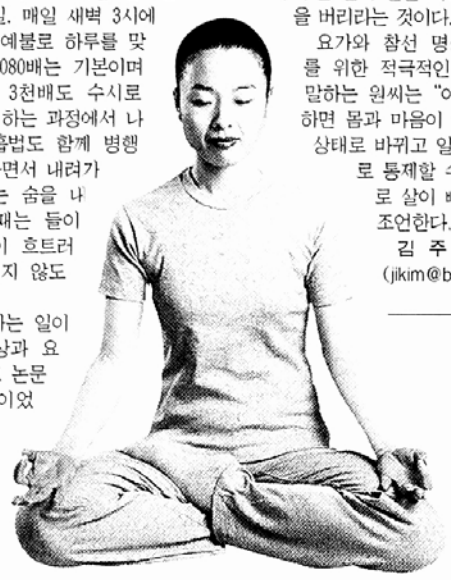
원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살이 빠지든 말든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일.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예불로 하루를 맞았다. 하루 1080배는 기본이며 여력이 되면 3천배도 수시로 올렸다. 절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호흡법도 함께 병행했다. 절을 하면서 내려가는 동작에서는 숨을 내쉬고 일어날때는 들이마시면서 몸이 흐트러진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유지했다.

하루종일 하는 일이라곤 참선명상과 요가, 절 그리고 논문을 쓰는 것이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어느덧 살을 빼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또 마음의 평안도 되찾았다.

절에서 내려와서도 요가와 참선을 계속한 결과 2년여만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던 체중이 거짓말처럼 내려가기 시작해 50kg대로 떨어졌다. 그결과 원씨는 비만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육체적인 운동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비만클리닉을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 주는 말이 살을 빼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다.

요가와 참선 명상은 다이어트를 위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라고 말하는 원씨는 "이런 방법을 통하면 몸과 마음이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바뀌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돼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된다"고 조언한다.

김 주 일 기 자 (jikim@buddhapia.com)



◇ 20kg 감량에 성공한 원정혜씨의 다이어트 비결은 집착을 버리는 것과 참선이었다.

주부 신행담

마음닦기 ②

"금강경 독송하니 힘 솟아나"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미웠고 아이도 귀찮아졌다. 급기야는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가출을 했다. 부산 시내를 8시간 동안 헤매다가 가까스로 마음을 추수린 후 집에 전화를 걸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통해 숨넘어 갈 듯이 울어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살든지 안 살든지 일단은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하자고 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불편한 몸으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일단은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와 보니 예상대로 남편은 내가 집을 비운사이 우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보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됐는지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그 옆에서 아이는 잠이 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엔 채 마르지 않은 눈물과 흘린 우유가 뒤 범벅이 돼 있었다.

잠시후 깨어난 아이를 안고 우유를 먹이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대체 너와 나는 왜 이런 인연으로 만나야 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구나."

이런 한바탕의 소동이 끝난 뒤에도 아이 문제로 계속 가슴 조이는 불행한 나날은 계속되었다. 심지어는 이웃에 아이를 보이기 싫어서 밤에 몰래 이사를 갔다가 열흘만에 다시 포항으로 돌아 온 적도 있었다.

아이는 태어난지 1백일 되던날 첫 수술을 했다. 구개파열이란 코와 입술, 목젖이 갈라지는 것인데 우리 아이는 남들보다 증상이 심해 수술을 5번이나 받았다.

아이 때문에 얻은 후유증으로 2년 넘게 나도 오른쪽 팔과 허리가 아파 한약과 침으로 살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찬바람이 심해지자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 팔이 아파 식사도 못하고 허리가 아파 눕지도 못했다. 가족들 식사도 제대로 챙겨 주지 못해 나가 먹는 일이 다반사였다. 사는 것이 무의미해 졌고 점점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갔다. 심지어는 우울증 증세까지 생겼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던중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붙어있는 '금강경독송회' 안내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당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생활하던 나에게 '마음닦는데 관심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란 문구는 어지러운 내 마음을 끌기에 충분했다.

당장 안내문에 적힌 주소로 달려갔다.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금강경독송회'는 매일 금강경을 집에서 7독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항상 부처님이 앞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했다. 독송회에서 정해준 7독이외에도 시간만 나면 집중해서 무조건 독송하고 또 했다. 차츰 하다보니 불경을 공부하는 것만이 현재 안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금강경을 5독하고 저녁에 두 번 더 독송했다. 또 미륵존여래불 정진을 30분 정도 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눈물로 부처님께 호소했다. "부처님, 지금 안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독송을 하니까 원인 모를 힘이 생겨나는 느낌이 들었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났다. 〈계속〉

이경순〈포항시 남구 지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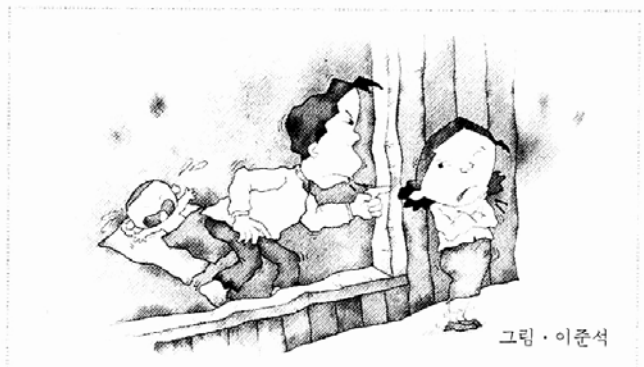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④

■ 손과 감정

때로 손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손을 얌전히 두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는 것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드러낸다. 불끈 주먹 쥔 손은 분노나 흥분의 상태에 있음을 말해준다.

흔히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를 일컬을 때도 '손에 땀을 쥔다'고 하는데, 실제로 손에는 인체에 있는 감각기관의 3분의 1이 집중되어 있고, 땀샘 가운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손바닥에서 땀이 나오는 원리에서 고안된 기계다.

긴장된 순간에 손바닥에 땀이 나는 현상을 정신성 발한(發汗) 또는 취한(取汗)이라 하는데,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겨드랑이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특히 손바닥에서 땀이 나는 것은 유인원들이 나뭇가지를 움켜잡고 살던 시절의 잔재로, 오늘의 인간에게는 성가신 일이기도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악수라는 것도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긴 관습으로, 원시시대에도 무기를 잡는 손인 오른손을 비운 채로 내밀면 호의의 표현이었다.



주먹 울분·흥분의 상태

합장 존경·우정 나타내

불교 신자들에겐 자연스러운 예법인 '합장'도 존경과 우정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는 불자들에게 국한된 종교적 인사법이지만,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상화된 인사법이기도 하다.

가슴 위에 두 손바닥을 맞붙이는 합장 인사법. 가장 성스럽고도 평화로운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이 인사법이, 불자들 사이에서만이라도 보편화되었으면 좋겠다.

파라미타 청소년문화硏 설립

내년 주요 사업계획 발표

세미나·독경대회 등 개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회장 지홍스님)는 청소년학술 세미나 개최와 청소년 문화연구소 설립등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소년 문화연구소의 설립. 이는 96년부터 청소년 교육 사업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교연구실이 사실상 기능 마비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파라미타는 내년부터 청소년 포교 현장에 있는 교법사를 비롯해 불교학생회 지도교사, 청소년 유관기관 근무자를 중심으로 연구원을 선발해 청소년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학술 세미나 및 불교사상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독경대회를 비롯해 발원문대회, 불서 독후감 대회 등 다수의 신행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설법집 및 소책자 발간에도 힘써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문화연구소의 활성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이외에도 파라미타는 올해 실시한 '문화재지킴이 애호 자원봉사활동'도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봉사자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자비의 헌혈운동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단신

분황사 청년회 창립

경주 분황사 청년회(회장 김보수)는 10월 29일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현재 50여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는 청년회는 불우이웃돕기와 문화재 보호활동을 통해 경주 지역 청년 포교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보수 회장은 "조직 정비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불교 발전에 큰 몫을 하겠다"며 "앞으로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활발히 교류하며 활동의 폭을 접차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고교생 교리·독경대회

파라미타 부산지부(지부장 성오스님)는 1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고등부 교리문답대회 및 독경대회'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불교 기초교리 100문 100답이 결쳐진다. (051)853-2445

청교련 양로원 자원봉사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10월 29일 혜명 양로원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한마당 '제3차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효실천의 날' 행사를 열었다. 서울지역 청소년 1백여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양로원 실내청소와 식사준비 봉사, 레크리에이션, 사물놀이 공연 등이 열렸다.

컬러만화로 보는
허준의 처방 동의보감

건강진단에서 한방 처방전까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원전에 충실한 해설, 한 눈에 쏘옥 들어오는 컬러그림!
재미있게 배우고 쉽게 활용하는 생활속의 한방의학 만화백과입니다.

1권: 정력과 활기편
건강장수, 정력증강, 건강한 임신, 중풍치료, 각종 해독 등

2권: 장부의 원기편
신장, 힘줄, 혀리, 다리, 전음, 허약 등

한약재의 효능과 조제법이 친절히 설명
다양한 한약재 정보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제 처방대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책입니다.
박천수 전주 민속한의원장

온 가족의 건강상비서로 활용하시길
우리 체질에 맞는 진단, 재미있는 해설, 알기 쉬운 처방이 담긴 이 책은 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황수관 신바람건강박사



글 그림 이정민 | 감수 하태현(한의학 박사) | 각권 8,500원 | 전2권

태일 건강 총서

호기심 박사 황수관의 건강 따라하기
황수관 지음
황수관 박사와 함께 따라해 보는 매일매일의 건강치침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노화방지법을 찾아볼 수 있다.

뼈와 장수의 묘약 홍화씨 건강법
이인우 · 최진규 지음, 김관호 감수
부러진 뼈, 골다공증을 고치는 데 신통한 효력이 있는 홍화씨. 뼈에 관련된 여러 질병의 예방법 또한 나와 있다.

초두루미 구관모의 옛날 식초 장수법
구관모 지음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을 치유하는 식초 요법. 식초 한 병이 산삼 만 뿌리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져 있다.

氣치료와 생식요법으로 병을 고친다
강청희 지음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기 치료법에 대한 모든 것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食은 운명을 좌우한다
마쿠노 남보꾸 지음, 다마이레이이치로 편치, 최진호 편역
인간의 빈부와 수명, 미래의 운명까지도 음식으로 결정된다. 무절제한 현대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

不老長生의 지혜
최진호 지음
세계 장수촌과 선인들에게서 캐낸 건강장수의 비밀. 노화와 장수에 대한 20여년 연구의 성과물을 모았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허준의 후예들
김성수 엮음
한의사가 되기를 꿈꾸는 한의대생들, 허준 같은 명의를 꿈꾸는 한의사들의 체험과 당부의 이야기를 담았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암 이길 수 있다!

전국 각지 암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전주 〈민속한의원〉의 자연한방 암 치료법!

민속한방의학으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
유황약오리를 이용한 약물요법 · 항암약차 요법 · 쑥뜸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죽염요법 · 마늘요법 · 난반요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호도유 요법 · 수맥과 건강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기공 · 단전호흡



박천수(민속한의원장 한의사) · 김인택(민속한의원 한약사) 지음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328p | 값9,000원



민속한방의학으로 관절염을 이겨내는 방법
관절염 · 신경통 · 산후통 · 허리디스크 · 견비통 · 통풍 · 루푸스 치료법
한방약물요법 · 체질에 알맞는 식이요법 · 약차요법 · 쑥뜸요법 · 죽염요법 · 마늘온법 · 녹즙요법 · 솔잎 땀내기 요법 · 쑥탕목욕 요법 · 적절한 운동 · 발 주무르기 · 항문 조이기 · 단전호흡

박천수(민속한의원장 한의사) · 김인택(민속한의원 한약사) 지음 | 토종약초 컬러화보 16p | 232p | 값8,000원

실오라기 하나도 걸림있으면 공부 못해

여러분께서 자리 없는 자리에 한자리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왔는데 요즘은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으면 해서, 서로 토론하듯이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 느끼고 또 말없이 가는 길도 아시고, 말없이 하는 일도 아시고, 함이 없이 하는 일도 아시고, 그러는 마당에 우리가 한마당에서 한말로 질문하는 게 알아듣기 쉽고 좋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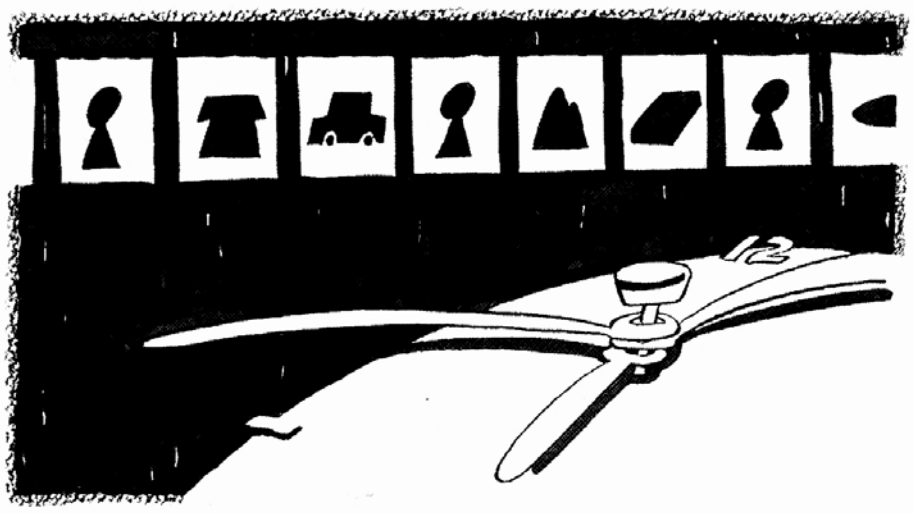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진실한 마음이 중요

질문1: 너무나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구요. 제가 절에 인연이 된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스님이 이렇게 계실 때 꼭 한번이라도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제가 오늘 법회에 일찍 와서 법당에 앉아 일년에 한번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어제 제 부주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 차가 제 차를 덮는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12시가 넘어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제 생각보다 일찍 못 일어나게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집사람이 몸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3시 반에 정확히 일어나 문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딱 뜨니까 나가요. 몸도 아프고 또 추워서 와서 오래 있으면 되지 않을 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끊는 마음으로 나가는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언뜻 잠이 깼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느낌이 드는 것이 '절'자로만 느껴졌어요. '끊을 절'로만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끊지 않고 실오라기 하나 걸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는 할 수 없는 공부라는 마음이 아주 절절이 들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스승님이 집사람을 꼭... 전부 내 스승님인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 몸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 근본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활을 쏘던 중 아주 제일 잘 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알고 모르고 간에 진실한 마음입니다. 모르든 알든 진실한 마음 말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그거를 막론하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질문2: 스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 저희가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한마음 그 자리에다 놓고 말기고 가면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상님 자리에서 우리 자손들에게 원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은 저희가 말기고 관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차원에서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가면서 부처님의 뜻에 누가 안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고 해결이 되는지 가르침 주세요.

스님: 여러분, 오늘 저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세요. 사람마다 집착과 살아 나온 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님들과 여러분이 둘이 아니예요. 모두가 둘이 아니니까 공생으로 사시라 이런 뜻이죠. 공생으로 살게 되면 산사람의 생명이나 죽은 사람의 생명이나 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은 뭣 때문에 49재를 지내고 뭣 때문에 천도재를 지내냐고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면서 부모의 인연을 위해서 인과로서의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덕을 쌓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좋은 데로 태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좋은 데로 태어나는 거는 둘째고 내가 어떤 차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올까 하는, 탤런트들이 배역을 맡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천도재를 지내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살면서 방황하고 모르고 기복으로만 나가던 분들은, 삼혼이라고 말들 하죠. 집안에 하나는 그냥 떠다닌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삼위일체다. 하나를 가지고 논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논할 때 이 공부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그 하나마저도 없다. 만약에 보살이 라면을 먹는다 하면은 같이 다서로 공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죠. 조상들이 이유를 붙일 수가 없죠. 항상 같이 하니까. 오히려 조상들이 돌봐주고 나가죠.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데에, 그러면 조상들이 무슨 이유를 붙여서 고를 주나 생각지 마세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이라는 끝에서 살아나온 부모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한테 잘못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부모는 자식한테 잘못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묘지를 쓸 때에 돌 있는 데에다 잘못 썼거나 무슨 산이 있는 데다 잘못 썼거나 남이 묻었던 자리에 잘못 썼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건 자식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질문2: 공심 공용이고 또 조상님과 둘 아닌 도리를 알면서 둘 아니게 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저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고 둘 아닌 도리를 알면서 가지만 둘 아닌 도리를 공부한다고 조상님과 둘 아닌 도리가 된다는 거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스님: 그러니까 단번에 믿을 건데도 단번에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정자 난자로 인해 모습은 부모한테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은 태어날 애기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영원한 겁니다. 그거를 불성이라고도 하고 자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부처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못 믿지 마시고, 단번에 믿으시면 단번에 해결이 날 거를 믿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공 자체가 바로 과거 당신이다. 별성과도 같고 불성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믿어야 된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움죽거리게 하는 지도자니까 믿어야 된다. 움죽거리지 않고도 움죽거리게 하는 불성이니까 반드시 믿어야 한다 이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도 벌어지고 작은 일도 크게 벌어지고, 생각들을 잘못해서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못 믿지 마시고 자손들이 부모를 믿을 때에 죽었든 살았든 그 마음은 다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든 없든 막론하고, 있나 없나를 따지지 마시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생이로구나. 죽은 영가도 산 사람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따로따로가 없이 사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없습니다.

불성은 일체를 다 움직이는 지도자
내 주장자 붙들어야 일체 苦 벗어나

부처와 둘 아닌 도리

지금 말씀하신 거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조그만 거라도 질문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됐어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고통을 받습니다.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공심으로 사는데, 조그만 거 하나 한 데 떨어질 게 없고 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공체고 공용입니다. 내가 움죽거리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움죽거리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은 어따가 응접할 데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서 공심, 공생으로서 해드리면 그때는 그냥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과 같이 말입니다.

모두 공용을 한다면 전부 걸림이 없이 공용을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은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죠? 그래서 공용한다 그러면 잘못하는 게 없어요. 서로 하고 더불어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공식으로서 만법을 들이고 내고 살림을 해도 걸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수차 말을 해드려도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 참 옛날에 선지식들께서 탄복을 한 이유를 저도 요즘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살아도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아시려면, 누구를 봤는데 금방 딴 데를 또 보죠, 봤는데 또 딴 사람을 봐야죠, 다른 일할 걸 봐야죠, 이렇게 보니깐 본 사이가 없다. 본 사이가 없이 봤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24시간 동안에 몇가지를 했는지 모르죠, 몇가지가 거쳐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사이가 없이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이가 없이 했다 이 소리를 진짜로 이해를 하고 믿는다면 지금 그렇게 궁핍하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달렸으니까 벌써 공심으로 관하면은 조상들도 다 거기에 이끌려서 그냥 공식이 돼버려요. 같이 공심으로 말입니다. 공심이라고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찰나찰나 봤다 들었다 봤다 들었다 하지마는 그것이 난 것도 없고 들인 것도 없다. 한 게 없이 한 거니까. 이해가 안가시죠? 여러분이 24시간 어떤 걸 했던지 어떤 걸 봤던지 어떤 사람을 만났던지 간에 만난 사이도 없고 한 사이도 없고 본 사이도 없이 보고 만나고 했구나. 그러니 빈손이라는 것이 그런데서 오는 거로구나, 빈손 빈발이 바로 그런데서 쓰이는 거로구나. 그런 도리를 알아야만 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혹성에서 문제만 생겨도 그거는 사람이 가서 접근을 할 수 없는 데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는 사람들이니깐 대충대충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다 하면 답답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죠. 내가 답답해서가 아니라 내가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답답하면 나도 말을 해주다가 '참, 나무떼기 시집을 보내느니 내가 가지'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대중웃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당시만 좋았지 그 뒤에 가면 걸려서 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을 어떠한 방침으로라도 알게 해야만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았을 자리도 버리고 잘 자리도 버리고 있을 자리도 버리고 돌아다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를 버리면은 두렵고 무섭고도 없이, 옛날에는 도깨비불도 나오고 뭐 산중에서 별일이 다 많죠. 그렇지마는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디다. 한참은 쫓기기도 하고 쫓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죽고 사는 걸 다 버리니까 그때서야 아무 기탄이 없어요. 내일 죽어도 그만 이따 죽어도 그만, 그렇게 하니깐 오히려 나무 한 가장구라도 다 주잖아요. 통신이 되잖아요. 이 말을 잘못 들으시면 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가니까 나무 한그루, 한 가장구도 꾹꾹 찔러서도 일러줘요. 이리로 가면 길이 아니라고, 이리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진다고, 밤중이니까.

이런 원인이, 그렇게 내가 거기를 함이 없이 가 봤으니까 그런 말도 상대에서 나오는 거죠, 개미 새끼 하나도 생명있는 거는 다 소중하다. 소중한데 지구에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죽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죽을 시기가 되면 저절로 자연사가 되는데 우리가 마음먹고 저거 죽여야겠다 그러고 죽이면 더불어 같이 사는 공식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분명한 게 뭐냐하면요 하다 못해 개미 새끼 하나도 그렇고 하다 못해 개구리도 그렇고 장마가 오면 개구리 알들을 모두 치켜다가 위에다 갖다 놓느라고 큰 개구리들이 야단들이에요. 그거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건져다가 올려다 놓는데 올라다 놔주죠. 그런데 꼭 대가가 와요. 대가 없는 건 없더라구요. 사람도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고 나쁘게 해결을 할려고 그러고 나쁘게 해서 뺏어 먹을려고 이런다면은 꼭 내가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깐 엉토당토 않게 그러니깐 나도 보존해야 하고 당신도 보존해야지 어느 거 하나 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공식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도리를 잘 알면 조상들 때문에도 걱정없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세생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난다 이런 게 참 겁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재를 반드르르하게 해가지고 무슨 발자죽이 생기는가 보느라고 해놓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보지 않아도 선하게 산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자에 살 때는 어떡하고 나왔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다 나오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그만 거 하나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사시는데 돈이면 제일로 치는 분들이 많죠. 돈이면 제일로 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즉을 조상이 있는데 죽을 조상을 살리렵니까, 그냥 빨리 가시게 할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가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항상 앞서게 되고 나이를 덜 먹은 분들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도 못쓰고 만약에 연세는 많으신데 고생을 하고 계시게 놔두면 그것도 불효죠. 또 나이 적은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게 하면 또 그건 부모로서 안됐죠. 그러니깐 양면을 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생을 안하고 속을 안 썩이고 답답하게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해나가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생명있는 건 다 소중

우리가 만날 절에 다닌다고 하지만 기복으로만 무엇을 바라고 다닌다면 항상 기복을 떠나지 못하죠. 그건 죽어도 떠나지 못해요. 얻어먹고 살게 마련이니 거지 생활을 면치 못하죠. 박복하고요. 그러니 사람으로의 삶도 생김생김도 차원도 그렇게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깐 박복하죠. 생각 하나에 그렇게 모두 해결이 나서 세세생생을 잘 살 수 있는데도, 식구들도 잘 살릴 수 있건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침착하게 생각을 잘 하셔서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서 눈물이 나더라도 우시더래도 자기의 주장자를 붙들고 우세요. 그래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 아닙니까? 업보든지 영계성이든지 유전성이 너무나 많아서 박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지나가다가도 불쌍한 짐승을 보면 건져 주시게 되고 나무 한그루도 건져주시게 되고 또 진화가 돼서, 모습을 사람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착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질문3: 저는 딸을 셋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한마음선원을 알게 된 건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언니가 파라과이에 있는데요, 한마음요전을 한국에 보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는 동시에 제가 한마

☞ 20면으로 계속

가족도 언덕 같은 벗도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죽고 사는걸 버리면 아무 걱정없어

☞ 19면에서 계속

음선원을 찾아오고 싶어서 겨울 날 밤차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당에, 바로 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이 법당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 때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해서 스님 앞에 한번 와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억수로 궁금해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제 걱정은 바늘 끝도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스님이 부산에 오시거나 어디 가시면 제가 그 뒤를 따라서 먼발치에서 스님 법문 듣고 왔다갔다 하면서 스님을 존경하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어저께도 그냥 한번 오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법당에는 본원 신도들만 앉아 계시는 자리인데, 저는 정식으로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한마음요전을 읽으면서 '아, 생활하는 게 곧 불법이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경계에 부닥치면 한마음요전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붙들고 올라오는 그것도 가라앉히면서 생활해 나가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빈손 · 빈발되는 도리

처음 왔을 적에는 남편 하는 일이 조금 안돼서 마음을 한번 풀어놔야지 하는 상태였구요, 지금은 딸 셋을 키우고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안양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만 스님께 꼭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언제 이렇게 정면에서 인사드릴 기회가 또 있겠나 싶은 마음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나를 만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이렇게 하면 간절하겠지만 스님들은 뭐 이 소리 들어봤자 남의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남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우리가 따로따로 먹는다고 하는 것도 공생으로 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체가 되는 거죠. 공생이 아니라면 공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리를 잘 알게 되면은 뭐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구신도고 새신도고 할 게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집안 가사에 이득이 되고 공덕이 가서 모두 세세생생에 겁나지 않게 사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불교라는 것은, 교는 삶이고 불은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나가는데도 그냥 사니까 사나 보다 하고 살고 계시지마는 전체를 본다면 너무도 천차만별이고 너무도 많아요. 갖춰야 될 문제들이요, 알아야 할 문제들이요. 가난하게 살든 밥을 못 먹든 냄비에 숟가락을 몇 개 꼽아놓고 잘 먹었다 하는 집안이든 잘 차려놓고 먹는 집안이든 간에 하여튼 이 공부는 꼭 하셔야만 되겠죠. 가난하면 가난해서 빨리 해야겠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래서 빨리 해야겠고 돈이 없다가 좀 생길만하면 쓸데가 자꾸 생겨서 없어지니 또 해야겠고 가정이 불편하니 해야겠고 어떤 거든지 부처님 법에는 거론이 되는 겁니다. 어느 거는 안되고 어느 거는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오십 프로 밖에는 모르겠죠.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난스럽고 어떻게 권리가 있고 어떻게 괴로움이 있고 이런 문제에만 끄달렸지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그거를 모르시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사시는 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잘 살고 편안하면은 과거에 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고 또 지금 고통스럽고 아주 고난스러우면 과거에 내가 참 못살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 지금이래도 알면은 미래에는 모두 자식들이 괜찮게 살게 되겠지. 그건 멀지 않은 겁니다. 자식들도 요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어떻게 하시고 전자에 선지식들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이런 거를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가난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 또는 가난하고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내가 발을 떼어놓고 사는지 떼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떼어놓으면서도 함이 없이 떼어놓는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내놓을 종자 자식들도 다 괜찮게 될 겁니다. 아마, 모두 학교 때문에도 애를 쓰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게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예전에 오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다가도 나중에는 자신들이 공부하셔서 병이 다 낫고, 또 나은 거는 둘째 쳐놓고 자손들이 공부도 잘하고 잘해나가고, 공부를 못하면 단돈 얼마가 됐든 정성을 들이시니까요. 그렇게 하더니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괜찮게 됐다고 고맙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뜻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자신의 뜻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소리 잘하죠. 전깃줄을 그쪽에서도 가져와야 이쪽에서도 이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앞으로는 살림하면서 살림이 도(道)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꼭 이 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관하는 거를 자세히 잘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자세히 이해가 가게끔 얘기 하실려면은, '우리 두 부부가 너를 위해서

발을 떼면서도 함이 없이 떼어 놓도록

누구나 에너지 창고 자불 지니고 있어

모습은 낳았지만 네가 태어날 때 과거의 네가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네 생명력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꼭 일러주시고요.

옛날에 어느 사람이 공부를 하러 절로 들어갔는데요, 공부를 하는데 강원에 가는 사람들은 학인이고, 선사들의 뒤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이죠. 그런데 스님들이 한 다섯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데도 있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끈 못 봤느냐? 새끼를 매놨는데 끈 못 봤느냐?" 그러니깐 "끈은 봤습니다마는 새끼도 보고 어른도 보고(대중웃음) 방에 앉아 계신 어른도 뵙고 그랬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놈 꽤 저거하구나 하는데 넙죽 넙죽 들어와서 앉으니깐 어떡합니까.

주장자를 때리는 뜻

그래서 "들어오지 못할 데를 들어왔으니깐 한번 맞아리" 하고 주장자로 한 대 치니깐 "아이, 그거 참 자리가 편안하더니 주장자가 들어오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제 주장자가 부족해서 스님이 주장자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섯 사람이 죽 앉았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저희는 지금 귀신 방구씨를 못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귀신 방구씨를 찾으러 왔어?" "예" "그거를 바깥으로 찾으러 다니느냐?" 그러니까 "바깥이고 안이고 간에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 귀신이 말을 하는데 여기 오면 귀신 방구씨를 찾는다고 그럽디다" "그 귀신이 말을 해?" 그러구선 또 잠자코 있더니 또 한 사람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귀신한테 여길 가면은 아주 기르기도 쉽상 좋고 아주 키우기도 좋고 참 좋은 데라고 그러면서 막아놨으니까 그걸 박차고 들어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들 들어가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이 네가, 거기 있는 사람을 한 명 부르더니만 "한 방망이씩 때려봐라, 매가 튀나 때려봐라" 그러니깐 그냥 한 방망이씩 가서 안기거든요. 한 방망이씩 안기니까 맞고 하는 소리가 "어이구!" 그러면서 "방구씨도 때리니까 아프네"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깐 "그럼 방구씨는 얻었구만." "아, 방구씨는 얻었는데 방구씨를 기를 줄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방망이 더 때려봐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면서 하는 소리가 합장배를 하고는 그냥 고요히 절을 하더랍니다. 절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절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고이 기르고 어떻게 먹여서 잘 기를 수 있나, 방구씨를 말입니다. 귀신 방구 씨를 얻기는 했는데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으며 뭐를 먹여야 하며 그거를 알려 갔는데 방망이로 때린다니까 또 한번 맞았더라면 좋을 걸 그런지는 몰라도 안 맞고 일어서서 곱게 절을 하더랍니다. 무슨 연고로 그렇게 곱게 절을 했는지 모르시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말을 올광갈팡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 말은 죄송한 말이 아닙니다. (대중을 향해서)

대중: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하다고 해서 털끝이 거기 붙을까요? 허허허...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든 막론해놓고 더불어 같이 부처입니다. 왜 부처냐, 자불을 누구든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바로 자불이자 불성이자 바로 주인공입니다. 주장자이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내 본 마음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소나무 가지를 잘라 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소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가장자리에 그거만 남죠? 그러면 소나무도 내 머리 자른 것처럼 아플 거란 말입니다. 아프고도 쓸모없이 되죠. 그래서 맨 끝에 가장구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구 하나 먹어, 이렇게 만났으니 인연인데 윗가지는 자르지 말고 아래가지만 잘라 먹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무가. 그래서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이럭하구선 잘라서 물을 빨아 먹을려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요. 가장자리 회초리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 속에 들은 하얀 그 물만 빨아먹고 물을 마시는데, 물을 막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세 모금만 마셔야지 더 마시면 안된다 이러거든요, 세 모금이란 뭡니까.

우리는 모두 탤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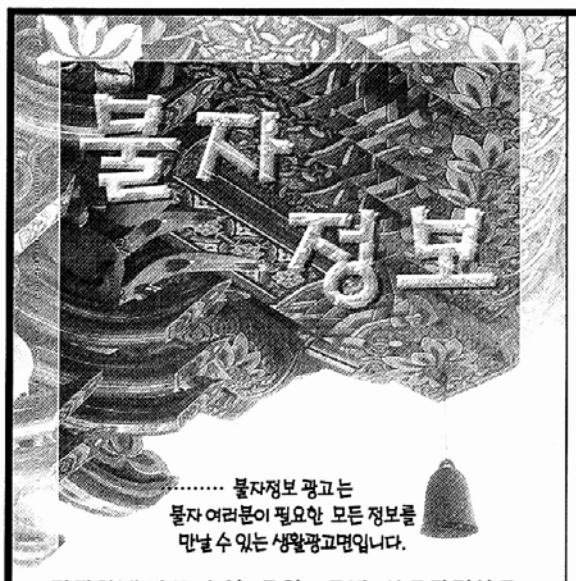
우주 삼세를 말해도 되고 삼일을 말해도 되고 그런 거죠, 삼년을 말해도 되고 삼십년을 말해도 되고요. 그렇게 된 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모금만 마시지 더 마시면 안된다고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고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 '야, 물도 살아 있고 우리가 물 볼 흙 바람으로 생명들이 돼서 모습들이 생겼지만 생명들이 생기고 모습들이 생겨서 하는 것도 이 지수화풍 때문에 모두가 먹고 살고 또 지수화풍을 먹고 사니까 그 이유를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모금을 한 모금으로 때웠죠, 한 모금을 먹고 세 모금이 다 들어갔네 하니까 삼세가 한꺼번에 들어간 셈이죠, 이렇게 들린단 말입니다. 뜻으로,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하나하나 배워나간 게 나중에는 다 터지는 것이 처음에는 견성이 되고 성불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한꺼번에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살아나가면서 하나하나, 먹는 것도 먹는 사이 없이 먹어지는 거로구나, 우리는 모두 탤런트 역할을 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런데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게 부족하지 않고 부족하고 하는구나, 이거는 누가 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끔 아무리 잘 살래도 안되는 거죠, 억지로는 못해요. 자기가 타고 나온 것을 가지고만 사는 거죠, 이천원 가지고 나왔다면 이천원만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공부는 이천원도 삼천원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전부 없어지는 거죠, 자유껏 사는 거죠, 그러니 자유자재하시고 잘 사십시오. 오늘 걸렁하게 말을 했다고 하지 마시구요, 걸렁한 속에 시원한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 법문은 2000년 10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강좌안내,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소재지 : 대구 ◁
011) 9729-8246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 약 830평
• 특징 :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각 30평씩, 방6개, 사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납골당불사주읍내 수재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으신 관계로
• 가액 :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 (인천 체인지에서 5분거리) 경관 수려하고 명당 임
• 부지 : 대지 300평 종교부지 800평 총 1100평
• 법당 : 목조 29평, 요사 30평
• 절충가액 : 7억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41) 557-8815

사찰부지 혹은 전원주택지 (급) 매매
• 위치 : 울산광역시 은양
• 부지 : 과수원 2600평 田 530평
• 임야 : 8천평 (준 농림지)
• 경관이 수려하고 전원 주택지 혹은 사찰부지로 즉지 임 대행 차량 진입 가능
• 가액 : 10억
011) 568-4417



• 산봉우리와 같은 이마
• 엄정스러운 눈
• 제멋대로 자란 수염
▣ 주문 신청 접수 중
▶ 가격 : 100,000원
액자포구 구입자 부담
Tel : 054) 284-4309
山僧 임학 畵伯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소재지 : 목포 ◁
061)464-3485
011)636-7022

포교당 안내
• 위 치 : 신도시 화정 전철역 (중심상가)
• 크 기 : 160.8평 (법당 80평, 방5, 명상실, 주방1, 욕실1) 시설 완비
• 가 액 : 답사 후 절충
017)353-2623
011)9118-8929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기곡 2리
• 평수 : 40평
• 가액 : 700만원
016)793-33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청주시 운천동
• 평수 : 65평, 방3개, 주방, 샤워실
• 특징 : 시설 A급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2)941-3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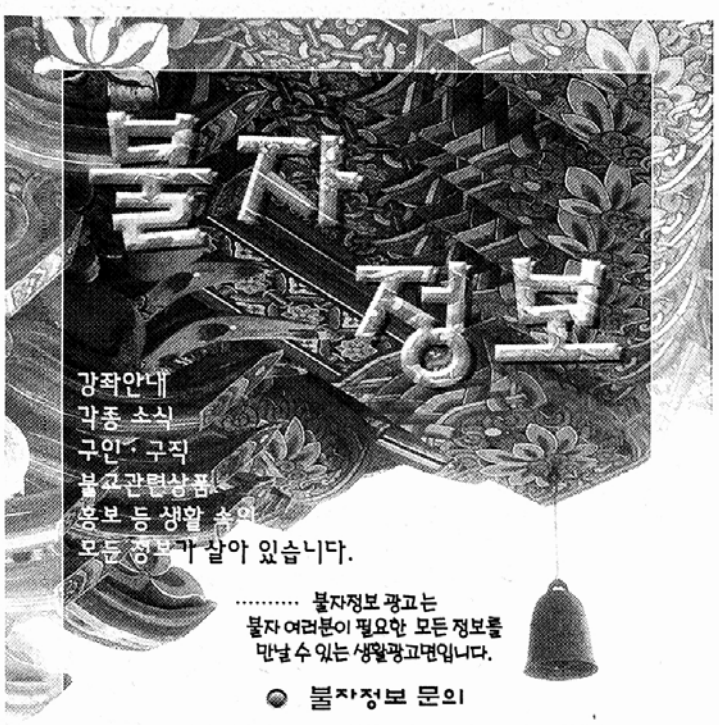
포교당 안내
• 위치 : 마아 3거리
• 평수 : 46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일체 무료
02)941-3195

탈종 공고
• 사 암 명 : 鍾修庵 (종수암) • 소속종단 : 대한불교 법화종
상기 사찰은 창건주 및 신도회의 결의에 의해 본사암은 금후 대한불교 법화종의 종지와 종풍에 따를 수 없어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삼편리 (종곡) 산 96-2
종 수 암
주 지 강 대 일 창건주 서 명 복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145-101호
• 평수 : 법당20평 방3칸 부엌
• 특징 : 시유지, 복지사업할 여건이 되어 있음
• 가액 : 전세 4천만원 월세 가능
031)868-0516
016)335-8257/011)335-4408

사찰 안내
• 위치 : 광명시 소이리 지하 자동차 공장 옆산
• 부지 : 750평 • 법당 : 주사포 목조 30평, 시설 A급, 지하 30평
• 요사채 : 목조 20평, 지하 20평
• 산신각 : 5평, 최공실 조립식 17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물 좋고 납골당 그린 시설 유지. 남서울 고속철도 터미널 공사중이며 서울시내 버스 124번 종점 5분거리. 차량 · 사찰까지 진입가능 주차장 40대분 완비
• 양도가액 : 13억 5천만원(운영하실 스님만 연락바람)
02)899-4281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대지 : 720평
• 법당 : 5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칠성각, 종각, 미륵, 요사채, 고시 공부방 (각각있음)
• 가액 : 3억 5천
011)675-9828
063)453-2970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건강기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 - 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 932-7252
011) 545-7252
김 창 본
처 사

보이산차
벽돌전차, 육보차
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도매가 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니다.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학생 시험 기도」
기승격원
※ 99년도 수능시험 100% 시험성적 향상!!
수능시험 7일전 특수 비방으로 처방하여
시험 성적 오르지 않으면 100% 환불해드림
秘法 ◎ 처방기도비 : 108,000원
(우주영감을 얻길) 성명, 생년월일, 전화 접수 후 우선
비방을 보내드림
卍지장 禪院 053)982-6778011)812-3679

수맥(水脈)강의 안내
- 과정:기초부터 강의 • 강사:유준혁(수맥전문가)
- 과목:수맥 양택 음택(수강료6개월 5만원)
- 시간: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
- 본회연혁: 1983년 국내 최초로 설립
2000년 9월 현재 3,500여명 수강
- 위치:지하철7호선 상도역 1번 출구30m

직전 기아 자동차 옆 순천향회 세종수맥학회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잠을 자거나 공부하면 건강이
점차 악화되며 정신력이 약해지고 우기력해 집니다.
문의:02)817-9996
www.suyo.co.kr

명예인 성공인 승진인 시험관인 영응인
▷ 주문시 팩스로 성함과 원하시는 서체를 적어보내 주시면 7일이내 우송해드립니다
FAX:983-9223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버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사업성공, 건강 ▶부부화합, 승진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결혼성공, 득남득녀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30명에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주부사원 모십니다.

모집부문	인 원	자 격
영업팀장	0명	불심있는
영 업 직	00명	보살님 환영

02)737-6334
성창 보석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불상(佛像) 시주할 인연 구합니다
▶ 사정상 못 모시는 불상 탱화
▶ 인연공덕을 지으실 분 연락 주십시오
053)985-4675
018)512-554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16)249-697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02)888-3393

사리함(石)
- 크기 : 38×22Cm
- 연대 : 신라시대 추정
- 사리 : 18과

토굴 불사에 조금 도와 주시면
진귀한 보물을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사진 우송해드립니다.
(053) 985-4675 017-511-4675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공양주 및 종무원(여) 구합니다.
▷ 나주 불회사 ◁
061)337-3440
337-3446

인연있는 사찰을 찾습니다.
▷ 부전 · 기도 스님 ◁
011)337-5009

부전 스님 구합니다.
◆ 50세 이하 ◆
051)508-6779
051)508-5165

조용한 사찰에서 같이 기도하실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011)562-5556
052)254-2427

공양주 보실님 구합니다.
▷ 소재지 : 울산 ◁
052)211-1009

도심 포교할 스님
3만여 세대가 넘는 신시가지에 위치한 시설 최상급 포교원입니다. 현재 5백여 세대가 등록되어 있고 법회가 진행중입니다. 유학관계로 운영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보증금:삼천만원(45평)
위 치:광주 광역시
011)320-854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877-7514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 맞은 편)
- 평수 :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천만원
- 특징 :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3개)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2자 반 칠성 부처님 3자반 후불탱화 53부처님 지장전 문수보살
053)565-0430/016-875-0934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
- 대지 : 500평
- 건물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1억 3천만원

016)501-3671

사찰 부지
▷가평군 북면 백득리 산 27번지 외 두필재
임야 : 17,500평 (준농 약 12,000평)
가액 : 8억 5천만원
▷홍천군 서면 모곡 인접
임야 ; 20,800평 (준농)
가액 : 9억
▷양평 서정 명달
토임 : 도필지 630평
가액 : 1억 3천만원
011)380-9168/011)229-113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 본동 고강시장 입구
- 법당 : 32평3층, 삼존불, 신중, 칠성, 후불, 산신
- 즉시 법회가능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35만원

금강 선원
032)678-7464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군포시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 건평 : 120평
- 불기구 5천만 무상 제공 (포교원 최적)
- 용자 포함 매 5억 2천

사정상 급매
031)454-1133
02)386-6467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동
- 법당 12평, 요사, 방 2개, 주방, 마당 50평
- 특징 : 40년된 절
- 가액 : 4.000만원 보증금 월 50만원

02)853-8612/856-3405

좋은 위치의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 : 부산 광역시 만덕 3동
- 면적 : 3층 40평(옥상 사용 가)
- 시설 : 법당, 주방, 대방, 중방, 화장실

051)333-0172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430평 임법당 32평
- 가액 : 1억 9천

-강릉 고찰터 천평 3천만원 급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 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명일역 부근
- 구조 : 3층건물 3층 30평 (법당, 방2개, 주방)
- 가액 : 보증금 1,500 월 50만원
- 시설비 : 절충

02)481-4483

사찰 안내
- 위치 : 은평구 응암 4동 (대림시장옆) 2층 35평
- 석가모니불,지장,관음(동불조성),후불,신중, 칠성탱화,대북,범종,(불단조각,단집)경탁,경상, 영가단 및 법당내부단청했음. 대형에어콘설치
- 법당1 스님방1 상담실1 주방 및 방1 화장실 및 욕실1 뒤베란다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가액 : 보증금 2천 월 40만원 시설A급 시설비 별도 절충가

011)685-8484/02)376-818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소재
- 대 지 : 200평
- 법 당 : 25평 (목조)
- 요 사 : 35평
· 신세종은 기도정진 도량임
· 치량진입 함
- 양도가 : 2억 8천만원
- 위 치 : 경기도 장호원 소재
- 부 지 : 1,800평
- 법 당 : 50평
- 영부전 : 50평
- 요 사 : 150평
· 넓은 주차장 있음
- 양도가 : 9억 (분할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 국 불 사**
02)561-7791
018)273-939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양양
- 법당 : 10평(목조)
- 요사 : 20평
- 부지 : 1,600평
- 가액 : 1억 9천

- 위치 : 충남 연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9천

- 위치 : 경기 이천
- 법당 : 26평(주삼포)
- 지장각 : 12평(목조)
- 요사 : 35평
- 부지 : 250평
- 가액 : 2억 8천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보성
- 부지 : 4500평
법당, 목조건물 29평, 요사 50평
◆문화재 있음
- 가격 : 4억 5천만원

011)678-7691

지리산 시조암 선원 신축 안내
- 위치 :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채마을 위
- 대지 : 422평황토방 한옥건물 2채 탑 둘레 18m 석축 기초완공 밭 348평 임야 2583평 총3,353평
- 특징 : 경관수려,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약 600고지,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2억 3천, 전세 1억

011)9542-9060/055)963-4965

사찰 안내
- 위치 : 삼천포 와룡산 (진주 30분)

산세수려한 임야 4500평(밭1500평 단감 4500평)속에 조경양호한 건물 2동 80평 인법당 방8 거실1 욕실3 연못2 수질최상 마당까지 4m도로로 포장 주차장 100평 평당 27000원 (총 1억 2천) 절충 가능

055)746-2478
011)830-288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방동 신대방3거리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옆
- 구조 :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 보증금 5천만원(월60만원)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공원 입구
- 구조 : 52평 한옥건물 2채
- 특징 : 불교용품점 운영 가능
-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42)253-5037/016)327-5037

토굴 안내
- 위치: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117-8번지 구덕마을 이장집 뒷집
- 대지 :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샤시 축사 천연 암반수 물
- 가액 : 3천만원 (가격 절충)

019)545-2962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용담댐 유원지 內
- 특징 : 자연 석굴법당 전북 제일 기도 도량
- 대지 : 종교용지 500평, 전 60평
- 건물 : 목조기와 25평 50여대 주차 가능
- 가액 : 2억

011)9646-580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최 요지
- 垈 : 250평 이상 建 : 120평 이상
- 법당 : 50평 포교당 최 적지
- 가액 : 답사후 결정 부산시내 사찰허가 있음
- 垈 : 1,300 평당 50만원

051)208-1122
011)874-8122

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치:서울 중랑구 신내동
- 평수:40평, 4층건물 4층 방2 주방1 (주차장)
- 가액:보증금 1,5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3,000만원(법당시설 완벽함)
- 특징:주변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지역 도심포교에 적합함

사찰 양도 · 인도 할분
◎ 대구 남구청 인접 최요지
◎ 대지 67평 건물 육곡 한옥 30평
◎ 구 정법사 포교원 요지
◎ 1억 2500만원 (절충 가능)



◎ 토굴, 암자, 포교당
◎ 양도, 운영 할 분
◎ 요양지, 처음 사찰 운영 할 분 환영

사찰, 창건 지도 봉사, 편의 제공 사찰정보 : 053) 982-6778 핸) 011-813-3679

사찰 안내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321-47호 2층 상원사
- 법 당 : 40평, 삼존불, 삼선각, 방 2개, 주방, 욕실
- 보증금 : 1,5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2)521-7513
018)385-1234

토굴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상동면 조일리 보삼마을
- 평수 : 150평, 옛집 2채
- 가액 : 3천 7백 5십만원 절충 가능

051)508-6779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중고 태호동 오일시장 대로변 동강병원 2분거리
- 구조 : 2층 건물 2층 30평(법당, 방 2개) 비구니, 무속인, 철학하시는 스님 적합
- 시설 : 아미타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절충

011)874-4567

전망좋은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남 함양 송계면 서하리
- 가격: 토굴터 347평, 700만원
- 특징: 도로,평토,측량,전용허가 완료
- 위치: 상동

절터 5000평, 평당 2만원, 도로 완비

055)963-3068
017)301-1970

사찰(급)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 대지 : 60평
- 건물 : 1층 요사 36평 2층 법당 25평

011)234-5967

사찰 안내
- 위 치 : 강원도 원주시(치악산)
- 부 지 : 대지 204평 田 110평
- 건 물 : 방 4개 25평 법당 10평 산신각 3평 창고 有
- 특 징 : 계곡 있고 산세 수려 함 교통 편리
- 가 액 : 1억 2천

031)575-5831
017)378-8380

사찰 안내
- 위 치 : 대전 보문산 케이블카 입구 위로 700m거리 산밑에 위치
- 건 물 : 임법당15평, 방 7개, 사무실, 산신각, 주방, 화장실 2개, 건평 40평 대지 100평 국유지(사용허가 필)
- 특 징 : 부처님 3분, 탱화, 호신불 108분 모셔져 있음
- 가 격 : 4800만원 부처님, 탱화등 빼고 3800만 (매매) 세 가능

042)255-5063/011)498-6694

포교원 (급) 안내 (합 800만원)
- 보증금 4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설비 400만원
- 위 치 : 서울 마포구 망원2동 474-15 (2층건물에 2층)
- 평 수 : 20평 (6호선개통지역) 방1, 부엌1, 법당1

02)332-3726

포교도량된 성철스님 생가

산청 묵곡리 겁외사 3일 봉불식

20일 유물관 개관 노트등 유품 전시

성철(性徹, 1912~1993) 큰스님의 생가터가 수행과 포교공간으로 조성됐다.

성철스님문도회(대표 원택)는 성철스님의 생가터인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3천여평의 현지에 스님 생가와 유물전시관, 사찰 등 종합적인 수행과 문화공간 불사를 추진해 3일 1차로 겁외사 대웅전 비로자나부처님 봉불식을 거행하고 일반인을 맞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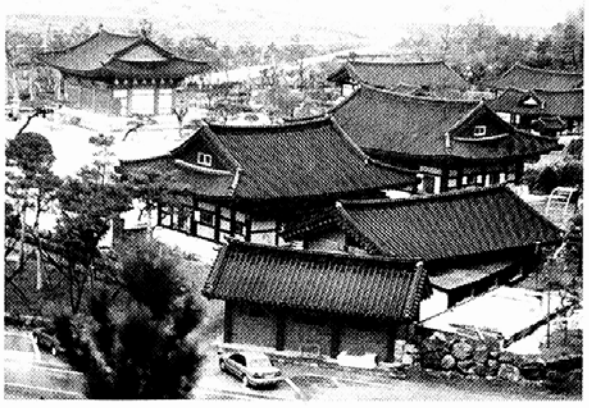
겁외사는 '시간밖에 있는 절' '시간을 초월한 절'이란 뜻으로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지어 놓았던 것. 겁외사 대웅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김호석 화백이 배채법으로 그려낸 성철스님의 진영이 함께 모셔져 시간을 초월해 생가에 돌아온 형형한 눈빛의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이달 20일경이면 일반에 공개되는 유품전시관은 백련암에 보관돼 있던 성철 스님의 노트 안경 연필 고무신 지팡이 등이 전시되어 스님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39권의 크고 작은 노트와 메모들은 법문에 앞서 교학적 이론을 정립한 스님의 꼼꼼한 성품이 배여 있고 스님께서 남긴 몇 점 안되는 유품은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스님의 할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스님의 친필로 쓰여진 4·8봉축 법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는 스님의 생생한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전시품으로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하루 3-4대의 관광버스가 찾을 정도로 성철 스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성철스님문도회 대표 원택스님은 "생가와 겁외사를 전체적으로 기념관으로 꾸며, 단순한 생가복원이 아닌 스님의 뜻과 가르침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생가터에 건립된 유물전시관, 안채, 사랑채는 스님의 일상과 인간적인 면모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석하던 백련암 방 모습과 사용하던 의자, 책상 등이 전시되며 대웅전 요사채 선원 누각 등을 갖춘 겁외사는 수행과 불법홍포의 공간으로 꾸며졌다.



◇성철스님 열반 7년만에 수행·포교공간으로 거듭난 성철스님 생가터에 들어선 겁외사 등 건물 전경.

성철스님 문도회는 3일 봉불식, 20일경 유물전시관 개관에 이어 내년 3월 30일을 기념관 불사 회향일로 정하고, 이날 동상제막식과 불사 회향식을 함께 봉행 할 예정이다. 산청=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일염원 팔관회 재현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10월2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민족통일과 부산발전 기원 팔관회를 봉행했다. 이번 팔관회에서는 고산 전 조계종 총무원장스님, 성오 부산불교연합회장스님, 안상영 부산시장,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고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팔재계가 설해졌다. 특히 행사기간 중 각 사찰단위에서 한끼식의 금식으로 모은 자비의 쌀 72포대를 부산시에 기탁하기도 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구 갓바위 축제 성황

'제3회 갓바위 축제'가 4·5일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일대에서 펼쳐졌다.

경산지역의 명소로 보물 제431호인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한 이 축제는 4일 갓바위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최희욱 경산시장을 비롯해 주민 ,관광객 등 3,000여명이 참석하는 경축식을 시작으로 '찬불가요 음악회'와 산신축원, 천왕·도당·장군굿거리 등이 열렸다.

5일에는 갓바위주차장에서 파계사 성전암 주지 철웅스님 초청법회와 유명 인기 연예인 공연 등이 마련됐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장경사 송전탑 철회"

스님·신도 3백여명 과천청사서 시위

국정원과 천주교의 반대에 밀려 최적 노선을 버리고 용인 장경사(주지 정휴) 주변을 지나는 송전탑 건설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의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관련인터뷰 4면>

스님 20여명과 신도·지역주민 300여명은 10월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원칙한 정부정책과 장경사 노선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사진>를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어 7명(스님4명 주민3명)의 대표단을 선정, 산업자원부 이유종 서기관과 한전의 담당 소장을 만나, '2차례에 걸쳐 노선을 변경한 원칙을 밝히고 노선안 변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종교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공개하라는' 등 9개항의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면담에서 주민들은 "국정원과 천주교의 민원은 수렴하면서도 장경사와 학일리 주민들의 민원은 무시하는 이유를 대라"며 항의했으며, 이에대해 산자부는 "민원 때문이 아니라 건설비용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전 윤영순 중부건설소장 등 관계자는 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만나 불교계의 문제제기를 님비현상으로 폄하한 것에 사과하고, 장경사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송전노선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태고스님 탄신 700돌 행사 다채

사나사 기념관 건립·세미나·다례제 준비

신라와 고려를 이어온 선문구산을 하나로 통합한 원증국사 태고보우 스님. 내년이면 태고 보우 국사가 태어난 지 700년이 된다.

태고 보우 국사 탄신 700주년을 맞아 태고 보우 국사를 기리고 그 사상을 이어가기 위한 '원증국사 태고 보우 탄신 700주년 기념사업회'가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내년 2월 창립 예정인 기념사업회는 태고 보우 국사 부도탑과 탑비가 있는 사나사 주지 화암 스님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탄신일인 음력 9월 21일에 맞춰 학술 세미나, 다례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봄·가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보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한국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스님이 탄생한 경기 양평과 출가지인 양주 회암사, 열반지인 가평 소설암터 등 관련 유적지 지표조사와 학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학술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기념사업회 준비위는 10월 28~29일 내년 본격적인 기념행사를 앞두고 태고 보우 스님 관련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다. 스님의 탄생지인 양평을 중심으로 출가지인 양주 회암사지, 열반지인 가평 소설암지 등을 둘러봤다.



사나사 주지 화암스님은 "작년 겨울 처음 사나사 주지로 부임했을 때 태고 보우 국사의 부도탑과 탑비 등 관련 유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고<사진> 놀랐다"며 "보우 스님은 한국 불교계의 큰어른임에 틀림없다. 큰스님의 수행과 업적, 그 발자취를 살펴보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한·일 가톨릭주교 24명 통도사 저녁예불 참관

한일 천주교회 주교 24명이 8일 통도사의 저녁예불을 참관한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7~9일 경남 양산의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에서 제6회 한일주교 교류모임을 갖기로 했으며, 이 기간중 양산의 대표적 사찰인 통도사를 찾아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96년 처음 열린 한일주교 교류모임은 한일간 골깊은 갈등구조 해소에 천주교회가 나서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양국의 역사연구와 사목 정보교환, 한일 청소년 교류 지원에 힘써왔다.

이번 모임에 한국측에서는 박정일 주교(한국주교회의 의장·마산교구장) 등 15명의 주교가 참석하며 일본측에서는 시마모토 카나메 대주교(일본 주교회의 의장) 등 9명의 주교가 자리를 함께 한다.

참석 주교들은 '한일간의 문화적인 관계와 교류'(한림대 지명관교수)와 '한일문화의 동질성과 이질성'(다타카 유코 교수)을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통도사와 김해박물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다정)는 '가자! 겨울 산사로 참나(眞人)를 찾아서'란 주제로 '참사람 수행결사(수련회)'를 개최한다. 제26차 수행결사는 12월 18일~12월 22일, 제27차 12월 28일~2001년 1월 1일, 제28차 1월 8일~1월 12일, 제29차 2월 3일~2월 7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는 20세이상 65세 미만, 남녀 각 23명이며 동참금은 7만원이다. 신청마감일은 11월 15일. (061)392-7502

전문상담사 6명 위촉

부산경남포교사단(단장 황소성) 생활상담실은 법률상담 우삼원 법무사, 세무회계 김종학 회계사, 부동산 분야에 홍응표 공인중개사 등 6인의 포교사를 전문상담사로 위촉했다. 지난 7월 문을 연 생활상담실은 일반 불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공해 왔다. 상담을 전문포교분야로 하는 여여회 진여회 회원을 위주로 가사 상담 17건, 불교신행상담 12건, 청소년 상담 7건, 법률 상담 7건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다. (051)867-7799

분담금납부 법개정안 제출

총무원은 분담금 미납사찰주지에 대한 벌칙 강화, 분담률에 따른 사찰 등급 세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개정안을 마련, 1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찰주지가 임기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권리를 제한한다. 미납 분담금에 대한 가산금(10%)은 삭제한다.

말사에서 본사에 납부하는 교구분담금은 중앙분담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토록 했다. 현행 법에는 150%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태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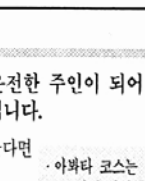
영락사 원통보전 준공

도계 영락사(주지 덕진)는 17일 오전 10시 원통보전 낙성 및 관음불상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33)541-0340.

18일에는 안동시 신세동 해동사(주지 진강)가 1553존불 점안식을 봉행한다 (054)852-6320.

진각종

부산에서 밀교대법회



총금강회 부산지부는 혜정 대정사(종학연구실장·사진) 초청 밀교교리 대법회를 17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051)464-0668

남천심인당 개시불사

대전시 동구 대1동 남천심인당이 10월 23일 개시불사를 봉행했다.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 일정 교육원장, 휴명 대전교구청장 등과 신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개시불사에서 성초 통리원장은 봉행사를 통해 "남천심인당이 개시불사를 계기로 대전지역에 육자진언 수행의 진리를 전파하는 또 하나의 도량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남천심인당에는 대전교구 연합 심인합창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대전지부,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대전지부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법왕종

청송감호소 위문법회

총무원 부원장 만오스님(포항 용주사 주지)은 8일 신도들과 함께 청송 제1감호소로 위문법회를 떠난다. (054)278-8787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동자승의 세계(大·小)


산사의 향기(大·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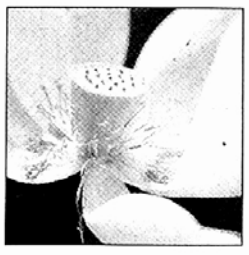

연화의 세계(大·小)


탑이 있는 풍경(大·小)


산사의 꽃향기(大)


신비의 달마도(小)


석 굴 암(小)


백 련(小)


북한의 사찰(小)


선의 세계(小)


금강산의 사계(小)



■ 사진 : 안 장 현
산사의 향기, 탑이 있는 풍경, 선의 세계, 석굴암은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현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원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겁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 작품집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의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문으로 있다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5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 대(30×31cm) 국6절, 가격 : 1,600원
소(26×26.5cm) 사륙12절, 가격 : 1,400원
■ 매 수 :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 100부 이상
■ 미니 차걸이 달력은 200부 이상

8절 대지 마닐라(14매)



◈ 종 류 ◈
1. 미소동자
2. 지혜동자
3. 천진동자
4. 동심동자
5. 환희동자
6. 홍련
7. 백련
8. 금강산 보덕암
9. 해금강 일출
10. 묘향산 보현사 일출
11. 금강산 표훈사
12. 만다라
13. 금산사 미륵전
14. 탑이 있는 풍경
15. 석굴암
16. 낙산사 해수관음
17.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불
18. 보리암 해수관음
19. 달마도







미니 차걸이 달력 ➡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제작문의 : (02)723-4306 팩스 : (02)738-8682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재소자 100명에 불교공부 장학금"

교화복지선도회 50여 교정기관에 공문…불교교육대도 학비감면

교도소, 감호소 등 전국 교정기관에 '불교공부' 바람이 불 전망이다. 12년간 재소자 교화에 앞장서 온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가 한국불교교육대학과 함께 재소자들의 불교공부를 돕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차원의 재소자 포교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이사장 혜철스님은 이달 중순까지 전국 50여개 교정기관에 공문을 발송,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재소자 2명씩 추천 받아 모두 100여명의 재소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불교공부를 시킬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각 교정기관의 불교담당 교도관들도 원할 경우 재소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불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등록 사단법인인 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는 이미 지난 5월부터 성동구치소, 청송교도소, 안양교도소, 청송 제2감호소 등의 재소자와 감호자 13명을 한국불교교육대학(학장 김공철)에 입학시켜 장학금을 지급하며 불교 공부를 독려해 왔다.

이같은 방식은 수계식, 법문, 경전 보시, 위문공연 등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재소자 포교프로그램과는 달리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하고, 이를 통해 다져진 신심으로 출소 후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소자 포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13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은 1인당 24만원. 2년 과정의 한국불교교육대학 학비의 절반을 불교교화복지선도회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한국불교교육대학이 감면해 주고 있다. 불교교육대학측의 학비 감면은 혜철스님의 요청에 김공철 학장이 흔쾌히 응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방식은 2년 과정을 1년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신분상 통신으로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매달 교육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두 달에 한 번씩 평가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지와 답안지 역시 우편으로 주고받는다.

특히 시험에서 평점 90점 미만(B학점)은 1만원, 80점 미만(C학점)은 2만원을 자비부담토록 해 학업의욕을 높이고 있으며, 매달 '인연' '연기' '불성' 등 불교와 관련된 주제를 주고 논문(작문)을 작성토록 해 이들의 실력과 신심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혜철스님은 "재소자나 감호자들이 불교공부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출소해서도 참불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장학금 지급 인원을 계속해 늘려나갈 것이며, 재정확보를 위해 1재소자 1후원인 자매결연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석왕사 장례의례종합법당이 3일 개관식을 갖고 문을 열었다. 장례종합법당은 장례문화정착과 불교 포교에도 기여하게 된다.

석왕사 장례종합법당 개관

월 200건 의례가능
"불교장례문화 선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장례의례종합법당이 건립됐다.

97년부터 불교계 사찰로는 유일하게 장례예식장을 운영해왔던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경내에 장례의례종합법당을 완공,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종회의장 지하스님, 주지 영담스님, 지역기관장과 신도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개관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관한 장례의례종합법당은 연면적 310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하에는 동시에 10구를 안치할 수 있는 안치실과 참관실, 입관실, 예식실, 사무실, 신행상담실이 배치돼 있으며, 지상 4층에는 분향실, 유족 휴게실, 조문객 접객실 각 8개소, 휴게실, 남녀화장실 각 4개소 등이 들어서 있다.

월 최대 장례가능 건수는 200건으로 하루 평균 7건이 가능하며, 내년 말까지 3300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당도 들어서게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장례예식장은 60평 규모에 장례가능 건수도 월 50건에 불과해 밀려드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장례의례종합법당은 기존의 장례서비스에만 국한됐던 데서 벗어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포교를 위해 신행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명실상부한 장례의례종합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석왕사 장례예식장은 시중과 비교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장례비용과 웃돈거래 근절 등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다. (032)6673-404 한명우 기자

화계사 수유1동 성당 송암교회

난치병 어린이돕기 11일 바자회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가 한자리에 모여 손을 맞잡고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화계사(주지 성광), 수유1동 성당(주임신부 이종남), 송암교회(당회장목사 박승화)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한신대 신학대학원 운동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사랑의 바자회'를 연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8월 성광스님과 이종남 신부, 박승화 목사가 만나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연합바자회를 열자는 의견을 모아 이뤄진 것.

종교연합 바자는 각 종교별로 품목을 분담해 준비한다. 화계사에서는 국수·전·호박죽·식혜 등 전통음식을, 수유1동 성당과 송암교회는 어묵·김밥·커피·떡볶이 등을 맡는다.

그러나 음식 및 기부물품 판매는 종교별 구분없이 코너별로 통합배치돼 운영된다. 화계사가 준비하는 전통음식의 경우 3개 종교 신도 6명이 공동판매하는 식이다. 종교연합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염주나 십자가 등을 착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특이하다. 대외적인 명칭 순서를 정하는 데도 서로가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감동을 주었다.

이날의 수익금은 최근 강북구 소재 어린이집 주최 바자회에서 모금한 450여만원과 합쳐져 암·백혈병·심장병 등 난치병과 싸우는 어린이 환자 14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화계사 현성스님은 "이번 바자회를 계기로 종교간의 대화와 불우이웃을 돕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물품 또는 성금을 기탁하려면 화계사(02-902-2663) 수유1동 성당(02-945-2124) 송암교회(02-906-4555)로 문의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새생명심기 2000 행동'
낙동강 생태계 복원운동

낙동강의 생태계와 생명문화를 되찾기 위한 '새생명심기 2000행동' 행사가 시민과 환경단체 주관으로 10월30일부터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낙동강 발원지인 황지에서부터 낙동강 하구언까지 1300리에 걸쳐 펼쳐진다.

이 행사에는 부산 대구 안동 태백 문경 등 낙동강주변 17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전국습지보전연대 등 14개 환경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1단계 버들심기 행사로 낙동강유역 버들심기에 이어 2단계인 가꾸기행동은 내년 4월, 3단계인 함께 지키기 행동은 내년 5월까지 진행하고, 3단계 행사가 모두 끝나면 낙동강 유역의 각 학교와 환경 사회 문화계가 참여하는 '낙동강 생명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051)583-0481 김재경 기자

"노동력을 교환하라"
지역통화운동 첫 워크숍

지역통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처음으로 열렸다.

불교환경교육원과 미내사클럽은 2-3일 서울 길동 두산연수원에서 '지역통화운동(LETS)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창우 연구원(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이 '대안공동체운동과 지역통화운동의 세계적 현황', 이득연 소비자보호원 연구원이 '지역만들기와 지역통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이원규 미내사클럽 사무국장이 '한국의 지역통화운동의 일점돌파를 위하여'를 각기 발제했다.

지역통화운동은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노동력을 교환하는 대안화폐운동이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

봉은사 '가족축원 CD롬' 인기

"불제자 조정민은 외국 유학에서 몸 건강히 학업에 열중하고 귀국해서는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봉은사 신도회장 조선환(52) 거사는 얼마전 스님이 직접 축원해주는 내용을 담은 '가족축원 CD롬'을 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보냈다. 이 '가족축원 CD롬'에는 "봉은사 사부대중이 화합하게 하고, 큰 사찰을 짓겠다는 서원도 이루리라"는 자신에 대한 축원도 스님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봉은사(주지 원혜)가 지난달부터 제작에 들어간 '가족축원 CD롬'이 불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가족축원 CD롬'이란 신청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축원 내용을 법회내용과 함께 그대로 담은 것. 즉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독경, 설법, 발원문 낭독, 축원, 사홍서원, 산회가 등 일반적인 법회의 내용이 그대로 담기며, CD롬을 신청한 가족들에 대한 스님의 축원이 불자들이 원하는 대로 덧붙여진다. 시간분량은 1시간 정도며, 가격은 장당 1만5천원.

사찰에서나 느낄 수 있는 법회 분위기를 집에서도 그대로 되살릴 수 있는 데다, 또 가족에 대한 축원을 되새기며 가족애를 높이고 신행생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3개월여 만에 신청자가 6백명을 넘어섰다.

(02)516-5652 한명우 기자

낙동강 도보순례단 안동 등 거리캠페인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 낙동강도보순례단(단장 수경스님)은 10월30일 오전 11시 안동시내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 행사에는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 유재현 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낙동강환경연구센터 김성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도보순례단의 경과보고와 낙동강 살리기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거리캠페인은 오후 2시 봉화군에 이어 오후3시 영주시에서 열렸다.

낙동강환경연구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물을 '많이 만들어 많이 사용하는' 경향에 대한 개인의 자각이 없다면 그 어떠한 정책도 유효할 수 없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현 상임집행위원장은 "낙동강·지리산댐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자원정책·에너지정책·산업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지역과 함께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몫을 열심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후 낙동강 도보순례단과 송리원댐반대 영주·봉화 투쟁위원회 소속 200여명은 가두캠페인도 벌였다. 김재경 기자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뚜껑과 네 다리를 지닌 보기드문 양식으로 백제 미술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국보급 금동향로 출토

익산 미륵사지서…통일신라 유물 추정

익산 미륵사지에서 백제말~통일신라 초기(7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급 금동향로가 출토됐다.

금동향로는 다리, 몸체, 뚜껑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높이 29cm, 너비 30cm로 지난 93년 충남 부여에서 발굴된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와 비교해 절반 정도의 크기에 소박한 모양을 갖췄다.

향로 뚜껑에는 8개의 연꽃 문양이 돋을 새김돼 있으며, 4개의 구름문양이 뚫음 새김돼 있다. 또 사자상의 네 다리가 몸체를 받치고 있고 다리 사이에는 귀신얼굴 모양의 손잡이 장식 4개가 달려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노기환 학예연구실장은 "반구형 뚜껑과 4개의 다리가 달린 향로는 매우 드문 것으로 백제지역 미술사와 금속문화연구 등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의식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벗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인국·아바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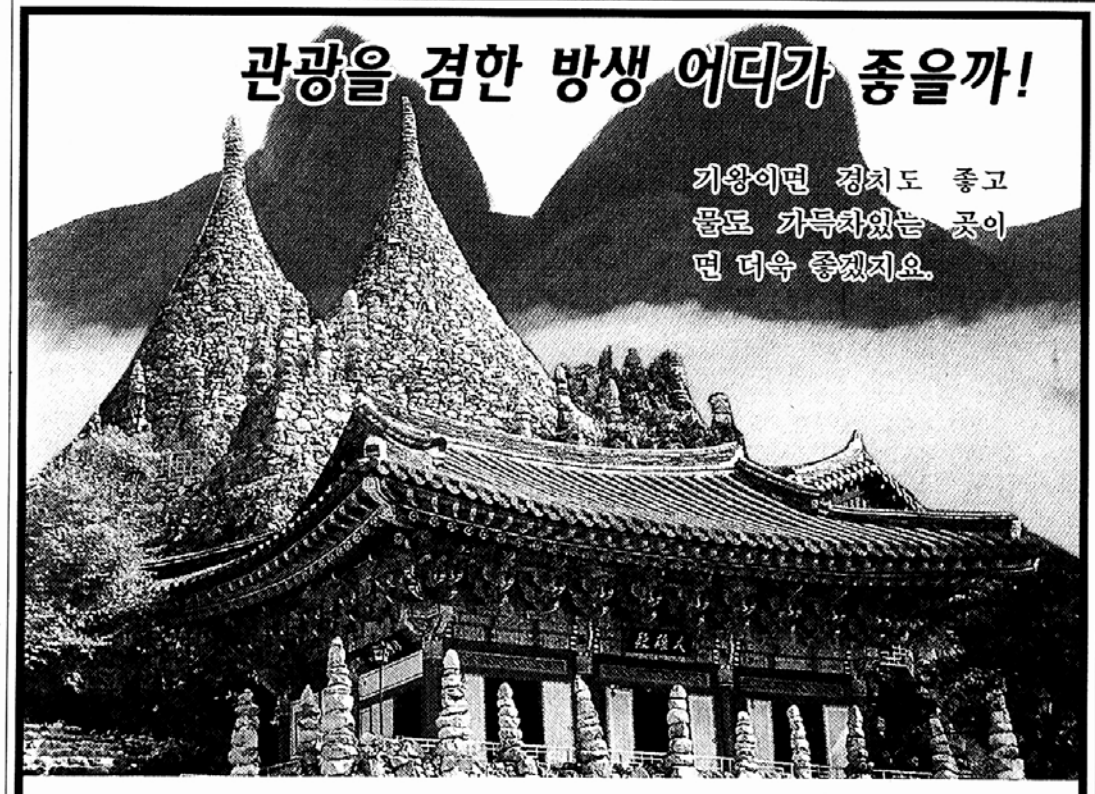
연락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3)433-2900, 0303

432-0652, 0072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4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태아영가의 천도는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수 있는 기도방법
⑫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들의 군무' 장관



◇수백년간 바람과 한몸을 이룬 탓에 특이한 모양이 된 주목들.



◇달빛에 잠긴 소백산의 밤. 국망봉에서 비로봉 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백두대간 속으로 〈24〉

소백산(죽령→고치)

죽령엔 향가 인물 죽지랑 탄생 설화

비로봉~상월봉 억새길 천국 거닐듯

참으로 빼어난 것일수록 평범해 보이고, 꽉 찬 사람일수록 낮아보인다고 했던가? 잎사귀 다 내려놓은 나무들 사이로, 달빛 넉넉히 내려앉는 소백산의 자태가 딱 그랬다.

결코 낮지 않은 높이(1439.6m)임에도 저홀로 우뚝함을 자랑하지 않고, 당당한 체구를 지니고서도 주위를 압도하지 않는 산. 소백산은 그런 산이다. 그래서 '소백'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 군자처럼 자신의 이름에 '작을 소(小)' 자를 앞세운 것인지도 모른다.

최고봉에 '비로'라는 이름을 단 산은 더러 있다. 익히 아는 산인 치악산과 금강산도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은 '비로'다. 그런데 1만 2천 봉우리로 널리 알려진 금강산과 원만한 형태의 몇 개 봉우리로 이루어진 소백산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데, 이는 일체의 존재를 '진리의 몸'으로 파악하는 비로자나 즉 법신불(法身佛)의 세계에서는 이(理, 본체)와 사(事, 현상)가 궁극적으로 하나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죽령(689m)에 선다. 달뜰이 전의 어스름이 빛과 사물의 경계를 흔드는 시간이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의 경계에 선 죽령은, 문헌 기록상으로 포암산 아래의 하늘재 즉 계립령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고갯길이다. 삼국사기 제2권 신라본기 제2를 보면 "아달라이사금 5년(158) 봄 3월에 죽령 길을 열었다"고 적혀 있다. 하늘재는 그보다 2년 앞서 열린 고개다.

삼국유사에도 이 고개에 얽힌 얘기가 전하는데, '모죽지랑가'라는 향가로 우리들의 귀에 익은 '죽지랑'의 탄생 설화가 그것이다. 신라 진덕여왕 때의 사람인 술종공이 삭주도독사가 되어 임지로 가던 중 죽지령에 이르니 한 거사가 고갯길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 받은 바 있는데, 한달 후 그 거사는 죽어 술종공의 집에 환생했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죽지(竹旨)'라 했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

또 이 고개에는, 어느 도승이 고개가 하도 가팔라 대지팡이를 짚고 오르다 마루에 이르러 지팡이를 꽂은 것이 살아났다는 전설이 전하지만, 지금은 그런 운치와는 거리가 먼 유행가 자락만이 요란한 시끌한 고개가 된 지 오래다.

죽령의 불빛이 아슴해질 무렵, 달이, 그것도 꽉 찬 달이 뭉싯 솟는다. 문득, 서거정이 읊었다는 싯구 하나가 떠오른다. (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한 구절을 옮겨본다.

"소백산이 태백산에 이어져, 서리서리 백 리나 구름 속에 꽂혀 있네."

그러나 지금은 달 좋은 밤, 서거정의 구름은 흔적도 없고, 달빛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 예인 양 메마른 시멘트 포장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산 좋은데 물까지 좋은 곳 드물고, 더하여 인심까지 좋은 곳 더욱 귀하다는 말도, 기실은 사람들의 끝간 데 모를 욕심에서 나왔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달빛에 별빛이 녹아버렸다는 사실은 진한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제2연화봉(1357.3m)을 지나 천문대의 불빛이 보이자 그런 생각은 더욱 간절하다. 1973년에 세워져 우리 나라 최초로 직경 61cm의 반사망원경이 설치된 소백산천문대. 그 옛에서라면 맨눈으로라도 멋진 별바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천장이 부실한(?) 잠지리에 누워 바라본 하늘은 장관이다. 바람 따라 흐르는 여린 이내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별빛은 강둔 위에 내린 별인 듯 또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아침, 태양의 기운이 서리를 거두어 간 뒤, 제2연화봉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이곳부터는 해발 고도가 1300m를 웃돌기 때문에 산마루에는 거의 억새뿐이고, 기슭에 무리지은 철쭉들도 지난 봄 붉게 타올랐던 화려한 추억만을 앙상한 몸매 속에 저미고 있다.

천문대를 지나 제2연화봉을 비껴 비로봉 가는 길은 'X연탐방로'라는 행정용어투의 멋없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등산객들의 발길에 지친 산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구름다리처럼 만들어 놓아서 제법 운치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의 중간쯤이,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라는 주목 군락지다. 또한 그 군락지 사이에는 천상의 이슬만을 거둔 듯한 생물이 있으므로 목마른 등산객들에겐 그야말로 '감로의 땅'이다. (사족 하나 보태자면, 아무리 갈증이 심하더라도 천문대 앞 자판기의 음료수는 드시지 마시기를. 그래야만….)



◇비로봉 오름길. 법신불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이다.

천년기념물 제244호인 주목 군락지는, 4만 5천여 평에 이르는 보호 지역에 200~700년에 이르는 수령의 주목 2000여 그루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소백산에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혼이 났을 세찬 바람의 몸짓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범상치 않은 수형이 다른 지역의 주목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주목 군락지에서는 조금만 올라서면 비로봉(1439.6m)이다. 사방 어디고 걸림이 없다. 연화봉은 물론이거니와 죽령 너머 도솔봉과 저멀리 월악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비로봉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며 바람을 맞아보면, 왜 이 봉우리의 이름이 법신불의 이름을 딴 '비로'인지를 단박에 느낄 수 있다. 어디 하나 모난 데 없는 원만한 형상에 사방이 툭 터진 활달자재한 경계는, 진리의 빛으로 온 세상을 감싸는 비로자나부처님의 세계 그 자체인 것이다.

비로봉을 지나 국망봉 너머 상월봉 가지의 부드러운 산마루 길은 장쾌하기로 치면 한국 산 중 으뜸이자 소백산의 백미다. 바람에 몸 맞기며 억새와 함께 너울거리자니 천상의 길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다.

노을지는 국망봉을 뒤로 하고 달 떠오르는 상월봉을 오른다. 첫눈을 밟는 느낌만큼이나 상쾌한 낙엽 바르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아침. 소백이 아껴둔 비경인 산월봉 일대를 천천히 살피며 서서히 몸을 낮추니, 이른 바 양백지간의 고갯마루인 '고치'다. 소백산과 헤어져 선달산을 지나 태백으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역시 작별은 고갯마루에서가 제격이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불자기업 해탈불상조성원 02-435-2626 / 017-799-7730
여러분의 조성심으로 모든 불사현장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천왕 : 천왕문이 없어도 법당내에나, 출입문, 벽에 걸어 놓을 수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지국천왕

광목천왕


증장천왕


다문천왕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 호신불로 스님방에 모실 수있으며 천안에다 시주자 이름표를 달아드립니다. 불사에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소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 삼존불도 조성하여 드립니다. ※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보급

달마대사와 경전의 핵심인 반야심경을 함께 모셨습니다.
가정에는 품위있는 소장을" 고마운 분께는 마음의 선물을!"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을 선택하십시오.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불립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차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재질 및 특징
달마도사는 우리에게 불립문자로 반야심경을 설파하였습니다. 흔히 달마조사의 그림 자체가 기(氣)가 많이 살아 있으며, 수맥차단 운기보호 등등을 운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 반야심경과 함께 있는 달마조사는 우리에게 선(禪)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氣)를 주고 있습니다.



▶ 스탠드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 격 :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 가 격 : 97,000원



▶ 액자형 경판
· 원산지 : 한국
· 규 격 :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 (액자포함)
· 가 격 : 107,000원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